

A Treatise of  
Delighting  
in God



John Howe

#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관하여

시편 37 편 4 절 연구

존 하우

본서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ChatGPT-4.1-mini, Gemini 2.5 Pro)을 활용하여 생성된 자동 번역서입니다. 별도의 인간 역자나 신학적 감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AI의 순수 결과물인 만큼, 고어나 복잡한 신학적 용어의 문맥이 다소 매끄럽지 않거나 오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원전의 핵심 내용을 보다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알려드립니다.

## 목차

서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관하여—제 1 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관하여—제 2 부

## 서문

사랑하는 벗들에게, 이 논고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중 많은 분은 20년 전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주제로 여러 편 설교했던 일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실은 그 설교들을 요약하여 여러분께 드리고자 했으나, 제 서류들을 찾아보아도 그럴 만한 자료는 없고 온전치 못한 단편적인 기록들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가 많은 이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또한 여러분을 향한 제 애정의 증표이자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 만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을 위해 이 주제를 다시금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제 1 부는 서두에 제시된 몇 가지 전제를 제외하면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당시 이 주제의 실천적 적용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한 것은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2 부에는 이전에 여러분께 전했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만, 순서나 표현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제가 가진 간략한 메모만으로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복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종교의 실체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뿌리이자 꽃이며, 실천적 경건의 기초와 토대인 동시에 정점이자 완성으로서, 경건의 전반을 관통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여러분께 유익함과 즐거움을 가장 적절히 아우를 만한 선물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내용을 단지 저를 보아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으며, 저 또한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마땅히 더 높은 차원의 이유들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을 잘 압니다. 저 또한 마음의 수문을 연다면 여러분을 향한 제 애정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숙고 끝에 단호히 제 자신을 제어하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아마 우리의 경우도 그러할 텐데—저와 여러분 같은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 오가는 애착은 점진적으로 죽어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애착이 도를 넘어 과도해질 수 있듯이, 이러한 생각 또한 지극히 타당합니다.

만일 그 애착이 자신을 가로막는 어떤 섭리나 도구를 향한 조급한 원망을 동반하거나, 자신에게 불쾌한 일을 겪게 하는 원인 앞에서 그러하다면, 그 애착을 품은 당사자나 다른 이들에게 소란과 불안의 원인이 된다면, 또는 우리 앞에 놓인 궁극적 목적 자체는 등한시한 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과거의 일들을 병적인 미련으로 되돌아보게 한다면, 그 애착은 이미 도를 넘은 셈입니다.

죽어야 할 것을, 특히 죽어야 할 만큼의 정도로 살아 있게 하려는 것은 제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호 애정은, 그것이 유한한 대상에 걸맞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교제를 더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당하다면,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고, 현재의 형편이 허락하는 친절한 행동과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면, 또한 특별히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듯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이 작은 노력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순수하고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 글의 주제와 내용은 제 것이 아니므로, 설령 여러분이 얼굴도 본 적 없는 낯선 이의 손을 통해 추천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가치와 근원적 저자이신 그분을 보아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글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아시듯이,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저의 미려한 수고를 통해 추구했던 것과 동일한 목적, 곧 널리 알려져 있고 의문의 여지가 가장 적은 종교의 위대한 진리들을 진지하게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특정 분파에 여러분을 편들게 하거나 맞서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글은 생명이 결여된 종교적 형식주의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다른 누구에게나 그렇듯 여러분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합니다. 실로 형식주의보다 더 공허하고 메마르며 유익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저의 길이었고 제 정신의 기질이었음을 얼마간의 만족감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이미 알려진 중요한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더욱 간절히 역설하지 못했던 것을 크게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그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들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제가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일에 뛰어들 자신감도 별로 없었고, 그런 종류의 문제로 다투려는 성향도 거의 없음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게는 본질적으로 사소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문제들에 제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제가 그 문제들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을 근거로 마치 제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보다 뛰어나다는 의견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런 의견의 근거가 되기에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각 분파에서, 그 차이가 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문제들에서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몇몇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저와 다를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척도는 이 사람 혹은 저 뛰어난 인물의 의견과는 별개로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식의 측면에서 그들보다 제가 나을 것이라고 자만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이는 마치 노래나 류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여길 이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과 자신 있게 의견을 달리하거나 다투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 결과 이 문제들에서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보다 더 큰 문제에 훨씬 밝은 그들 중 일부는 이 사소한 문제들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게다가 저는, 가장 열띤 논쟁과 다툼보다는 겸손과 사랑과 인내가 이런 사소한 차이들을 해소하거나, 혹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대의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훨씬 더 크게 기여하리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느 한쪽 편을 들며 다투는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우리 공동의 위대한 목적과 양립할 수 있거나 그 목적에 명백한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 한, 저와 다른 견해와 실천을 가진 이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숙고한 판단에 따라 최선으로 보이는 길을 따랐을 뿐, 굳이 제 길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종교의 실제 자체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이들의 실천적 불일치—이는 모든 진지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판단과 양심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이 너무나 명백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공공연히 불경하고 방탕했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에 대한 경멸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 중 한 번은 이 주제를, 다른 한 번은 그 반대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때마다 이 문제가 자주 강조되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떠난 뒤로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혹은 다른 이의 수고에 어떤 복이 따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확신하며, 이미 그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만일 이 글이 죽음보다 먼저 닿는다면, 아직 살아 있는 그들에게 효과적인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외적인 경건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과 양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불경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분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아닙니까? 만일 기뻐한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나 세상의 다른 위로를 기뻐한다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새 마음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 찾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 기쁨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힘써 나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메마르고 시든 것들, 곧 세속성, 형식주의, 사소한 일에 대한 다툼 대신에, 살아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꽃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토링턴은 ‘헵시바’, 곧 ‘기쁨의 장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고향은 즐거운 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듣기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여러분의 참된 번영을 가장 진실하게 바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애정 어린 종인 저에게도 적잖은 만족과 즐거움을 더해 줄 것입니다.

존 하우

1674년 9월 1일, 앤트림에서.

---

\* 이 부분은 저자가 하루에 두 번 설교하면서, 한 번은 시편 37:4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다른 한 번은 그 반대인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를 다루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 1 부 이 명령의 의미

> 너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시편 37:4

이 시편의 내용은, 선한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심히 악한 자들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상황을 전제하는 듯합니다. 이 악인들은 압제를 일삼으면서도 변영하고, 압제받는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 앞에서 인내심을 잃기 쉽습니다. 또한 그들은 압제자들이 누리지만 자신들에게는 없는 좋은 것들을 부러움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이러한 전제들에 가장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그러한 상황이 의인들에게 죄와 고통의 빌미가 될 수 있기에, 그들이 이를 견뎌 내도록 힘을 북돋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 구절은 앞서 언급한 경우들 가운데 마지막 상황, 곧 폭력적이고 변성하는 악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의인들의 경우를 더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즉, 그들은 원수들의 세상적인 쾌락을 탐내고 부러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진미를 탐내면서, 더 나쁜 것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데 분개하고, 정작 자신들은 그들에게서 부당하게 더 심한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제시되는 권면은 그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저급한 것들을 향한 무절제한 욕망을 억제하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데 적합합니다. 이는 마치 과다출혈로 위험할 때 다른 정맥을 열어 혈류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사치스러운 향락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과도하게 욕망할 이유가 없다! 너희는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나은 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를 부른다. 주님 자신이 너희의 분깃이다. 너희의 신분과 영에 걸맞게 그분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데 힘쓰라. 너희 영혼을 풀어 자유롭게 하여, 너희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 순결하고 만족스러운 기쁨으로 배불리 먹고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의 하찮은 향락을 잃고 갖지 못한 것이 풍성히 채워짐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본성적인 욕망과 갈망이 있어, 정당한 경계와 척도를 넘어서기 쉽다. 그러나 이 길을 택하면 그 욕망은 곧 절제되고 온건해져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적당히 허락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고 넓어져도 좋다. 그 갈망은 결코 규범이 허용하는 것보다 커질 수 없으며, 대상이신 주님께서 채워 주시지 못할 만큼 클 수도 없다. 실로, 전자의 지침과 의무는 후자의 무한하고 끝없는 충만함에 비례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지침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 애써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의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직접적인 의무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먼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대상은 거듭난 자들(시편 자체가 분명히 명시하듯 ‘의롭고 정직한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유익하게 고찰하는 길은, 먼저 구절의 전반부에 주어진 지침에 집중하고, 그다음 후반부에서 약속된 결과가 어떻게 약속의 힘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뒤따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지침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백성의 위대한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즉, 그들이 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다루고, 둘째 부분은 그 명령의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둘째 부분에서 시편 구절의 후반부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를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대상이고, 둘째는 그 대상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먼저 기쁨의 대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의 대상은 어떤 선(善), 또는 선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현존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의 대상은 최고의 선이자 가장 완전한 탁월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이 선과 탁월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의 대상을 두 가지 관점, 즉 절대적 관점과 상대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 가장 선하고 탁월한 존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성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탁월성들, 곧 모든 완전함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둘째, 상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과 탁월성은 단지 그분 자신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그 자체로 가장 탁월한 존재로 생각하면, 그분은 필연적으로 최초의 존재, 곧 다른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창조자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탁월한 존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그분에게서 존재를 받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유지자,

주관자로서 모든 피조물과 일반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분 아니라 이성적 본성을 지녀 율법으로 통치받고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순종해야 할 '주님'과 두려워 할 '분깃'이라는 이중적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이 두 관계 모두에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두 관점 각각에 해당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가장 기쁨 넘치는 탁월성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1. 가장 탁월한 주님으로서: 그분은 가장 기쁨을 주는 탁월한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칭호는 단지 소유권이나 지배권만을 의미하는 엄격한 뜻이 아니라,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소유권에 기초한 통치 권능, 즉 권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께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을 시인하며, 온 세상의 경의와 순종과 예배가 영원히 그분께 드러져야 합니다.

2. 가장 탁월한 분깃으로서: 하나님 안에는 그분을 가장 탁월한 분깃이 되게 하는 모든 것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온갖 바람직하고 상상할 수 있는 풍요와 충만함, 그리고 궁핍하고 목마른 영혼의 모든 필요와 갈망에 부응하는 넘치는 관대함과 선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암시하며, 두 번째 개념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유익에 대한 기대를 일깨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의 권리를 침해했고, 우리의 분깃이신 그분 안에서 누릴 권리를 상실했으며, 그분을 섬기고 누릴 직접적인 능력, 곧 기질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거대한 균열은 오직 종보자를 통해서만 메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을 위해, 유일하게 합당하신 그분의 아들, 성육신하신 분, 곧 육신이 되신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그분은 떨어진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적대감을 이기심으로써, 그 종보의 효력이 미치는 한에서 그 간극을 메우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이들에게 그분은 다시금 그들이 인정하는 주님이자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옹호되고 우리의 권리는 회복되며, 이 둘은 기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근거가 더해져 굳게 세워집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와 그분께 거는 기대는 반드시 종보자를 통해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 기쁨의 대상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이제 속죄(atonement)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롬 5:10-11).

이처럼 간략히 언급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유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자 할 때, 이 방식들 중 어느 것 하나 부적절하거나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각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대상으로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가장 절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을 사색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탁월성 자체를 바라보는 것으로, 거기서 우리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당장 고려하지 않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런 유익을 기대하지 않는 탁월한 대상(가령 장엄한 건물이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곧 주님으로서 생각할 때, 위엄으로 단장하시고 영광을 입으시며 의로 옷 입으시고 권능으로 무장하시며 거룩함으로 빛나시고, 당신의 모든 통치를 지혜와 경륜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 또한 즐겁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그분의 권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온전함을 전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잘 단련된 영혼에는, 마땅히 명령해야 할 분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처럼 사물의 합당함과 적절성을 파악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의 권리와 우리의 의무가 그토록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것이 힘겨운 속박이 아님을 발견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괴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모두 즐거움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생각할 때, 것처럼 풍성하고 넘치는 총만함과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성향을 보면 그분이 가장 만족스러운 기쁨의 대상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보다 주로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된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보자의 조건에 동의하는 이라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으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표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 정당하게 결론 내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 즐거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커집니다. 즉, 우리가 그 조건에 동의했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과 평화의 언약에서 직접 비롯되고, 그분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깨달을 때 그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는 말씀이 주는 무게감은 얼마나 큼니까! 하나님이 만인의 인정과 복종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분이신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영원히 섬기고 헌신하기로 선택한 그 온유한 속박 아래 있음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더없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바라보고 누리는 것은 무한히 더 즐거운 일입니다. 이는 이 성경 본문의 의도와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 본문은 경건한 이들의 마음이 원수이자 압제자인 세상 사람들의 향락을 지나치게 갈망하고 시기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이끌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를 위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 상상하는 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대안, 곧 즐거움의 차원에서 그들을 능가하게 할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이라는 대상으로 따로 떼어 고찰한다면, 이 대상을 가장 즐거운 것으로 만들고 거룩한 영혼들이 온전한 만족 가운데 안식하게 하는 두 가지 속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충분성’과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성품’입니다.

(1) 첫째는 그 충분성입니다. 이 분깃은 만물을 포괄하는 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지닌 가장 탁월하고 잘 알려진 속성들은,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든, 그 안에서 당신 백성의 행복에 기여하고 협력합니다.

(2) 둘째는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성품입니다. 이는 특히 그분의 관대함과 선을 행하시려는 은혜로운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혼들을 이끌어 갈망하게 하시고, 그 목마르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무한한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논의 목적과 순서가 단지 신자들을 저급하고 공허한 향락에서 더 나은 향락으로 이끌려는 의도 이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참되고 최상의 즐거움은 의무와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그분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라는 개념과 누림의 대상이신 선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서로 얽혀 하나로 통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는 바로 그 행위로서 그분께 순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최고선이신 그분께 두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즐깁니다. 그분의 통치가 주는 유익과 혜택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선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유익을 받도록 묶으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초대와 제안조차 우리에게는 법이요, 의무를 지우는 공식적인 구속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경배의 행위임은 이후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는 하나님을 우리의 부분적인 욕구에 상응하는 선으로만 여기는 편협한 시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는 우리의 인식을 특정 종류의 선으로 규정하고 제한하며,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왜곡된 관념으로 물들이기 쉽습니다. 그 관념이 거짓되거나 노골적으로 욕욕적이지는 않더라도, 보편적이고 만물을 포괄하는 선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협하고 균형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선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참된 선으로 불리는 것은 무엇이든 첫째 선 안에 있거나 그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듯, 그 총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치고 즐겁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을 유익한 것, 정직한 것, 즐거운 것으로 나누는 통상적인 구분은 엄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왜곡된 욕망이 느끼는 거짓된 쾌감이 그러한 구분의 근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병들지 않은 정신과 의지라면 평가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정신에게는 유익한 선이 유익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즐거울 것입니다. 정의롭고 고결한 정신에게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선이 정직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즐거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분이 필요 없이, 오직 그 자체로 즐거운 '목적의 선'과, 정직하고 합당하게 유익하기에(그렇지 않으면 유익할 수 없기에) 즐거운 '수단의 선'으로만 구분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찰하려는 즐거운 선을 더 효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즐겁게 누리는 모든 경험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교통(communication)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기능(외적 감각, 감성적 욕구, 상상, 기억, 정신, 의지 등)을 통해서든 무언가를 나누어 갖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즐거움의 종류나 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는 경우에도, 그 누림의 방식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교통이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인간의 상태를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명료하고 꿰뚫는 빛과 능력으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임하셔서 어둠을 흠으시고, 편견을 제거하며, 이전의 쾌락을 폐하시고, 당신의 감미로운 향기를 영혼에 불어넣으시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참되게 누리게 된 모든 이에게서 항상 나타나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이루어져야 할 일에 비례하여 자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적 교통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즐거움과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갈망되고 받아들여지도록 작용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즉, 그 교통 자체가 스스로 길을 내고, 영혼을 자신에게 맞게 조율하며,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감미로운 맛과 향기를 영혼에 부여합니다.

둘째, 거룩한 영혼들이 참으로 즐기고 기뻐하는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 이 교통 역시 그 즐거움과 누림의 일종의 매개적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이제 이 세상의 거룩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직접 누리는 교통, 즉 그들에게 전달되는 선(communicable good)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조차 마찬가지여서, 무언가를 맛보면서도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거나 뚜렷한 개념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누린다’고 할 때 직접적으로 누리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많은 이가 불경하게 품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규칙이자 인간이 그 은혜를 기대해야 할 근거—에 비추어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린 것이 매우 실체적인 것임을 이성적으로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보여주는 절제, 행위의 규칙성, 은혜로운 평정, 온유, 겸손, 자기 부인, 그리고 그 누림에 수반되었던 생생한 활기와 강력한 힘은, 그들이 ‘하나님을 누린다’는 이름 아래 빈 구름을 꺼안거나 그림자를 붙잡은 것이 아님을 충분히 증명해 줍니다.

시편 16 편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표현들은 요란하고 과시적인 미사여구나 작위적인 꾸밈,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과시, 공허하고 과장된 말의 흔적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지극한 즐거움과 충만한 만족감이 지극히 평온하고 질서 잡힌, 잘 조율된 마음의 상태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것처럼 풍성하고 흥내 낼 수 없는 생생한 충만감은, 거기에 어떤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든 간에, 가장 탁월한 본성을 지닌 대상을 인식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전달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림은 소유를 전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관계적으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관계적 소유만으로는 실제적인 누림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현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의 본질적 현존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동일하게 임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누린다고 말하려면, 실재하면서도 특별한 어떤 교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이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온 땅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보편적인 교통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에게만 고유한 것이며, 그렇게 태어난 신적인 피조물의 인식과 감각에 적합한 것입니다.

이 선이 무엇이며 얼마나 충분하고,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는, 이 피조물, 즉 그 안에 새 생명이 형성되고 작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갈망이 무엇인지 고찰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만족을 주기에 충분하며 그 목적을 위해 전달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스스로 그 대상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더라도, 일단 그 이름이 불리면 바로 그것이 자신이 원하던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인간의 영 안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영혼은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까?”라고 부르짖으며 막연하게 갈망할 뿐, 충족감을 줄 수 있는 유한하고 특정한 대상에 안주하지 못하며, 무한한 것에 대한 무지와 반감 속에서 동시에 몸부림칩니다. 그 영혼의 필요와 갈망은 모든 유한한 선의 척도를 넘어섭니다. 설령 유한한 선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나아가 그 전부를 손아귀에 넣는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구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더 많은 것’이란 불확실하고 상상에 불과한 무엇, 곧 무한한 공허요, 환상의 이상이며, 스스로 만들어 낸 신일 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가져야만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며, 설령 그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분을 선택하거나 갈망하거나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 상태에 머무는 한 필연적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열등한 선으로도 행복할 수 없으며, 최고선 안에서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영혼의 진정한 필요와 정당한 갈망이 무엇인지는 그 상태의 영혼을 고찰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새 피조물로서의 일이 그 안에서 완성된다면, 영혼은 더 이상 원하거나 갈망하지

않고 온전히 만족하며 완전한 안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의 상태 또한 우리에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망은 새 창조의 일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의 영혼은 올바른 대상을 갈망하며, 그 갈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움직임과 안식이 뒤섞인 상태이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영혼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여전히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고(시 27:4), 다른 종류의 것들을 좇아 방황하지 않으며, 오직 동일한 것의 더 많은 부분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영혼에게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많은 이는 더 간결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누리고 즐거워하려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뿐입니다. 그러니 더 깊이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려는 일이 무엇이며,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당신이 기대하거나 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되려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분을 누리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소유한 것(그것은 만족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그들 스스로 압니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특별한 교통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며, 전달 불가능한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는 마치, 친구나 우정이라는 말이 본래 의미하듯, 내가 ‘친구를 누리고 싶다’고 말할 때 진정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불가능한 일을 바라지도 않고, 그분의 외적인 재물을 일부 나누어 받는 데 그치는 불만족스러운 일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재물은 어찌면 하나님께서 문 앞의 모든 걸인에게 매일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사귄, 그분의 권고와 조언,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분이 지니신 본받을 수 있는 완전함을 따라 스스로를 빚어가는 유익입니다. 또한

앞으로 닥칠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진정으로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이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소통은 더 직접적이고, 더 끊임없으며,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달되는 선과 그 방식 모두의 측면에서 무한히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요컨대, 새롭게 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공급받고 만족을 얻고자 구하는 필요와 갈망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거나 그분에 대한 더 명확한 인식을 얻는 것,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거룩한 형상대로 더 온전하게 빛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호의적인 성향과 사랑을 품고 계셔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가 판단하는 영혼의 참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누리는 대상인 ‘소통 가능한 선’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누림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소통 가능한 선’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매개 혹은 방편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혼이 자신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소통은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내면에서 비추어 계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한 가지 일’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 14:8). 그들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일차적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라는 말씀이 이 지식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힘써 추구하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기원, 곧 우리 자신과 만물이 비롯된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것은 순수하고 원초적인 본성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롬 1:28) 이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사악함에 빠진 것입니다.

일단 새롭고 신적인 본성, 곧 새로워지고 회복된 원초적 본성이 주어지면, 이 지식에 대한 갈망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의 필요에 부응하여, 이제는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평안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향이 그 본성 안에 접붙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이는 이 지식 외에는 어떤 지식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거기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는데(빌 3:8), 이는 그의

갈망이 얼마나 이 방향으로 강렬하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바람직하게 인식되는 만큼, 비례하여 즐거운 것으로도 여겨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갈망하는 지식이 최종적으로 중보자에게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보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 직분을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이며, 그 이름 아래에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그분의 직분 안에서,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회복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사귀기를 회복시키는 분으로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그리스도는 그 길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을 그 자체로만 절대적으로 고찰하는 지식이 아니라(물론 앞서 말했듯 그렇게만 보아도 그분은 매우 즐거운 대상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 큰 기대를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만물을 포괄하는 선으로서 우리 눈앞에 제시되고 계시되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곳에서 논하게 될 어떤 종류의 즐거움에 상응하여) 현 체계의 길과 방법 안에서 그분은 적어도 우리의 분깃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조차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만족과 즐거움을 낳습니다. 행복을 관상(contemplation)에 두는 이들, 특히 하나님을 관상하는 데서 행복을 찾는 이들의 견해는, 만일 그들이 행복을 단지 관상 행위에만 국한하거나 그 영광스러운 대상을 아무런 관계 설정 없이 한가하고 헛된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내세의 복된 상태를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자주 표현하는 성경의 언어와 매우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행위 자체가 즐겁다면, 그 대상의 나타남 또한 그에 비례하는 즐거움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나타남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이들의 실질적인 결핍과 갈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 나타남 안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현현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더 감사하고 필요한 추가 요소들이 결여된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잘못입니다. 이 특별한 나타남 안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에 관해 말씀하시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1.

1. 이 계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여겨지며, 성령이 주어질 때 이루어질 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아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전제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령을 소유한 신자들조차도, 이 목적에 필요한 만큼은 온전히 받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이는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신자들만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이 점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믿기 전이 아니라 믿은 후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이때 성령은 그 목적에 걸맞은 이름, 곧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불립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엡 1:13, 17-18)으로 곧바로 명시됩니다. 이 영을 통해 그들의 지성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며, 이전에는 그 눈이 멀었다고 전제합니다. 이 기도는 이 계시가 전달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나아가 이 계시를 받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적어도 그들의 영적 상태에 합당하여 기도할 만한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이러한 계시를 받기에 더 적합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어서 그들이 이미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면, 이처럼 엄숙하게 간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모순되겠습니까?

2. 이 계시는 이전의 사랑과 충성,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언급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따라서 이 나타내심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특별하듯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이 계시는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묘사되며,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찬미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그가 그러한 나타내심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자격이 없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22 절).

이 특별한 빛은 일반적인 외적·내적 빛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 빛은 중생한 영혼이 절실히 느끼는 필요와 마음의 갈망에 응답하여, 그들에게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 실체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느껴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우리가 감각으로만 직접 인지하는 대상을 묘사하기 어렵듯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이 빛은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되신 하나님에 대해 갖는 인식은 혼란스럽고 희미한 빛에 불과하여,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마 6:23)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어떤 중생한 사람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관해 더 명확하게 습득된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더 나은 타고난 능력, 풍부한 교육, 학문과 묵상에 몰두하도록

돕는 환경 같은 이점들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온전한 통찰과 명백한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 속성, 사역에 관해, 그러한 이점을 누리지 못한 매우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중생한 사람)의 촛불이 전자의 것보다 희미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전자의 촛불을 무색하게 만드는 태양 빛줄기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사물의 연관성을 철저히 분별하지는 못할지라도, 알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며, 그들이 아는 것은 더 탁월한 종류의 지식으로 더 잘 압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신적인 것이 단지 인간적인 것을 훨씬 능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전자는 어둠 속에서 헤맬 뿐이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봅니다(시 36:9). 하나님의 빛은 동일한 대상에 다른 어떤 설명보다 더 밝은 색조와 모습을 부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희미하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어둡고 침침한 그림자에 덮여 보일 뿐인 것들이 이 빛 안에서는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마 11:25) 일이 일어납니다. 깨우침을 받은 정신에게 신적 지혜와 사랑과 거룩함은 얼마나 밝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정신은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발견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명제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은 동의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동의할 수 없는 명제가 있습니까? 이 대상들의 본질을 아무리 참되게 정의한다 한들, 육적인 정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참되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어떤 진술이 있다 한들, 거듭나지 않은 지성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맛보는 것들의 각기 다른 풍미(relishes)가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고유한 맛을 표현할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 다루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앞서 언급한 그분의 지혜, 거룩함 등)에는, 그것에 관해 형성될 수 있는 개념의 진리 외에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언가’는 신적으로 깨우침을 받은 지성에게 그렇지 않은 지성보다 더 명확하게 인지됩니다.

첫째는 그 진리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진리가 뿜어내는 생생하게 반짝이는 광채를 볼 때, 잘 조화된 영은 그 진리를 지극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 영은 기쁨으로 황홀경에 빠져 자신을 잊고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라는 말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의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 말들이 담고 있는 명제적 진리

외에 그들이 분명히 인지했던 무언가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는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황홀한 기도의 구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부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진리에는 그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데 꼭 필요한 어떤 ‘받아들여질 만함’(acceptableness)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그들의 인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선명하고 생생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동일한 진리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앞선 이들의 것과 같은 표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고 공통된 관심사라면, 그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바로 이런 종류의 인식을 더욱 분명하게 갖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만큼 큰 기쁨을 누립니다.

둘째, 거룩한 영혼은 다른 이들보다 그런 진리가 지향하는 바를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진리의 목적(스코푸스)과 목표가 무엇이며, 무엇을 겨냥하고 어디로 이끄는지를 압니다. 이는 그 진리가 다른 어떤 진리와 연결되어 있거나 어떤 추론을 낳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계시하실 때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야 하는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닌 이러한 지향점과 계획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마음에 동일한 관념들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서도, 그 관념과 너무나도 부합하지 않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며 불쾌하게 여기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지식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부적합하며, 등 돌리고, 마음이 냉랭합니다. 심지어 완전히 반대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로 자신과 다투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혐오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나쁜 기질에 내재된 부조화와 부적합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치 모든 것이 잘되고 있으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습관적인 성향이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관념과 모순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사악한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패한 성향과 썩은 마음은 악의적이고 어둡고 축축한 안개와 증기를 피워 올려 이 밝은 것들 위에 검은 구름을 드리우고, 그로 인해 진리의 지향점과 계획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 편견은 진리 자체의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하지 않으므로(그래서 그들은 덜 거리끼며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오직 그 진리의 계획과 목적(스코푸스)에 대해서만 강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계시로 이 독성 구름에 빛을 비추어 그 짙은 구성을 해체하고 어둠을 흩으십니다. 이는 그분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영혼에 남아 있는 동일한 병폐의 잔재를 발견할 때, 비록 그것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혼란과 분노에 가득 찹니다. 또한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여, 가능하다면 차라리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이들에게는 분별되는 무언가가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계시의 목표와 목적을 더 명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 계획을 좋게 여기므로 그것을 아는 만큼 기뻐하지만, 자신이 그 계획에 더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불만스러워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바람직하며 기쁨을 줄 것입니다(이는 적절한 곳에서 다시 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걸맞은 합당하고 아름다운 표상을 영혼의 눈앞에 즉시 떠올리는 것도 또한 기쁜 일입니다. 이는 표상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백성의 마음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거기에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인식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들을 거듭나게 하거나 회심시키는 사역 자체가 “그 눈을 뜨게” 하는 것(행 26:18)으로 표현됩니다. 신적 소통은 스스로 길을 열어 영혼의 보는 기능인 눈으로 들어갑니다. “눈을 뜨게 한다”는 표현이 암시하듯, 이 소통은 눈의 기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눈이 손상되어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닫혀 있음을 발견하고는, 들어가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열어 회복시킵니다. 이 사역은 또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사탄은 어둠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신으로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한 자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과, 눈먼 채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들의 눈이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심하게 병들고 멀었으며 봉인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은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만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지성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로부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성은 (교정되고 새로워진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지성이 현재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 영혼의 자연적 존재와 능력 전반에 무언가 더해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요일 5:20)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어진 올바른 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통을 통해 그러한 복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적합성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동일한 중생의 사역은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벧전 2:9)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새로운 세계로 인도되어 모든 것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바로 이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역사가 자신 안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더 큰 진보가 가능하다는 올바른 자각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시편 기자는 당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외적 계시 안에, 눈이 더 열린다면 발견할 수 있을 경이로움이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 계시를 율법이라 불렀지만, 사실 역사와 예언, 약속과 계명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록들에 낯설지 않았고 상당한 통찰력도 있었지만, 더 많은 빛과 더 나은 눈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기록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계시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일들이 자신에게 더 명확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전달 불가능한 것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2.) 이 내적 계시는 더욱 강력하게 확신을 주며, 계시된 내용을 더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믿게 만듭니다. 즉, 이 계시는 사람이 이전에 가졌을 법한 믿음의 수단들에 더해져, 동일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크게 높임으로써 영혼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하여 정신과 마음의 혼란과 어둠은 물론, 의심과 우유부단함, 방황까지 치유합니다. 어떤 것들은 명확히 이해할수록 내적 모순이나 다른 진리와의 불일치 때문에 오히려 더 불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기쁨의 진리들은 단 한 번의 빛을 비추심으로 명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믿음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믿음의 말씀은 있으나 믿음의 영이 없는 이들의 믿음은 송장과 같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힘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은 것이어서, 영혼의 방향을 정하고 마땅히 믿을 때 주어지는 감미로운 안식에 이르게 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감미로운 진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들은 타락한 인간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의롭고 합리적인 기쁨이 주는 달콤하고 신선한 맛을 직접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정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에 관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직접적이고 신적인 초자연적 계시에 속하며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한 사도는 어떤 이들을 위해 그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고(롬 15:13), 다른 사도는 또 어떤 이들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니”(벧전 1:8)라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에 담긴 외적 계시는 “들음에서 나는” 믿음을 낳는 적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된 행위자와 결과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뜻하므로, 필연적으로 주된 행위자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수단만으로는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된 행위자는 하나님 자신, 곧 성령이시며, 그분은 자신이 사용하는 수단들을 효력 있게 만드는 고유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야만 합니다. 펜이 글쓰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해서, 손이 움직이고 이끌어 주지 않는 데도 저절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이 써지려면 움직이게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영향력이란 우리가 논하는 내적이고, 빛을 비추며, 압도하는 소통을 가리킵니다. 그 효력은 믿음 안에서 영혼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는데, 이는 믿는 대상이 그러한 만큼이나 더없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또한 이 소통은, 결과를 낳기에 합리적이고 적합한 외적 계시와는 무관하게 광신적 충동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외적 계시는 수단으로서의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외적 계시가 신적이라는 사실을 설득할 충분한 근거가 주어지면(그래서 최초의 확증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 계시를 접하고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의 이름에 공공연히 적대적인 무리에 속하지 않는 한, 그 계시에 합리적으로 동의하게 되면), 그때 내적 계시가 더해져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외적 계시에 담긴 위대한 진리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자신과 온전히 하나 되어 결속하게 만듭니다. 외적 계시 전체는 바로 이 연합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바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많은 사람(그중 유다는 믿지 않았다고 명시됩니다)이 그리스도를 버렸을 때에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분께 그토록 굳건히 붙어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기를, 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요 6:64, 69)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유다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에게 그 진리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지성 안에서는 반론을 이길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악한 마음이 품은 타락한 성향을 이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적 계시가 외적 계시 없이 작용하는 법이 거의 없듯이(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적 계시 역시 홀로서는, 성경에서 더 탁월한 의미로 사용되는 '믿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외적 계시는 기껏해야 지적인 확실성을 낳을 수는 있습니다. 이 확실성은 한 사람의 정신 안에서 온갖 의심과 반론을 이길 수는 있어도, 그의 부패한 의지가 품은 반대 성향은 이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믿음은 그저 의견일 뿐이며, 많은 이들의 믿음은 합리적 의견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합리적 의견이란 양쪽의 견해를 저울질해 보고 더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기울는 것입니다. 반면, 너무도 많은 이들이 소위 '믿음'이라 부르는 것은 실상 맹목적으로 남을 따르는 기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근거란 고작 유행을 따르려는 마음, 혹은 기독교가 대세인 곳에서 다른 신앙을 고백할 때 따를 불명예와 여러 불편을 염려하는 마음뿐입니다. 때로는 그저 손쉬운 쪽을 택하는 나태한 무관심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아예 다른 신앙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합리적 확실성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외적으로 필요한 여건, 즉 충분한 지성, 인내, 근면, 공정성을 갖추고 기독교 교리가 하나님께 증언되었고 하나님의 증언은 속일 수 없다는 풍부한 증거에 근거하여 고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확실성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계시된 것들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큰 확실성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확신에 걸맞게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빚어가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습관적인 악한 마음의 성향에 반하는 진리를 확신하게 되더라도, 그 증거만으로는 그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돌이켜 이전의 악한 길을 버리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안이 본질적으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며, 이 권위는 우리가 동의하는 계시의 진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보증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생생한지에 따라 믿음은 생명력을 얻거나 잃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리하고 설득력 있는 정황 속에서 제시된다 할지라도, 외적 계시만으로 생겨나는 인식은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호렙 산에 모인 유대 백성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보증한 권위가 신적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율법을 선포하던 무서운 음성이 귓가에 아직 생생했을 터인데도, 그들은 율법의 명백한 조문들을 어기고 대담하게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할 수 없었음에도, 그들의 빈번한 반역은 명백히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민 14:11).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시 106:24).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에게, 그 기적들이 그분이 가르치신 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찍으신 인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이 확신했으리라 짐작함에도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믿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승천 이후에는, 외적으로는 증거가 더 부족했음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요 7:39).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이 점을 얼마나 명확히 보여주는지요! 그분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해석하신 뒤(요 6:35),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44 절). 이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63 절)라고 하신 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64 절). 이는 유다처럼 아무리 앞장서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 할지라도, 영의 살리시는 감화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로 불릴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65 절).

성부께서 무슨 이유로 그 백성에게서 그 살리시는 영을 이토록 보편적으로 거두셨는지는, 그들의 역사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이 떠나시자, 그들은 수 세기 전 이집트 압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적이라 할 만큼 완악해졌습니다. 실로 옛말처럼,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유기와 그에 따른 완악함은 근원적 정의에 따른 징벌적 섭리로 설명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요 12:37-38; 사 53:1). 여기서 복음의 소식을 믿는 것은 ‘주의 팔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등(엡 1:19).

주의 팔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즉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은 까닭은 이어지는 구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등(요 12:39-40; 사 6:9-10). 이 구절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정도가 심해진 것이, 과거 복음의 외적 계시에 완고하게 저항한 데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을 거두신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징벌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눈멀고 완악함은 오직 ‘주의 팔’로만 이길 수 있으며, 그 팔이 징벌로 거두어지면 자연히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결과들을 확실히 초래하는 어떤 것(하나님의 능력)이 거두어졌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믿음에 필연적임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단지 외적 계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샘솟게 하는 믿음에는 내적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온전히 말해주는 다른 많은 명백한 성경 구절들을 굳이 더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일 4:15),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요일 5:1)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과 성경의 여러 유사한 구절들에 대해, 우리가 위에서 역설한 바와 다른 뜻을 부여하면서도 수용할 만한 해석을 내놓기란 불가능합니다.

요컨대, 믿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바치는 경의의 일부이며, 믿어야 할 대상들이 계시된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그 진실성이 평가됩니다.

계시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진리를 정신에 담아두기 위한 관념을 낳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만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사람이 진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형성하고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나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가 ‘믿음의 순종’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보통 ‘불신앙’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불순종, 완고함, 설득되지 않으려는 마음(unpersuadableness)을 뜻하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어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 본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종할 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께 참되게 드러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권위로 영혼을 강력히 이끌어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교로 인해 영혼의 여러 기능은 하나님에 관한 한 서로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거룩한 올바름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만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영혼에 전하시는 깨우침의 소통은 정신을 흐리게 하던 어둠을 흩어버릴 만큼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고 꿰뚫어 뽀뽀하게 열어붙은 완고함을 녹여 새로운 틀과 형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초에)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는 자들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고후 4:6). 하나님의 이러한 소통을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발견하는 모습 그대로여야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이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바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즐겁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불완전하게만 주어졌음을 알기에,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이로써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벧전 2:2-3).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깊은 맛과 함께 알게 되며,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는 말씀(잠 2:10)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맛은 새로운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워진 갈망은 다시 더 크고 만족스러운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전의 메마르고 생기 없던 관념과 지금 가진 생동감 넘치는 인식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감격에 차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지, 또 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하여 각처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감사했는지(고후 2:14)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더 예민하고 분별력 있게 감지하게 되면서, 그들은 그 말씀들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지식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향기요, 생명을 주는 향수입니다(16 절). 말씀이 암시하듯, 그것은 가장 기분 좋게 향기로우며,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 자체로 생명력이 넘쳐흘러 그들 안에 생명을 넣고 전달하며 영혼을 가득 채우므로, 그들은 자신의 모든 능력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하나님의 계시는 지극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계시된 내용, 특히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직 스스로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증언하지 않으셨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명시된 방식과 조건에 따라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계시에 담긴 내용 중 기쁨을 낳고 키우는 것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언급은, 이 의무 자체를 강조하고 역설할 부분으로 의도적으로 미루겠습니다. 둘째, 계시의 즉각적인 방식과 태도 때문입니다. 영혼이

의무에 순응하여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마음을 열 때마다, 계시는 때를 따라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쉽게 임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때로 계시를 거두시는 아버지의 엄격함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됩니다. 셋째, 계시가 품고 있는 생명과 활력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계시는 생명의 빛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는 말씀 그대로임이 경험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디고 생기 없으며 무력한 관념들은 상대적으로 기쁨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넷째, 계시의 목적과 경향 때문입니다. 계시는 영혼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영혼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대상을 잠시 한 번 즐기고 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과의 정해진 교통의 여정에서 나를 인도하는 등불로 삼기 위해 이 빛을 비추셨음을 깨닫는 순간, 그분이 이 복된 목적을 위해 자신을 알리신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낳는 소통은 그 자체로 풍성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장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통은 그분의 형상을 새겨 넣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각인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린다고 할 때, 그는 즉시 무엇을 누리는가?’ 또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더 온전한 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 있는 모습, 곧 자신의 형상 자체를 전달하십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관념이나 유사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안다면, 그 지식은 마음에 참된 형상이 제시되고 형성되었음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지 재현적인(representative) 형상이 아니라 실재적인(real) 형상입니다. 앞서 논한 바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듯이, 이 실재적 형상은 지식을 위한 계시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하나님과 신적인 것에 대한 관념처럼 공허하고 생명력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했듯이 마음속에 합당한 각인을 새기고 영혼 전체를 온전히 변화시킬 만큼 능동적이고, 강력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의 효과는 바로 이 변화시키는 각인 자체이며, 이를 통해 영혼은 이전과 다른 존재,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러한 측면에서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일컬어집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의 씨이며,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ἀπαρχή*)이자 가장 탁월한 부분입니다(엡 5; 뱀후 1; 요일 3; 약 1). 이 닳음과 그것이 완전한 상태에서 주는 만족감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논했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불완전한 상태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일그러지고 병든 영혼을 지닌 채

그저 지극히 사랑스러운 대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무른다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통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통이 즐거움을 주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우리 안에 행복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인식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통이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나 이미 부분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 소통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며 그 속을 살피고 녹여 찌꺼기를 태워 없애고, 새로운 덩어리로 빚어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교통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통과 사귀을 위해 ‘빛’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됩니다(요일 1). 그러나 이 빛은 우리가 본래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는 빛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자녀로 나타나 그에 합당하게, 곧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엡 5:8). 우리는 곧이어 이런 말씀을 마주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이 있[다]”(요일 1:6-7). 여기서 ‘서로 사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엄숙한 선포를 통해 자신이 빛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며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사도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이 이미 속해 있는 바로 그 사귀이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빛이심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가 어둠 속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사귀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즉시 덧붙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발견과 그에 합당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귀이로 이끄는 본래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는, 오직 그 빛줄기를 통해 우리를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빛으실 때뿐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역량과 현재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느 정도 순수하고 밝게 빛나는 탁월한 피조물이 되어 창조주를 닮아가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두 번째로 지음 받게 됩니다.

복음은 이 사역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이며, 앞서 말했듯 우리의 지적 조명을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고 일컬어지며, 신성한 본성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본성과 우리를 향한 호의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응하는(거스르거나 반대하거나 대적하지 않는) 본성을 갖추게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됩니다(그러나 수단 그 이상은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의 계시를 영혼 안으로 받아들여, 밖에 있던 외적인 말씀을 ‘접붙여진 말씀’으로, 곧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말씀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공허한 소리나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계시가 이 각인의 도구인 만큼, 각인은 계시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계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뜻을 표현하므로, 각인은 그 계시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각인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닮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계시는 하나님의 인장(印章)이며, 그 위에 찍힌 도장은 그분의 형상을 본뜬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인장으로 날인된 영혼은 작가이신 하나님과 도구인 복음 양쪽의 서명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인도를 따를 때만큼이나, 그것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생각을 풀어놓아도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쓸모없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묘사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합당한 닮음이며,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새겨질 수 있는 닮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고후 3:18).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비치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형상은 바로 그 거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거울 속에 우리의 형편과 상태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보고 그 형상을 품는 것이 가장 긴요한 자신의 모습과 뜻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습이 어떠하며 우리에게 관한 그분의 계획과 결정과 법규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나아가 그러한 계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며 어떤 심령의 기질을 갖추는 것이 합당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각인하시는 소통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를 실제로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 소통은 가장 큰 즐거움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따라 형성되고 복음의 틀에 부어 만들어진 마음은—이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사도의 말(롬 6:17)이 함축하는 의미입니다—그 자체 안에 즐거움의 샘을 지닙니다. 물론 이는 완전하고 순수한 즐거움은 아닙니다. 더 이상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지 않으며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감각을 훈련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심히 불쾌하고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동일한 생명의 원리에 의해 영혼은 가장 감미로운 즐거움과 가장 예리한 고통을 모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죽어 있을 때는 어느 쪽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영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지닌 선하고 즐거운 것은 모두 더 높은 근원으로부터 와서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통은 죽은 그릇에 담기듯 영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소통이 임하는 영혼 자체를 살아 있는 샘으로 창조합니다. “여호와가 가뭄 속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시키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사 58:11). 이 말씀 뒤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할 것이라”(14 절)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거룩한 영혼을 기쁘게 소생시키는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분 자신이 말씀하셨듯 그 물을 받은 자 안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요 4:14). 이로부터 선한 사람은 “자기에게서 만족을 얻는다”(잠 14:14, 직역)고 하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잠 10:1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인의 입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하듯,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더욱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의 본질인 그분으로부터 오는 변혁적이고 정화하며 생명을 주는 소통을 구하지 않고, 곧장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헛되고 어리석은 계획이나 기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체하는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해롭고 위험한 실수, 곧 실천적 오류이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그들은 중생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황홀경과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만을 꿈꾸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몇몇 관념으로 자기기만에 빠져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것을 신적인 누림으로 여깁니다. 한편, 어느 정도 각성하고 깨닫기는 했으나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다른 이들은, 이미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오해에서 비롯된 헛된 방식으로 기쁨과 감미로움만을 찾고 붙잡으려 합니다.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은 여전히 쓰디쓴 담즙에 잠겨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때때로 언급하는 즐거움을 왜 자신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지 의아해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즐거운 선(善) 자체는 외면하거나, 즐거움을 가로막는 해로운 악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즐거움만을 원합니다. 이는 불가능하고 전도된 방식으로 즐거움을 그 원천에서 떼어내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려면 영혼에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이 즐거운 소통에 관해 더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통의 한 갈래, 곧 영혼을 복음에 일치하도록 빚어가는 생명력 있고 거룩하게 하며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풍성한 즐거움의 원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전달되는 것은 기질과 성향의 보편적인 올바름입니다. 여기에는 최악되고 부패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과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둘의 선과 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죄의 불결함 속에 길을 잃었던 비참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죄하는 모든 사악함과 비뚤어진 성향과 부패한 정동(afections)을 벗어 버리고, 복음이 원하는 순결함과 은혜롭고 거룩한 틀을 온전히 갖추게 되는 상태는 분명 복되고 즐거운 상태일 것입니다. 이 신적인 소통이 점진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자는 확실한 번뇌와 고통을 담고 있기에 이 소통을 통해 거기서 해방되고, 후자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담고 있기에 이를 통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신적인 소통이 후자를 가져오는 만큼 전자를 몰아내고, 사람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만큼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됩니다.

이 주제를 무수히 많은 세부 사항으로 파고들지는 않되,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마음을 바로잡는 소통이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영이 그릇되게 기울어질 수도, 혹은 올바르게 기울어질 수도 있는 몇 가지 주된 대상을 중심으로 이 소통을 고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소통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살아나게 하여 영적인 감각 능력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써 영혼은 자신의 이전 기질이—온전했을 때는 물론이고 아직 남아 있는 잔재까지도—매우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새로 주어질 거룩한 틀은 지극히 사모할 만하고 무한히 갈망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영혼이 부분적으로나마 바로잡혔음을 느끼고, 자신의 기질과 성향이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큰 즐거움이 됩니다. 첫째는 영혼이 가장 싫어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즉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께 이르는 길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합니다.

1.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은 돌이켜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향한 움직임도, 성향도 없었고, 모든 능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굽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움직임을 시작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마치 돌에게 위로 날아오르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원적 진리를 신뢰할 수도, 지고의 선을 사랑할 수도, 최고의 권위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혼의 행로는 온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할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멀어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소망이 되시는 분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의 길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하기 일쑤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멀어져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택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이러한 상태가 상당 부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영혼은 이제 이런 삶의 방식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달라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기에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뚜렷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제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께 종속된 본래의 올바른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으므로 그 탈선 상태는 고통스러웠지만, 영혼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돌아가기를 바라거나 목표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전 과정에서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 과정은 본질상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움직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려는 기질은 이제 새로 주어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로 인해 마땅히 느껴야 할 뉘우침과 슬픔은 결코 불쾌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에는 즐거움이 섞여 있으며, 희망을 품은 애통은 내면의 살아 있는 원리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영혼은 자신이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졌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내며 부드럽게 녹아내릴 때, 후회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자신의 행적입니다. 다만 지금의 이 회개 행위에 아쉬움이 있다면, 더 지극하게 할 수 없다는 점뿐입니다. 영혼은 회개에 있어 무한하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일정한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영혼은 티끌에 얽드려 자신을 낮추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포함된 겸손과 통회, 상한 마음에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시듯, 영혼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수에서 어떤 달콤함을 느끼지만, 회개하는 영혼은 오직 자신을 향한 이 의로운 복수에서만 그 달콤함을 맛봅니다.

스스로를 애통해하며 울음과 간구로 돌아와 이렇게 아릴 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에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이 따릅니다. “보소서, 이제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내가 불경하게 멀리하고 흠쳐 갔던 것, 바로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방랑하며 주님의 복된 임재와 섬김과 교통을 등지고 떠났던 바로 그 마음을 말입니다. 이제 주께서 지으신 이 영혼을 받으소서. 주의 마땅한 권리를 차지하시고 그 위에 임하소서. 주의 온전한 인(印)으로 치시고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다른 주인이 다시는 나를 다스리지 못하리이다. 내가 어찌 주님의 질투를 자아내던 우상들과 더 이상 상관하리이까? 이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겠나이다. 결코 잊히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나 자신을 주께 묶나이다.” 이 결단에 포함된 자기 부인에는 적지 않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자신에 대한 모든 주장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동의를 통해 이제 인정한 그분의 권리 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과 과거의 모든 이해관계와 성향과 목적을 부인하고 오직 그분께 속하기로 결심할 때, 어떤 것도 남겨두거나 숨기려는 의도 없이 남김없이 행할 때,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분의 조건에 동의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며 절대적으로 행할 때, 마치 금방이라도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것처럼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양단간에 머뭇거리는 일 없이 단호하게 행할 때, 영혼은 자신이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느끼며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생명과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과정에 즐거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하찮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생명력 있게 반복할수록, 그 즐거움을 새롭게 맛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교통은 참으로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동반자가 되며, 더 이상 나그네나 외인이 아니라 그분의 권속이 되는 것, 그분의 집이 베푸는 풍성한 양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가정의 복된 질서와 다스림 아래 사는 것,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구하고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바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신뢰가 주는 즐거움, 염려 없이 사는 즐거움은 실로 큼니다. 다시 말해, 유쾌하고 평온한 의존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분께 기대하며 사는 즐거움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굶주리게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믿음, 영혼이 의에 주리고 목마를 때 채워 주시리라는 믿음, 생명의 떡과 물로 지탱해 주시리라는 믿음, 배고플 때는 감추어진 만나와 하나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값없이 돈 없이 물과 젖과 꿀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자신 또한 먹고 입히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온전히 몰두하여 다른 것들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게 더하시도록 자유로이 맡겨 드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러한 신적 가르침에 따라 빚어져,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만 겪기를 원하시는 고통을 스스로의 생각과 두려움으로 천 번이나 겪는 많은 이들과 달리, 그런 것에 얽매이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섭리의 선하심과 결코 오류가 없는 그 확실한 지혜에 굳건히 안식하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결핍하고 무엇을 겪고 무엇을 누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아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즐거운 삶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만물의 상속자인 그분의 자녀에게 이 얼마나 합당한 삶입니까! “만물이 너희의 것임이라”는 그 광대한 허락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주장하되, 미성년일 때는 스스로 제 몫을 챙기기보다 지혜로운 아버지께서 정해 주시는 몫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경외심은 영혼을 차분하게 하고, 번뇌를 동반하는 헛된 생각을 몰아내며, 과도한 움직임을 억제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걱정을 제어하여, 내면의 모든 것을 유쾌하고 평화로운 고요 속에 머물게 하니, 이는 “네 배꼽에는 건강이 되며 네 골수에는 윤택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즐거움 그 자체이거나, 즐거움을 향한 경향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사랑의 기질은 거룩한 새 피조물의 일부로서, 그 자체로도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즐거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마치 시각 작용을 돕는 빛이, 한편으로는 (매개적 대상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의 일부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리로서) 보는 능력 자체를 활성화하고 그 작용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의 행위와 다른 은혜로운 행위들의 제 1 원리이자 궁극적 대상이므로,\* 영혼이 자신 속에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감지하는 것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력이야말로, 이전에는 그토록 사악한 혐오감에 시달리던 영혼의 기질을 바꾸어 하나님을 최고 즐거움의 위대한 대상으로 정하고 그분을 향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직 그분 안에서 누리는 현재의 분깃을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향한 마음의 기질 자체, 그리고 만약 그런 분깃이 있다면 그분을 자신의 최고선으로 삼아 만족스럽게 인식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 바로 이로 인해 그분을 향해 영혼이 애쓰며 분투하는 것에는 현재적인 즐거움이 따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아직 알지 못하는 기분 좋은 대상을 갈망과 즐거움이 뒤섞인 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받아 주실지, 어떻게 대하실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찾고 추구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데 내 힘과 생명을 바치겠다(이것이 곧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단하는 영혼의 기질에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님으로서 그분께 정해진, 습관적인 복종 가운데 사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순종을 배우고 멍에에 익숙해지는 것,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효과적인 변화를 통해 그분의 뜻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는 것을 맛보아 아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 “주의 율법이 거룩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마음의 꾸밈없는 심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존귀한 법으로 여겨서 이렇게 매일수록 그만큼 더 자유롭다고 여기는 것, 지시받기를 즐기고 다스림에 순종하며 재갈에 안달하거나 우리를 둘러싼 경계를 걷어차지 않게 되는 것, 이러한 기질에는 의무만큼이나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의 무질서하고 반항적인 작용을 억누르기 어려울 때에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부패한 본성에 맞춰 율법을 완화하여 방종을 허용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본성을 굴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주의 율법이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라고도 똑같이 진실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시 40:8).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을 꾸준히 사용하는 데에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길과 행로를 계속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의 행위를 살피게 됩니다. 이 일을 더 신중하고 자주 할수록 즐거움은 더 커집니다. 다시 말해, 돌아볼수록 우리의 행위가 더욱 칭찬할 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심판을 염두에 두기에 자신의 행로를 더욱 신중하게 정하게 되는데, 이때 분별력 있고 진지한 마음은 자신이 최고 심판자가 아님을 잘 압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 자신을 본받는 참으로 복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의 창조 사역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뒤에 즐거운 안식의 날을 맞으셨음을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느 정도 그분을 본받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관용으로 선하다고 받아들여 주실 만한 것임을 발견할 때, 우리 자신의 안식일, 곧 우리 영혼 안의 달콤하고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세울 것이 진실함뿐이라 할지라도, 잘 가르침 받은 양심이 그것을 되새길 때의 즐거움은 참으로 감미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사는 동안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결심하며, 스스로 비열한 계획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일을 꾀하지 않을 때, 빛 가운데 걸으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처럼) 그분을 피해 숨을 어둠이나 죽음의 그늘을 찾지 않을 때, 우리의 일상사와 늘 걷는 길에서 그분을 돕는 분으로 간구하고 심판자에게 호소할 수 있을 때, 어찌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고후 1:12).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날마다 영화롭게 하고 섬기기로 마음먹은 그분과 사귀며, 매일 어느 정도 그분을 누리고 머지않아 온전히 최종적으로 누리기를 기대하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고 평화로운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그토록 하나님께 반감을 품었던 영혼이 이제 이 모든 면에서 그분을 향해 이토록 좋은 성향을 갖게 되었으니, 영혼을 바로잡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 교제가 끊어져 버린 절박한 상황 때문에, 길을 열고 허물어진 옛 우정을 새롭게 할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그 중보자를 향해서도 올바른 마음가짐과 기질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통이 하나님께 이르는 우리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올바르게 잡아 줄 때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그리스도를 향해 가장 완고하고 단호하게 반대했으므로, 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전달되는 것이 필요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연적인 부분에는 그 위에 세울 옛 기초가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그분의 본성과 여러 속성에 관한 약간의 관념이 남아 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앎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렇지 못했을 때 양심의 많은 견책과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 다룰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중보자에 관한 부분은 완전히 맨땅에서부터 세워야 할 구조였습니다. 복음의 편에 서도록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끄는 원리는 전혀 없었고, 모두 새로 심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자신에게로 되돌리시는 방식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무한히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려 깊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이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이 방식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었고, 한 번도 생각하거나 짐작조차 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방식의 경향과 모습은, 훗날 알려졌을 때 인간 영혼의 기질이 가장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질은 단순히 무지할 뿐 아니라, 편견을 품고 심한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길은 사람을 옛 토대에서 완전히 끌어내어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며,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인간의 영광스러운 교만에 먹칠을 하고, 그를 먼지 속에 내던져 비참한 죄인, 오직 하나님의 응징의 발에 짓밟히고 으스러지기에나 합당한 존재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정신이나 양심의 빛으로 자신이 죄인이며, 창조주께 죄를 지어

그분의 정당한 진노를 샀고 그분의 심판하시는 정의에 따라 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음을 인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인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다고 믿게 만들기는 여전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 보상할 방법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모든 타고난 탁월함을 되짚어 보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풍족히 보상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다가와 그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그의 죄는 영원한 고통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치르지 않고는 속죄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한 분,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은 인간이 되시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자발적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희생제사 외에 인류의 죄를 위한 어떤 다른 제사도 결코 받지 않으시며, 그들의 어떤 섬김도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계시된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비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통치권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고 그 어깨에 지우셨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통치자요 심판자로서, 또한 자신들과 모든 인류의 생사를 결정하는 위대한 분이로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구속주요 주님이신 그분께 평생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의와 힘을 얻어야 하듯, 그분께 가능한 모든 경의와 복종을 바쳐야 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혀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규정을 따르며, 자신의 뜻을 아무리 거슬러야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설령 그 모든 일을 행하고도 아무 공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더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비천하고 무가치한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조건이 아니면 결코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고 이해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며, 이미 파멸했고 무능하며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가? 나의 모든 타고난 혹은 후천적인 탁월함은 그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나처럼 가치 있고 성취를 이룬 사람이 이토록 먼지 속으로 굴러떨어져야 하는가? 게다가 이런 속박 아래 놓여 나 자신을 전적으로 구속주께 빚졌다고 고백해야 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영원히 살고 더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단 말인가? 만일 내가 그분의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내 자신을 탐닉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한들 그런 죄과를 결코 보상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분의 선물(나의 용서와 생명)을 이런 조건으로 받는 것은 나의 자유를 팔아넘기고, 나 자신을 영원히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완전한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인간의 오만하고 방종한 영은 강력한 흐름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요 6:44)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강력한 능력의 역사에 따른 지극히 큰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오직 창조자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누구든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본성적 반감은, 부패한 본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조차 어느 정도는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고 그분 안의 제자리를 지키게 하려면, 동일한 능력이 계속해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고후 1:21).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나 큰 찬사와 경배를 받으시는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롬 16:25, 27). (이것은 실로 타락한 세상에게는 위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바로잡는 소통은 강력한 능력을 동반하는 만큼, 그것이 영혼을 이기고 이 문제에 대해 진실하게 바로 세웠을 때 그에 비례하는 기쁨 또한 가져다줍니다. 그분의 능력의 날에 마음이 기꺼이 순종하여 그분의 사랑의 밧줄이 영혼을 붙들어 그분께로 이끌 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동의하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행위와 기질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요! 우리의 비참한 상황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채워 주시는, 온전하고 합당한 선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은 지극히 즐거운 일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참된 상태를 절감하고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외칠 때, 그분께서 바로 곁에서 동의하기만을 기다리시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받으라. 너의 예수, 너의 도움, 너의 생명이니라!” 자신의 고통을 느끼고 멸망 직전에 있음을 깨닫는 영혼에게, 또한 그분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날마다 멸망하고 있었음을 보는 영혼에게, 이 경험은 얼마나 압도적으로 즐거운지요!

그분이 사랑으로 임하시는 때, 피투성이가 된 비천한 영혼을 발견하시고 “살아 있으라” 말씀하시며 웃 입히시고 꾸미시며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온전하게 하실 때, 거름더미에서 끌어내져

가장 혐오스럽고 비참한 처지에 버려졌던 그 영혼에게 자신을 주시며 혼인 언약을 맺으실 때(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렇게 묘사하셨으니 우리가 새삼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죄 많은 피조물을 이기시고 그 피조물이 자신을 받아들일도록 설득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영혼은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분께 소유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나 기쁘게 내던지는지요! 여기에 혼인 잔치의 기쁨, 약혼의 환희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이러한 관계 맺음이 아직 뚜렷하게 의식되지 않을 때라도, 그것이 진실하게 이루어지기만 했다면 그 행위 자체와 그 행위를 지속하는 기질 속에 감각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일을 돌아볼 때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행해졌는지, 또는 영혼의 편에서 여전히 올바른 상태인지에 관해 큰 어려움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위를 지속하는 동일한 기질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드러낼 때마다 즐거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엄숙한 의식이든 일상적인 계기이든), 그로부터 생겨나는 관계나 그에 필수적인 행위의 진실성이 그 순간에 의식되지 않더라도, 그 동의 자체가 진실하다면 거기에는 은밀한 기쁨이 따릅니다. 영혼은 자신의 행위를 당장 검토하고 살피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감사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생명의 원리에서 비롯된 영혼은 이제 온전히 생명ियो 선함이며 감미로우신 대상을 껴안고 자신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영혼 속에 자신의 즐거운 향기와 향내를 퍼뜨립니다. 그동안 영혼은 오직 대상에게 직접 반응할 뿐,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거나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이와 더불어 숙고하게 된다면(물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숙고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받아들이는 분이 누구신지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에 전념하시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 영혼이 그분과 연합하라고 요구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 관계 맺음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주는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더해 줍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태는 이 일이 매우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예수, 곧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지극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골 2:6). 마음을 정복하여 이 일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영향력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한때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하며 속으로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영혼이 자유로이 굴복할 때,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결단과 정동(affections)으로 자신을 그분께 헌신할 때, 그분의 통치에 동의하고 자신의 목과 어깨를 그분의 멍에와 짐에 내어 맡길 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반론 없이 그분께 이렇게 아될 때의 즐거움은 참으로 큼니다.

“오, 제 생명과 소망의 주님! 주께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저와 씨름하셨고, 그토록 자주 간절히 저를 재촉하셨으며, 주님의 자비로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저를 다루셨습니다. 주께서는 오직 구원하시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떤 의도로도 다스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피로 통치의 기초를 세우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으니, 바로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영혼을 받으소서. 이제 제 자신을 자유로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적 능력에 굴복하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발등상 아래 엎드립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신 주님, 주님의 정복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유익을 섬기고,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의 온 생명과 존재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일이 진실하게 행해질 때마다 그 행위 자체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미래의 순종을 서약하는 이 대상이 결코 비천하거나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기쁨은 배가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맏아들을 세상에 들이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유와 감미로움으로 가득 찬 기질을 지닌 분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그분은 오직 자신의 긍휼과 사랑에 이끌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그 어두운 그림자와 두려운 구름을 온 땅에 드리운 세상, 그리하여 곳곳에서 자행된 파괴와 폐허를 목도하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의 통치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생명인 복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그들의 본래 기원을 깊은 망각 속에 빠뜨렸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행복에 등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위대하신 주, 이 왕께서는 영혼의 회복자가 되시어 여러 세대에 걸친 황폐함과 폐허를 복구하고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오시는 곳마다 복을 흩뿌리셨고, 그분을 아는 모든 이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누가 기쁨으로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고 경의를 표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토록 위대한 분의 통치 아래 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을 기쁘게 되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법과 규범의 취지와 목적(스코푸스)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하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멩에는 얼마나 쉬우며, 그분의 짐은 얼마나 가벼운지요! 그분의 나라의 구조는 무엇이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누가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시 97:1). 어찌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기서 기쁨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분 안에서 환호하고 영광을 돌릴 이유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분의 나라가 약속하는 의와 평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기쁨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을 그에 맞게 빚어 준비시키지 않는 한 결코 실현되지 않습니다(롬 14:17). 이 모든 것은, 그저 말로만 들었을 뿐 그 안에 스며드는 생명의 감화를 통해 생생한 의미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낱 꿈이요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분의 통치에 조율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주인의 지배 아래 있으며,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찬양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바다와 들, 짐승과 나무가 그분의 승전가를 부르고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거기서 얼마나 풍성하고 이성적인 기쁨의 근거를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율법의 전체 체계에는 헛되거나, 불공평하거나,

불쾌하거나, 어떤 면으로든 괴로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심령이 병든 자가 내리는 평가는 아니며, 오직 그분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 자들, “그를 사랑하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내릴 수 있는 평가입니다(요 15:10).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계명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즉, (어떤 이들이 이 구절을 합리적으로 곡언법으로 해석하듯) 그 계명들은 즐겁고 기쁘고 유쾌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만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감화와 소통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사람들의 영을 바로잡아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에 크게 기여합니다.

둘째, 이로써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올바르게 정립됩니다. 사랑이라는 보편 율법이 마음 깊이 새겨져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온유함과 자비로움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악도 행하지 않고 어떤 악이든 감내하며, 고통받는 이를 불쌍히 여겨 돕고, 원수를 사랑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영혼에 남기시는 이 흔적이, 다른 모든 특징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인장(seal)에 꼭 들어맞는 날인(impression)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적 소통이 하나님의 뜻이 외적으로 계시된 바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영혼이 이러한 기질을 갖추기를 요구하는데, 이 복된 기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며(갈 5:22-23),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9)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된 영혼은 그 안에 기쁨의 샘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은 누구를 대하든 의로움과 선함, 인자함, 솔직함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영으로 행합니다(고전 13:4-8). 그 영은 사람의 영을 고르게 균형 잡아 움직이게 하므로, 그는 모든 사람을 적절하고 합당하게 대합니다. 그는 가장 선한 이들, 곧 세상의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가장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 어떤 악감정도 품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자를 시기하지도, 가장 비천한 자를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해친 자에게 복수하지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의

은혜를 잊지도 않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에게서 배우려 하고, 가장 모범적인 본을 보임으로써 악한 사람을 가르치려 합니다. 뒷사람에게 불손하지 않고, 동료에게 무뚝뚝하거나 비사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으며, 그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범위 안에서 모두를 위한 공동의 선이 됩니다. 그는 내면에 심긴 선의 원리와 자기 의지의 확고한 성향에 따라 기꺼이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영혼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좋은 종류의 기쁨을 누리도록 빚으셨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된 영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함으로써 자기 가슴에서 기쁨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기쁨이 깃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 가슴속에 교만, 분노, 시기, 악의, 복수심, 비통함과 같이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들을 품습니다. 이러한 악덕들은 주위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들은 밖으로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삼키지만, 자신을 낳은 창자를 물어뜯는 독사처럼, 그 악덕들이 생겨난 바로 그 마음을 가장 날카롭게 물어뜯고 고문합니다.

셋째, 이로써 영혼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올바르게 정립됩니다. 이 점 또한 별도로 고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자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유익과 안식과 기쁨이 되지만(이것이 이 모든 논의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중에는 더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는 자질들도 있으며, 우리가 지금 논하는 올바른 상태는 상당 부분 이러한 자질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는 용납될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자기 사랑을 전제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선대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라.” 사람 안에 이 올바른 영이 새로워지기 전, 그는 반사되어 돌아오는 타격으로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접적인 타격으로도 자신을 해칩니다. 또한 부지런히 직접 돌보아 치료해야 할 상처가 굶아 터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에게 얼마나 불친절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본성이 태초에 그곳에 세운 질서를 깨뜨려, 마땅히 자신 안에서 다스려야 할 이성과 판단을 왕좌에서 끌어내림으로써 자기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기쁨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 일인지 알면서도 정반대의 길로 달려갑니다. 이로 인해 그들 자신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거센 폭풍이 일겠습니까

자신의 빛과 지식이 스스로를 거스르는 증언이 되어 끊임없이 심판 아래 가둘 때, 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참으로 가혹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온전히 방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돌보고 추구하고,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참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인간과 공유하는 공통의 탁월함에 관해서는 자신의 더 고귀한 부분을 폄하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상상하는 어떤 특유의 탁월함에 관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자만심에 빠집니다. 그들은 영혼에 가장 큰 위험과 손상을 끼치면서까지 자기방종에

빠져 감각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며 자신을 얼마나 잘못 다루는지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개의치 않을 때, 그들은 자신에게 참으로 무정합니다. 채울 수도 없는 욕망을 품고 용납하며,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그 실망이 수많은 분노의 화신으로 돌변하여 자기 마음에 날카로운 복수를 가하게 할 때, 그들은 자신에게서 얼마나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에 대한 권위와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마땅히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내면의 다른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할 이성을 지키지 않으며, 스스로를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정욕과 걱정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가장 비열하고 폭압적인 주인, 곧 자신의 더럽고 저속한 기질과 천박한 욕구들에 눈먼 채 멧돌을 돌립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혹독한 감독관들을 섬기면서, 짚이 없어 벽돌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들보다 더 심하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이 고된 속박으로 인해 신음하지도 자유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은혜로운 소통은 내면의 모든 것을 상당한 정도로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끔찍하고 지옥 같은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뿐이던 곳에, 이제는 온화하고 기분 좋으며 명랑한 빛이 비추어 질서와 순결,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에서 오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이는 앞에서 논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한 정의와 자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에 대해 공정하고 참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실로 비천하고 사악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낮게 여기고, 우리 존재 안에 참된 가치와 탁월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바로 그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상 안에서만 가치를 둡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법을 배워, 부당하게 자신을 드높이거나 칭찬하거나 신뢰하거나 사랑하거나 추구하고 섬기는 성향에서 벗어나, 마땅히 그래야 할 경우와 그 범위 안에서만 자신을 인정하고 굳게 붙들게 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평화와 위로, 안전과 영원한 소망을 희생시키며 우리 안에 군림하던 '자아'라는 우상이 더는 서지 못할 때, 그 안락함과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우상은 우리 영혼의 실체 전부를 독차지하고 우리 정신의 힘과 활력을 소진시키고 삼켜 버렸지만, 그것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기능을 동원하여 자신을 위해 값비싸고 헛되며 불법적인 제물을 마련하도록 끊임없이 재촉했습니다.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괴물에게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안도감과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괴물은 성경의 역사나 다른 어떤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대가와 희생 제물로 먹고 자랐습니다. 인신 제사로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제물로만 만족하던 괴물들이 도시와 마을에 가져온 파멸보다 더 큰 황폐함을 인간 영혼에 가져왔습니다. 소수의 피를 끊임없이 공물로 바쳐야만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살 수 있었던 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삼켰으며, 몰록이나

미노타우로스보다 더 많은 생명을 유린하고 더 잔인하게 잡아먹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우상이 파괴되고 짓밟힐 때, 죽음과 속박에서 풀려나 구원받은 가련한 영혼은 얼마나 큰 희년을 맞이하며, 얼마나 풍성한 승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를 깨닫게 될 때,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 애쓰는 것이 얼마나 더 쉽고 합리적인 섬김이겠습니까! 그들은 이전의 주와 섬김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임을 느낍니다. 죄가 더는 그들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그 지체의 사육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며,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롬 6:11, 12, 18).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사람의 영에 임하는 안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는 더는 어떤 불법적이거나 용납되지 않는 의미에서 자신을 찾고 섬기고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폭압적인 육체적 성향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거나 재촉받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우월하고 나은 원리에 의해 균형을 잡고 자기 영의 무게와 성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우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남은 일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알아 행하는 것뿐임을 발견하고 자신을 위한 모든 불필요한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필요한 염려는 의무의 일부이므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행해지고, 불필요하고 금지된 염려(이것만이 짐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는 신뢰와 자기 내맡김으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것이므로, 그분의 기쁨과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보다 더 큰 안락과 기쁨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이 즐겁지 않다면 어떤 삶이 즐겁겠습니까? 참으로 이 경지에 이른 삶은 가장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롭고 마음을 바로잡는 소통은 점진적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기 통제에서 오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이 다스리고 마땅히 복종해야 할 것이 복종할 때, 사람의 정신이 지침이 되는 실천 원리들로 충분히 갖추어지고, 그의 마음이 기꺼이 가르침을 받아들일도록 형성되어 제약을 잘 견디고 지시에 순응하며, 계몽되고 잘 훈련된 정신의 고삐에 쉽게 순종하고 그 인도를 따를 때, 상위 능력과 하위 능력 사이에 질서가 유지되고, 마음의 법을 거스르는 통제 불가능한 욕망과 정념들의 소란스러운 불평이 없을 때, 그 기쁨은 참으로 큼니다.

물론 이 거룩한 올바름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으면 많은 갈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승리를 위한 과정이며, 그 승리 끝에 얻는 개선(凱旋)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영혼이 승전가(ἐπιθνικιον),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말입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도 이를 수 있는 그 행복한 상태, 곧 내면에 더는 아무 소요(騷擾)가 없는 상태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악인”(그 이름이 바로 그 뜻입니다)은 “쉬지 못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도다.” 그곳에는 다스리는 원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성난 파도를 막고 잠재울 왕의 홀이나 삼지창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 그분의 능력이 영혼 안에 나타나면, 얼마나 평화롭고 기분 좋은 고요가 뒤따르겠습니까! 이제 사람은 자신을 되찾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참으로, 그리고 최상의 조건에서 자신을 누리게 됩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자신을 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복종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소유하는데, 거룩한 올바름의 한 요소인 인내가 바로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눅 21:19). 인내는 용기의 일부, 곧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완전한 노예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해를 끼칠 힘이 있다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사악한 의지와 변덕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종속된 노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이성과 양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무절제한 자기애와 탐욕, 두려움에 모든 것을 내맡기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게 됩니다. (설령 그 사안 자체가 아무리 옳고 그들에 대한 복종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든 비열하고 천박한 일입니다.) 반면, 고난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로 인해 인내에는 기쁨(골 1:11)이 동반됩니다. 하물며 인내라는 한 요소가 아니라, 사람의 영을 내적 질서에 맞게 구성하는 저 거룩한 올바름의 전체 틀에 있어서야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전반적인 절제(이 단어는 정신의 건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와 자제력, 자기 통제력이 자리 잡고, 영혼이 더는 부당한 갈망, 두려움, 분노, 슬픔 따위에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심지어 제정신을 잃지 않으며, 마땅히 지녀야 할 것들이 없다는 사실과 그것들을 향한 비뚤어진 무능과 반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때, 길들여지지 않은 육체의 강요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생명이 베푸는 은혜롭고 참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마음이 확신에 찬 판단 및 양심과 습관적으로 충돌하며 자연스레 일으키는 극심한 고통에서 상당 부분 해방될 때, 그리고 ‘너는 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는 그런 존재이면서 그런 체하고, 네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잘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거나 행하기를 바라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끊임없는 자책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영혼이 온통 뒤틀려 끊임없이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이 행복한 변화를 통해 영혼이 얻는 안식과 기쁨은, 탈구되었던 모든 뼈가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제 위치에 제대로 맞춰졌을 때 몸이 느끼는 편안함과 즐거움에 비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절실하게 고백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 이는 곧 “이제 나는 온전한 사람처럼 걷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고, 전에는 피하려 했거나 절뚝이며 상했던 내 영혼이 한 걸음도 땀 수 없었던 의의 길이 이제는 나에게 즐겁고 기쁨을 주는 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그러지고 부서졌던 뼈들이 즐거워하니(시 51:8),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활동에서 오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혼이 외적이고 부적절한 동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 심긴 생명의 원리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며 바르고 곧은길로 나아감을 깨달을 때,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바를 온전한 동의를 통해 행하고 강압에 끌려가지 않을 때, 약하고 무력하게 자기 판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 통치 법칙이 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꾸준하고 부지런한 자기 성찰에서 오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의 영이 자기 안에 거하며 집에 머물고 밖에서 자신을 찾지 않으며, 자기 경계 안에 머물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의 움직임을 마땅한 소임으로 여기고 살피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는 계명에 순응하도록 빚어질 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므로 모든 생명 활동은 그 뿌리와 원천의 맛을 낼 것이며, 마음이 선하고 순수하면 그 활동도 그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고 악해진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숙고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혼이 자기 고유의 영역과 영토의 일에 익숙해져서, 그 눈이 어리석은 자처럼 땅끝을 향하지 않고 안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포도원을 가장 잘 가꿉니다. 반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게으름뱅이의 포도원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온통 뒤덮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영혼을 볼 때 그 광경은 얼마나 쓸쓸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마주할 끔찍한 대접을 알기에, 그저 눈을 돌려 외면하는 더 가망 없는 방법으로 그 공포를 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이방인이요, 자신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사정보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정세나 이웃의 온갖 시시콜콜한 일들에 더 밝습니다. 집안일은 방치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빈곤과 황폐가 무장한 군사처럼 들이닥쳐 저항 한번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유린하고 파괴합니다. 은혜가 마음을 바로잡는 사역과 능력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마음을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올바르게 조정하여, 먼저 내면을 들여다볼 인내를 갖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로부터 가장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의심 많은 마음이 품는 극심한 혐오감은 다른 방식으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극복되기만 하면, 그 세심한 자기 성찰의 시선 아래 만물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나겠습니까! 그 영혼은 물 댄 동산과 같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온전히 기쁨으로만 지어진 분을 초대하여, 그분의 맛있는 열매를 잡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은둔과 고독이 즐거워지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벗 삼아 기쁘게 어울립니다. 자기 자신을 벗으로 삼으니 언제나 누군가 곁에 있는 셈이어서, 홀로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화해시키신 위대한 종보자께서 이처럼 영혼을 자기 자신과도 화해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이겠습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그를 '사방의 두려움'(Magor-Missabib)으로 바꾸어 온갖 공포에 둘러싸이게 하고 스스로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그 끔찍한 상태를 생각하면, 그가 평화의 아들로 변화하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변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최악에 빠진 세상에서 어디서나 마주치는 슬픈 광경으로 지친 눈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심으신 동산을 들여다봄으로써 회복합니다. 또한 그 동산을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기에, 자신을 교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경멸의 눈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신 일을 자만심이 아닌 일종의 자기 만족으로 바라봅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혐오와 자기혐오로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자아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자아가 그와 연합되었지만, 그것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 아니라 이전의 자신과도 다르게 만드셨는지, 그리하여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는지 잘 압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에 익숙해질수록 그 과정은 더욱 즐거워집니다. 단, 자기 영혼의 어두운 면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앞서 말했듯이 자신 안에 있는 선하고 보기 좋은 모든 것이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며 더 밝은 면을 바라볼 때 그러합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과 친숙해지고, 더 자주 들여다볼수록 그 모습은 더 나아집니다. 물론 그 변화가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실로, 많은 경우 상황이 슬퍼 보이고 때로는 의심스러워 보일지라도, 이는 오히려 더 부지런한 탐구를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이 탐구는 하나님과 자신을 향한 더 진지한 수고와 씨름으로 이어지고, 그 수고는 뒤따르는 열매와 즐거움으로 보상받습니다. 나아가 사람은 하나님께 바로잡아 주실 뿐 아니라 더 깊이 살피시도록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편파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상황이 요구하는 만큼 엄격하게 성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두려워질 때, 그의 기도는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안에 악한 길이 있는지 보소서"가 됩니다. 이 자기 의심과 자기 영혼에 대한 경계심에

나타나는 진실함에는 그 자체로 감미로운 맛이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께 드리는 영혼의 상소에는 은밀한 즐거움이 스며들어 섞입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서 스스로를 철저히 알기 원하며 그 불꽃같은 눈의 살피심을 피하지 않으려는 기질을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이 신적인 소통은 모든 면에서 즐거움을 줍니다. 이는 사람의 자기 자신을 향한 기질을 교정하고, 자기 영혼을 대하는 성향과 자세를 바로 세워 주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신적인 소통은 사람의 영을 이 세상과 저 세상, 곧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향한 기질 면에서 바로 세워 줌으로써, 즐거움을 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 점에서는 실로 엄청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게 뒤틀려 있어, 사람들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모를 뿐 아니라 문제가 바로잡히기 전까지는 그런 맛 자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감각은 얼마나 타락하고 훈련되지 못했으며,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조잡한 감각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이고 더 정련된 감각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무능하고 분별없는 원리가 지시하는 대로만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랑하고 추구할 뿐입니다. 모든 경우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들 마음의 세속성과 육신성으로 물든 감각적 상상에 선하게 보이는 것만을 선하다 하고, 같은 원리가 악하다고 선언하는 것만을 악하다고 합니다. 영혼의 모든 성향과 기질은 바로 이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들은 지나가고 있는 이 악한 현세, 곧 그 형체와 정욕이 함께 사라져 가는 이 감각적 세계의 힘에만 영향받고 지배당합니다. 다가올 세상의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그로부터 오는 어떤 동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로는 오직 현세적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조종될 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 안에는 성부의 사랑이 없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는 장차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억누를 만큼 충분히 무신론적입니다), 자신이 차지한 세속적 지위와 그들이 거하는 비천한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잡는 소통이 일으키는 변화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며 더 나은 본향, 곧 하늘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은 얼마나 기쁘니까

이 세상이 보여 주는 온갖 유혹을 때로는 아무런 성향 없이 바라보고, 다른 때에는 사물이 흥흥하게 보일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세상과 분리되어 거하는 것, 곧 “전능자의 은밀한 곳”(시 91:1)과 “그의 장막”(시 27:6)

안에 그분이 숨겨 두신 자들 중 하나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과의 교통에서 물러나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머무는 이 삶은, 세상의 영에 참여하거나 그 영에 따라 움직이는 대신 더 위대하고 강력하며 더 순결하고 거룩한 다른 영에 의해 움직이도록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 4:4). 또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2). 성령께서는 영혼이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싫어하고 그것들로부터 분리되게 하실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향하게 하고 그것들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 영혼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 곧 더 낮고 탁월한 것들이 공통의 몫과 유산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고 말할 수 있을 때, 이는 얼마나 큰 기쁨이며 자랑입니까! 이때 세상은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즉 저주스럽고 가증하며 혐오스러운 것(‘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한 가지 의미입니다)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세상을 경멸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누군가 추한 십자가에 매달린 혐오스러운 시신을 좋아할 리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 곧 죽었음(또 다른 의미입니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각도, 호흡도, 맥박도, 움직임도, 욕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떤 종류의 생명도 없는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과 교체하며 그것을 품었던 저속하고 비천하며 추악한 생명은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지에서 오는 즐거움은 그 일을 이루신 십자가 자체, 그토록 혐오스럽고 끔찍한 것마저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더 분명하게 찾아야 할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비극의 궁극적 목적과 결말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도리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라볼 대상이 됩니다. 이 행복한 결과는 바로 그 목적이 실행되고 성취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했습니다(빌 3:10).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은 그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의 부활의 권능”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음을 더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그의 고난에 동참함”을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 갈망했는데, 비록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수단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했기 때문입니다(11 절). 이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혹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져, 내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절실히 깨닫고 마침내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도, 심지어 십자가 처형의 고통 자체도

개의치 않으며, 나의 세상적이고 땅에 속한 자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와의 관계와 연합에 걸맞은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 상태에 아직 온전히 이르지 못했지만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분과 함께 살아난 존재임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골 3:1)이라는 말씀처럼, 그분께 속한 자들은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이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그 전제에 부합하는 영의 상태와 기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다음 구절이 보여 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다음은 그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고백은 그들이 부활했음을 전제하고, 이는 다시 그들이 먼저 죽었음을 전제합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한다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이 땅의 것들에서 떼어 내어 더 높은 영역의 것들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핀 문맥에서 표현되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빌 3:20) 삶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된 관심사와 특권이 위에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능력들을 주로 저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14 절)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한 백성을 이끌어 올리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스코푸스)이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근본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립니다(18-19 절). 사도는 바로 그 엄청난 부조리에 눈물로 분개한다고 증언합니다.

사도는 이처럼 십자가의 목적에 기꺼이 순응했기에, 십자가에서 비롯될 영광스러운 열매와 유익, 곧 더욱 고양된 하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떤 고행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만큼 그의 마음이 이미 그 방향으로 강하게 쏠려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그에게 작용한 영혼을 바로잡는 능력 또한 그만큼 강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신음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고후 5:4-5).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이 일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은 다가올 복된 상태를 향해 그토록 확고하게 기울어져 있었기에, 비록 지체되는 것을 인내로 견딜 수는 있었으나 그곳에 있기를 가장 간절히 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일부 다른 해석도 있지만, 이것이 이 담론의 가장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보입니다.) 성령이 풍성히 부여지던 시절,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질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으니, 이는 자기들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천국은 아주 중요했지만, 이 세상은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했습니다”(고후 4:18). 이는 옛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는 말씀으로 마음과 정신이 바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며 세상의 쾌락과 부와 명예를 경멸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대했기에, 온갖 고난과 고문을 견디면서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때 마음을 움아매던 근심과 욕망, 슬픔과 두려움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뚜렷이 느낄 때, 사람의 영은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자신을 짓누르던 짐과 족쇄가 떨어져 나가고 이 땅에 자신을 묶어 두던 결박과 올무가 풀렸음을 발견할 때, 영혼을 사로잡았던 어둠과 무지와 죽음에서 벗어나 빛과 순결과 평화가 있는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서는 것을 느낄 때, 그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날마다 그 영역에 점점 더 동화되어, 마침내 순결한 거룩함과 고요한 평온, 안식과 복됨을 지닌 천국이 그에게 익숙한 본향이자 그의 본질 자체가 될 때, 그 기쁨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모든 면에서, 이 은혜로운 소통은 영혼을 바로잡아 마땅히 있어야 할 가장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신성한 소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소통은 영혼을 새로운 신성한 생명으로 낳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천상적이고 신적인 문제에 대해 굶뜨고 무감각하며 죽어 있던 영혼을, 이제는 살아 있고 활기차며 왕성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존재로 만듭니다. 흔히 생명은 달콤하며 그 자체로 즐겁다고들 합니다. 이 비천한 육신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잠시 헤아려 그 즐거움을 맛보고 누린다면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팔다리가 죽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생명이 싱싱하게 싹트고 솟아나는 것을 느낄 때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영혼의 생명, 특히 이토록 탁월하고 숭고한 생명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신성한 생명은 이후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적인 원리이며,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맛없고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사람이 얼마나 즐거운 활동과 결실을 누릴 수 있게 하는지 보여 줍니다.

둘째,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영혼은 자신을 낳은 바로 그 신성한 감화로 양육됩니다. 생성하는 힘을 흔히 태양에 비유하듯, 태양은 자신이 낳은 것들을 소중히 기릅니다. 의의 태양(말 4:2)이신 그분의 광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게 하고,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채우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고, 하늘의 감추인 만나 곧 천사의 양식을 먹으며, 이로써 (이 점을 여기서 굳이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자양분과 성장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셋째,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소통은 만국을 치유하는 모든 열매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회복시키며, 영혼을 지탱하고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과 온전함이 주는 기쁨은 얼마나 큼니까! 부러진 뼈가 낫는 편안함, 병들고 쇠약한 마음이 얻는 안도감과 같습니다. 현세에서는 치유가 완전하지 않고 재발이 잦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막 자리 잡고 퍼져 나가기 시작한 영혼도 종종 이런 상태에 놓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분의 감화가 영혼을 고치고 새롭게 할 때, 그분의 율례 안에서 마음이 온전해졌음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또한 그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딤후 1:7)이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기쁨은, 비록 걸사람은 낡아 가더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때 승리의 환호를 터뜨리게 합니다.

넷째, 강하게 하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 소통은 결심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 줍니다. 이처럼 생명을 주고, 양육하며, 치유하는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욘 17:9)고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시 84:7) 나아가며, 앞으로 나아갈수록 힘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 갑니다. “여호와와 의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기”(잠 10:29)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길에 새로운 힘이 계속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들 또한 그렇게 인정합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그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라는 말씀을 이룹니다. 이처럼 힘이 더해지면 그에 비례하여 기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길을 달리며 어렵고 위험한 일에 도전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힘으로 자신의 거룩한 소명에 따르는 일상적 의무를 수행합니다. 이 힘으로 어려움에 맞서고, 적과 싸워 이기며, 무겁고 고통스러운

압박을 견뎌 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기쁨이 섞여 있습니다. 이 힘의 사용이 가장 즐거움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우, 곧 날카롭고 쓰라린 고난을 겪을 때조차도 이러한 즐거운 조화가 깃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운 조화는 오직 은혜로운 소통의 길을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고난자들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골 1:11)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즐거운 소통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이 소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에 따라 영혼을 빚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마음, 곧 당신께 적합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곧, 선한 영의 상태가 그에게 전달되고 그 안에 깊이 새겨짐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 소통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으며, 상당 부분 바로 이 소통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존재로 그를 빚으셨을 때, 그는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실과 최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동일한 솜씨로 창조되었기에, 기쁨과 복된 삶에 온전히 어우러지게 됩니다.

참된 즐거움의 본질이 내면에 심긴 영혼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영혼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 곧 복음의 규칙과 계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 안식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 됩니다. 이제 그 영혼의 기질 자체가 일종의 율법이자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영혼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은혜를 받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전한 외침일 것입니다. “오, 내가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다면! 그분의 거룩한 뜻에 더 온전히 부합할 수 있다면!” 따라서 이는 영혼에게 큰 즐거움과 안식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 점은 앞에서 이미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한 보편적인 무지와 부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즐거운 소통의 한 측면을 길게 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물론 다룰 수 있는 내용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알지 못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은 데서 두 가지 오해가 비롯되었는데, 하나는 매우 위험하고 다른 하나는 심히 불편한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어떤 이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으면서도 누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되거나 실효 없는 관념들로 자신의 상상을 만족시키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관념에 안주하며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행복의 전부로 삼았고, 그 사이 성자의 복음에 제시된 순결하고 거룩한 형상이자 본보기를 따라 자신의 영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상이 새겨진 결과가 바로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어떤 이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오직 자신을 향한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황홀하게 깨닫고 확신하는 데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 안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하찮게 여기고, 자신 안에서 여전히 잘못된 것 외에는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 심겨서 그토록 즐거운 맛을 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들을 개선하려 힘쓰기는커녕,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불안과 불평 속에서 헛되이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종교 자체에 내재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힘써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잘 조련된 영혼이 그 안에 품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문제를 더욱 주목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논의의 목적(스코푸스)과 방향에 대해 몇몇 분들이 마음에 품을 법한 의심이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소통에 담긴 더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대신 자신을 즐기도록, 우리 자신을 중심과 안식처로 삼도록 이끄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로운 원리와 성품에서 오는 감미로움이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이 성품들이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합니다.

1. 그러한 거룩한 성품들은 하나님이 아니듯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반론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을 즐기는 것과 우리 자신을 즐기는 것이 완전히 동일해져서, 반론이 까닭 없이 지적하려던 오류를 스스로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패하고 죄 많은 원리와 성품이 ‘옛 사람’이라는 자아를 구성하듯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이라는 또 다른 자아를 구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엄밀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용납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성품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니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적절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상의 형상이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의 이름을 갖거나, 작품이 작가의 이름을 갖는 것은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성품들은 명백히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라 불리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한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영을 소멸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을 때, 어찌 그것이 영원하고 피조되지 않은 영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생 사역에서 산출된 바로 그 결과물(단순한 생산적 감화가 아닌)은 명백히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결과가 원인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날으시는 영이 있고, 날음 받은 영이 있습니다. 날음 받은 영은 그 원인인 하나님의 영과 구별되어야 하듯이, 그 효과가 일어나는 주체인 우리 자신의 영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중생 사역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과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다른 모든 사람이나 사물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직접 전달되고 부여된 어떤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그렇지 않다면,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어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거한다(dwelling)’는 말은 영속성을 함축하므로, 이는 일시적인 감화일 수 없고, 어떤 확고하고 지속적인 효과, 곧 그분의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감화로 유지되는 일관된 영의 틀과 기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들을 즐거운 것이라고 제시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자신을 즐기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입니다. 이 소통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2. 이 소통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큰 친밀성을 지닙니다. 우리가 그 주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산물이자 그분의 형상이며, 인간적인 것이 아닌 신적인 본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즐거움이 여기서 그친다 해도, 그것을 우리 자신을 즐긴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즐긴다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3. 우리의 즐거움이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의도한 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며, 그리하여 우리의 즐거움은 궁극적으로 그분 안에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4.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고 할 때, 저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전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달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전달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친구의 본질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 그분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해하기는 한결 수월합니다. 친구와의 소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멀고 간접적이며 저항에 부딪히기 쉬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누려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론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분의 선하심에 계속 머무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와 같은 명령들의 의미를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이 명령들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즐거움의 대상에서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행위로 논의를 옮길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셋째,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적 기질이 일단 주어지기만 하면 참으로 즐거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질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즐거움의 문제를 우리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할 어떤 것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일 전체를 불가능하거나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기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것만 가득해서, 과연 기뻐할 만한 것이 있기는 한지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참되고 온전한 역사가 있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의무의 이행을 미뤄야 합니까? 그것이 정말 보이는 그대로인지 아직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겠습니다.

1. 분명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소통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은 (소망하는 것 외에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통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즐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들의 상태에 합당한 것은 즐거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입니다.

3. 그러나 실제로 그 소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관해 말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점은 그것이 그 자체로 즐겁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진실성에 대해 약간의 의심이 남아 있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의 맛이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심은(그리고 그보다 더 큰 원인인 이 소통의 불완전한 수용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노력의 태만은) 그들의 즐거움을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중생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잡는 소통이 그 본성상 어떤 즐거움의 재료를 담고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이는 그 소통이 복음의 계시에 따라 영혼을 실제로 형성할 만큼 온전히 주어지고 받아들여졌다고 가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소통이 더 탁월한 수준과 정도로 임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즐거워서 미래의 안전하고 복된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물론

그런 경우에 위안을 줄 정도의 확신이 부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영혼에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기쁨은 단지 확신에 의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외적 요소가 항상 함께 작용하지 않더라도 그 소통 자체만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확신을 얻는 것만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지침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유일한 길은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더해질 때 즐거움의 내용은 크게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III. 이 신적인 소통은 개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즐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광주의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외적 계시를 참조하거나 그 계시에 근거하여 계몽된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하는 일을 배제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드는 식의 사랑의 증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적 소통의 다른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외적 계시가 정신과 마음에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그 역사를 판단하는 규칙과 척도가 되듯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 계시 안에 잠재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을 내적으로 증언하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영혼의 현재 상태에 맞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적 계시는 개인의 상태가 저마다 다르므로 각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전 2:9)라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런 몫도 없다”는 의미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이행되면 조건부 약속은 절대적 약속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치 개별적으로 주어진 말씀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다”라는 의미를 참으로 전달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명료하게, 혹은 그만한 증거를 가지고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러한 것들이 예비되었다는 진리만큼 명백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적으로 담겨 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고 오직 자기 성찰과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의 경향 및 삶의 태도를

관찰함으로써만 규명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증거에는 등급이 있을 수 있어도, 진리 자체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참된 것은 모두 동등하게 참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위대한 것들이 예비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일반 개념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포함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 그것들이 예비되었다’는 말씀 또한 동등하게 참됩니다.

공적인 선포가 누구에게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아니든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공통된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이 내적인 나타나심 또한 그 선포에 부합하여 다른 것이 아닌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즉 내적인 나타나심은 외적 선포와 모순되지 않으며(실상 그 안에 잠재된 것 이상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선포된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개인’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분별하도록 도와, ‘이 위대한 약속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진리를 마음에 강력하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통상적으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한다면 외적 계시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진리의 체계 전체와 거룩함의 온전한 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다는 점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개별적인 확신 또한 외적인 수단 없이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드물게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다루시는 그분의 더 일반적인 과정과 방식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지고의 권능은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 그분의 복음이라는 외적 증언(이 또한 성령의 증언입니다)과 결코 배치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증언은 거룩하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의 원수에게 “너는 화해를 받고 용서받은 상태에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에게 말씀하시거나 암시하실 때 반드시 외적 증언을 통해서만, 곧 당신께서 전하려는 바를 알리는 수단으로 외적 증언만을 사용하신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께서 때로는 (예언자들이나 성경 기록자들에게 하셨듯이) 외적 수단 없이도 여러 사실을 전하셨으며, 전해진 내용의 의미에 부합하는 정동(affects)을 그들 안에 일으키셨음을 압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적 말씀 일부를 당면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는 거룩한 영혼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없다거나, 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한 체계적인 추론의 방식으로만 그렇게 하신다는 점이 증명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큰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 혹은 제삼자의 체험이 제사자의 체험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두 사람이나 수천 명, 심지어 진지한 그리스도인 대다수(자신의 선한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증거를 얻은 이들조차)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빈약한 논증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에 관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심어주셨는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에 따라) 다루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분의 임재와 개입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놀라울 수 있습니다. 생각의 움직임은 지극히 빠르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뚜렷이 관찰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 자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순서에는 신경을 덜 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이 사안에 관한 확고한 규칙을 세우는 데는 거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어떤 원리가 전제되고 굳건히 고수되기만 한다면, 이 문제가 그토록 중대하여 우리가 굳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거나 확정적으로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리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동일한 영이 당신의 말씀 안에서 하신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사람들의 확신을 위해 말씀 안에서 이미 하신 것과 새롭거나 다른 것을 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즉, 공개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총 밖에 있는 상태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 또는 말씀이 그에게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가 받아들여졌고 사랑받고 있다고 증언하시는 법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 이 문제에서 가장 중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전제된다면, 성화되지 않은 마음의 명백한 증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죽지 않고 군림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신적 사랑의 위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감히 내세우는 헛된 자랑을 막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받아들일 때, 그들이 자랑하는 계시는 단지 그들 자신의 무지와 교만과 허영을 드러낼 뿐이거나, 혹은 과열된 상상이나 (더 나쁜 원인으로는) 그들을 죄 가운데 잠들게 하여 눈가린 채 더 쉽게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탄의 기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성령께서 항상 외적 계시에 ‘따라서’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외적 계시를 ‘통해서만’ 증언하시는지, 즉 통상적인 말씀 추론 방식에 동참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시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동일한 진리라 해도 다양한 근거에서 동의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성적 증거에 근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증언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진리는 (자증성을 지니기에) 직접적인 정신적 직관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는 동시에 논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자증성을 지닌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추론 능력을 도와 우리가 달리 인식하지 못했을 관계들을 분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관 능력을 도와 그 자체로는 명백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실제로 늘 추론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황홀할 만큼 강렬하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사랑하시는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이미 습관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적인 빛이 외적 계시를 통해 그들 안에 미리 형성된 관념들을 갑자기 비추고, 이전에 심긴 믿음과 사랑의 원리들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리들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며 활동하는 감각을 부여하고, 그 결과 그들은 흔들림 없이(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자신의 뉘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방식입니다(롬 5:5). 이 모든 과정이 지극히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그 증언이 직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이 직접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 개개인에게 무엇을 행하시는데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정 인물의 사례가 자신의 경우와 같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이런 확신을 주실 때, 직접적인 방식이 그분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증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말합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유명한 구절, 곧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 8:16)라는 말씀은 그 반대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가 암시하듯,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co-witness)'고 명시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즉 양심이 증언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취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제시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편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자신에게서 동일한 특징들을 발견한 뒤, 이를 근거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결론 내리는 방식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 문제에 관해 성령께서 통상적으로 행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둘째, 이 방식은 성령께서 같은 사실을 전적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증언하시는 것보다 결코 못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덜하단 말입니까? 확신하게 되는 내용 자체가 덜 중요한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확증을 받든, 확신하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덜 명백한가요? 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추론적인 방식으로 증명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덜 명백해진다고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추론이 오류와 실수에 더 취약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추론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추론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그분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가장 단호한 명령만큼이나 그분의 추론이 지닌 확실성과 무오성을 신뢰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불합리한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로마서와 다른 성경 본문에서 힘 있고 강하게 논증하신 수고가 오히려 그 결론들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위로를 덜 주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위로는 선언된 사실의 중요성과 명백성에 달려 있는데, 중요성은 동일하고 명백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께서 추론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우리의 영과 명백히 협력하시어 우리가 그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령께서 각 과정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기 위해 비범한 빛을 비추심으로써, 단지 갑작스러운 명령을 던져주시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관찰 가능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는 점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 방식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의 본성에 더없이 적합하며,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장점입니다. 또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의심과 의혹에 덜 취약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같은 내용을 명령하신다고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그친 뒤에는, 그것이 주어지던 순간에는 아무리 위로가 되고 만족스러웠을지라도,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증언이 참되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지만, 그것을 증언한 주체가 과연 성령이었는지 아닌지는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근거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일하셨다면 그 근거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안에서 계속 발견되는 그 근거들에

따라 논증된 결론이 악한 암시자에게서 왔거나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 즉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영들이 그분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일시적인 명령만 주어졌다면, 그 증언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생깁니다.

나아가, '양자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종의 영'으로서 일하시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확신시키고 그에게 정죄 판결을 내리실 때 따르는 과정은 분명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보게 하십니다. 혹은 "믿지 않는 모든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런데 너는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 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위로 사역에서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불신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합당한 공포를 느끼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신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적합한 위로를 느끼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의 난이도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전체 성화 사역에서도 그 과정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영혼에 남기고자 하는 개별적 진리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내면에 새기십니다. 성경에 보편적으로 제시된 이 진리를 사람들은 흔히 외면하고 무시하기 쉬운데, 이는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역의 방식이 이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든, 그 나타내심은 그 자체로 매우 필요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허락하실 때 지극히 기쁜 일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 거룩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은혜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러한 일이 있다는 점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 충분히 명백합니다. 성령의 사역 방식을 논하면서 이미 언급한 구절들은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 말씀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고전 2:9-10).

이 성령은 앞서 언급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들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분명한 시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이는 본문 후반부와 다음 구절에서 논증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소유권과 권리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2). 그러므로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것들은 단지 그 자체로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긴 유산이자 신자 각자의 고유한 몫이며, 신적 사랑의 증거와 결과로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한 이 사역은 단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사역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자연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분별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하신 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그 영을 통해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16-21). 여기에는 우리가 논하는 사랑의 나타내심, 즉 앞서 언급된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한 나타내심에 대한 명백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던 특정 인물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에게 제한 없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은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 사랑의 나타내심이 갖는 특별함에 대해 놀라며 묻자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요 14:23).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은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나타내심과, 지극한 친절과 애정을 보여주는 교제와 동거를 기대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또한 성경이 성령의 인치심, 보증, 첫 열매를 이토록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표현들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곧 그 사랑의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증거와 담보 외에 다른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신적 사랑의 나타내심이 공적이고 외적인 선포(이는 이러저러한 특징을 지닌 이들에게 제한 없이 주어질 뿐입니다)에 덧붙여져야만 했던 것은 상황의 절실한 요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내적 방편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계시만으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성령의

도우심 없는 우리 자신의 추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진리들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앞에서 역설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없이는 단지 이성적 수용만으로 합당하고 적절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특정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진리 또한,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전달되는 성령의 감화로 영혼에 적용되고 강력히 새겨지지 않는 한, 그 계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힘과 무게, 효력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그 진리는 이와 관련하여 영혼을 괴롭히는 의심과 두려움과 고뇌를 극복하고 잠재울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설령 그것들을 잠재운다 하더라도, 영적 생명 없음과 나태함,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는 마음에 대한 무관심을 떨쳐내고 사랑과 감사, 경탄과 찬양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은총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무관심하게 넘기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일에 안일하지 않으며, 영원한 결과를 낳는 문제들을 가벼이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미친 듯한 모험에 내맡길 만큼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도 아니며, 쉽게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들이, 자신들이 참으로 속한 바로 그 성품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슬픔에 잠겨 짓눌리고 낙담한 영으로, 불안을 넘어 고통에 가득 차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켜보는 이들은 그들의 상태가 명백하다고 여기고 모두 좋게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할 말을 잃기도 하지만,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설령 어느 정도 평안을 얻더라도, 이전과 똑같은 끈질긴 의심과 두려움이 되돌아와 같은 씨름을 반복해야 하니, 이는 마치 시시포스가 돌을 굴러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합당한 위로를 전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어떤 위로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평강, 평강'(그 입술의 열매)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롬 15:13)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곤고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사 50:4)을 하려면, 인간의 허보다 더 능숙한 혀가 필요함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을지라도) 관념적으로만 확신하는 탓에 영적 침체와 나태에 빠진 이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확신은 어쩌면 거짓은 아닐지라도 오직 자기 영의 단독 증언에서만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확신에는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어서, 자기 영의 작용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평범한 도움만 동반될 뿐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규칙적으로) 말씀의 원리와 자기 영의 습관적 경향을 살펴, 스스로 선한 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처럼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는 큰 기대나, 그분께 사랑받는다든 사실의 중대함에 걸맞은 생명력과 활력, 하늘에 속한 신령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서 눈에 띄는 영적 성장이나 진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질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질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는 자명합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행 9:31) 세워져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성령의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교통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2. 둘째, 만일 그 나타내심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한없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실은 그 자체로 이유와 증거를 품고 있습니다. (1) 이 나타내심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내용, 곧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 있는 명민한 정신에게 그 생각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본성이 야만성으로 뒤덮이지만 앓았다면, 그 누구라도 해롭지 않고 순수한 사랑의 표현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랑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해도 말입니다. 아니, 심지어 훨씬 열등한 존재, 짐승에게서 온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가난한 이웃, 힘없는 하인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보고 기뻐하며, 심지어 자신의 말이나 개가 보여주는 애정에도 즐거워합니다. 가장 위대한 군주라 할지라도 신하 중 가장 비천한 농부의 애정을 기쁘게 지켜봅니다. 하물며 그 군주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든든한 표시라도 발견한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군주가 은혜로운 친밀함과 몸을 낮추는 사귄으로 그 호의를 표현해 준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주의 총애를 확신하는 사람은 얼마나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축복하겠습니까! 그의 영은 의기양양해지고, 그의 상상력은 즐거운 생각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못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께서 나를 향해 친절을 품고 선한 뜻을 지니셨다”는 이 사실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주는 감흥은, 그 자체의 의미로나 그것이 부리내리고 있는 원인으로 보나, 참으로 감미롭습니다. 진정으로 고결한 정신은 사랑 그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가 나를 생각해 준다면, 내가 그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가 나를 친구로 여겨 준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사랑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보존하고 키우며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친구에게서 사랑의 표현이나 증표를 받을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선물 자체의 가치 때문이라기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 곧 친구의 사랑과 다정한 기억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을 받는 것 못지않게 주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사랑에 일종의 배출구를 마련하여 만족을 얻고, 나아가 상대방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을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서 어떤 이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에는 우리 본성에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좋은 평가를 받거나 친절을 받으면, 특히 지혜와 판단력으로 명망 있는 이에게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까! 그분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사도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2 Cor. 5:9, KJV]라고 힘주어 말할 때, 이 점을 강력히 강조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힘쓰노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노력한다는 뜻을 넘어, 명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야망을 품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몸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그분께 받아들여진다는 이 명예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눈에 은혜를 입으며, 그분의 생각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 친절하고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단지 영예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이하고 경이롭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즐거운 일입니다. 본래부터 즐거운 일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놀라움을 안겨줄 때 그 즐거움이 배가됩니다. 물론 불길한 놀라움도 있으며, 예상치 못했기에 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즐거운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일 때, 즉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일 때 그 기쁨은 극대화됩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영광의 주께서 나 같은 벌레에게 사랑을 베푸실 줄을? 이 놀라움은 한층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에 비추는 바로 그 빛이, 동시에 영혼 자신의 추함과 사랑받을 가치 없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압도하는지요! “부정하고 비참한 나! 혐오스러운 악인! 타락한 배교자! 반역자의 무리와 한패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반역한 영들인 마귀와 결탁했던 내가, 이제는 무슨 영문인지 그분께 용납되고 은총을 입는 상태에 들어섰구나!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선포되다니! 어찌하여 나를 향해서란 말인가? 내 자신은 이토록 비천한데!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본성 자체에 끔찍한 지옥의 사악함을 품은 자를 향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어찌하여 본성적으로

나보다 더 비천하지 않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란 말인가?” 어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 놀라워라! 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는 실로 지식을 초월하는구나!”라고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놀라움이 크면 클수록 즐거움 또한 커집니다.

이제 영혼의 눈에는 이 사랑의 결과들이 그 원인의 위대함만큼이나 위대하게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빛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한다면, 결과에서부터 시작하여 원인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원인 안에서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시고, 그 결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 눈에 그 결과들을 드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감격에 휩싸인 영혼은 다시금 감탄하며 외칩니다. “이제 나는 그분이 왜 아들을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어,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분의 고난과 사역에 얼마나 찬란한 광채를 더하는지요! 왜 내게 복음을 보내셨는지, 왜 그토록 설득력 있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내 귓가에 자주 들렸는지(예전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는 많은 것을 봅니다), 왜 성령으로 그토록 끈질기게 나와 씨름하셨는지, 왜 내 마음을 정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왜 나를 낮추고 녹이고 깨뜨리셨는지, 왜 그토록 강하게 나를 이끄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끈으로 당신께 단단히 묶으셨는지, 왜 그 온화하고도 효력 있는 빛으로 내 정신을 비추시고 내 온 영혼을 변화시켜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새기시고 당신의 소유로 인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영광스럽고 전능한 원인을 바라볼 때 참으로 위대한 일이 됩니다!”

또한 바로 이 사랑이라는 원인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위대한 결과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지속적인 임재와 인도, 그들이 하나님과 나누기를 기대하는 끊임없는 교통, 그들이 바라는 인도와 지지,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위대한 일로 나타납니다. 이제 천국은 더 이상 공허한 이름으로 들리지 않으며, 희미하고 생기 없는 그림자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천국이 사랑의 하나님과 교통하며 누리는 안식과 복된 상태이며, 그분의 사랑이 낳는 최종적인 결과이자 표현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실제적인 무언가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들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나타나고 인식된 사랑은 의심스러운 생각이나 불안한 예감이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속이거나 상상의 천국을 보여주며 조롱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를 실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지는 않을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낳을 확실한 결과들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제 신적인 빛으로 조명된 복음의 계시 안에 나타난 그 놀라운 계획과 설계들이, 만물을 낳는 이 위대한 원인의 태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제시된 실체를 바라볼 때, 그 발견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나타남의 본성과 방식 자체에서 비롯되는 매우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나타남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인간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스스로 왜소하게 만들고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사소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슬픈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고 누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은 방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제대로 이해되도록 나타내시며, 최상의 모습으로 돋보이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크게 사랑을 받은 자여!”라는 복된 인사를 건네실 때, 그에 합당한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타남은 특히 몇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과도 비교할 수 없이 밝고 환합니다. 또한 가장 직접적입니다. 즉, 오래전에 주어진 어떤 외부적 증언에만 의존하여 우리가 각자의 판단력에 따라 그 의미를 취사선택하거나 오해하도록 방지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증언을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도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영혼을 담아 죽어 있고 생명 없는 문자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그것을 친히 적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직접 닿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태양이 우리 주위와 우리 위에 비추는 빛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탐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충분히 강한 다른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들어 올려 인도해 줄 때, 그저 그 손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력 있고 압도적입니다. 이 나타남은 스스로 길을 열고, 구름을 흩으며,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떤 논쟁도 허용하지 않고, 의심과 불안한 생각을 사라지게 합니다. 번개처럼 빠르고 갑작스러운 에너지로 생각을 꿰뚫어 심장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랑을 부어 주고,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를 퍼뜨립니다. 또한 영적 감각을 일깨워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그 사랑의 감미로움을 음미하게 합니다. 영혼의 모든 능력을 그에 걸맞게 움직이게 하고, 상응하는 애착을 불러일으켜, 영혼이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면에서 볼 때, 이 사랑의 나타남은 매우 즐거운 경험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마음속 갈망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제가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저를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알 수 있다면!” (앞서 말했듯) 이 즐거움은 적어도 이러한 갈망에는 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상이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달걀흰자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온전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더 생기 있고 풍성하게 걷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시는 방식은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그분은 언약에 따라 이것을 주거나 거두실 자유, 또한 자신의 주권과 무한한 지혜로 기쁘신 뜻에 따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주실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3) 그러므로 이것은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처럼 절대적이고 단호한 기대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맡기는 순종과 경외의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그것이 없을 때 조급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4) 이 사랑의 나타남은 마음을 바로잡는 소통,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소통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후자(마음을 바로잡는 소통)를 구하는 마음은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더 온전히 비롯됩니다. 전자(사랑의 나타남)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데, 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더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앞서 말했듯, 전자는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할 뿐이지만, 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자의 가장 큰 실질적 가치는 후자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가 다른 것에 기여하는 데 있다면, 그 자체의 가치는 후자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5)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그분의 사랑을 이처럼 더 명백히 증언받는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는 마치 친구가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라고 자주 반복해야만 그와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6) 종교 생활의 전부를 여기에 두는 것은 훨씬 더 큰 오해입니다. 이것을 구하거나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일의 전부로 삼아서도 안 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7) 무엇보다 가장 큰 잘못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며, 선택하시고 용서하셨으며, 틀림없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처럼 가장 위험하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겸손, 마음의 새로워짐, 구속주와의 언약적 관계 맺음이 있기도 전에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심지어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실상은 악마가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악마의 도움이 끝나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방종에 빠져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을 누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거짓이므로, 이러한 믿음은 필시 거짓의 아버지가 만들어내고 부추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자신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은 그분의 말씀과 언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태가 안전하다고 암시하는 그 어떤 말도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8) 대부분의 경우, 이전의 소통을 통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만약 자신을 몹시 괴롭히는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활기차게 동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이 사랑을 여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그들 자신의 탓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에는 거의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이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거나, 부당하게 구했거나, 시기상조로 기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것에 너무 적은 가치를 부여하여 기대하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육적인 생각, 세속적인 마음, 영적인 허영심에 빠져 스스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주의하고 방종한 삶의 태도나 거룩한 감동을 거역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을 위로하시려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더 즐거운 소통이 억제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그 임의적인 은혜의 부여와 보류에 대해 어떤 이유도 설명할 의무가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주권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가족에게 합당한, 아버지로서 행사하시는 가정적 정의가 있음을 알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머리이자 아버지로서 그 안에서 정의를 행사하십니다. 비록 항상 동일하게 행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무한한 지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죄를 지은 자녀들의 나태함을 일깨우고, 어리석음을 꾸짖으며, 허영심을 억제하고, 방자함을 징계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 걸음 물러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증표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혹시 더 나쁜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추측 속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의 회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교훈, 나아가 자신을 위한 변호까지도 의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다루시는 일은 본질적으로 은밀하여 다른 사람이 즉시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영혼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쇠약해져 마치 제 불길에 타들어 가는 듯한 사람들(이런 유형에서는 때때로 매우 경고적이고 교훈적인 사례가 나타납니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감화를 받지 못하여 이제 막 숨이 끊어지려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 곧 자기 죄악 속에서 스러져가며 죽음과 육육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는 언제나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는 사역은 보류한 채 위로만 이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런 이들이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매우 뚜렷한 징표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영이 쇠약해지는 원인이 되는 악과 병폐는 그들의 죄인 동시에 형벌입니다. 그들을 바로잡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악함이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배교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으므로 경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부주의하고, 해이하며, 게으르고, 방종한 신자들과의 친밀함은 거절하시는 반면,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 힘쓰고 애쓰며, 더 확연히 진지하고 겸손하며 부지런히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친밀함을 허락하심으로써 차이를 두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이런 종류의 체험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특히 이전에 악명 높은 배교나 추문이 없었는데도 공포를 동반하는 영적 버려짐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과오들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안전하고 겸허한 태도이며,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전처럼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랑이 손상되었음을 의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9)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평안히 섬기는 데 필요한 만큼의 사랑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잦은 황홀경과 환희에 빠질 정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어떤 특별한 형벌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히 복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을 어떤 면에서 형벌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황홀한 감각의 유무가 더 성숙하고 강건하며 탁월한 그리스도인과 더 연약하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특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황홀경적 정동(affections)은 상당한 감각적 쾌락을 동반하고(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룰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가장 선하고 탁월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자주 나타난다면(이는 그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그 주체에게 어떤 약점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쪽으로 더 기우는 성향의 사람은 그리 견고하고 안정된 기질이 아니라 더 번덕스럽고 경박한 기질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감동의 주된 원인이자 작가가 비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자신이 그 감동의 최상위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런 반증도 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은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체질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들이 기질에 고유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표현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교감 가운데 그 사역과 직분은 사람의 도덕적 기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빛의 것이지, 엄밀하고 순수하게 자연적인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주체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받든지 자신의 기질에 따라 받게 되며, 그 위에 더해진 새로운 요소 역시 기존 기질의 영향을 받아 고유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정도의 감화라 할지라도 어떤 기질은 다른 기질만큼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마치 같은 양의 불이라도 단단한 장작보다는 마른 짚에 더 빨리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심지어 그분의 사랑의 발견)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덜 감각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에게 성령이 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은 판단력과 사물에 대한 차분하고 냉철한 숙고에 더 잘 부합하는 기질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동(affections)이 강렬하고 뜨거운 움직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무분별함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더 깊은 숙고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숙고를 통해 더 깊은 것들이 가라앉고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부까지 파고들수록, 그 표면은 덜 움직이는 법입니다. 이교 철학자의 말, "현자는 아무것에도 경탄하지 않는다"가 이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는 가능한 한 최고의 경이감을 정당화하고도 남을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사려 깊은 사람의 경탄은 (다른 정동들과

마찬가지로) 더 내면적이고, 고요하며, 침착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탄이 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고 합리적입니다. 그에 따르는 기쁨은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분의 뜻에 헌신하는 상태에 걸맞은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정은 더 강렬하고 영속적인 반면, 다른 이들의 열정은 더 번쩍거리지만 번덕스럽습니다. 이는 마치 불꽃은 아마 섬유가 쇠보다 더 환하게 타오르지만, 연기는 더 많이 내고, 쇠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열을 오래 간직하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10) 이제 이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황홀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똑같은 천사 같은 어조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겸손하고 적절한 기회에 자신이 겪는 바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물며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런 체험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더 약한 부류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은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 미쳤어도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3-14)라는 말씀처럼,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한 사람 안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하물며 여러 사람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자신의 잣대로 삼으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사귄다보다는 교만과 자만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탄을 더 많이 드러낼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즐거움의 대상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신적 교통하심을 즐거움의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길게 논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그것이 왜 대상에 속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지만—원한다면 그것을 주체를 준비시키거나 마음의 상태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 교통하심은 영혼에 스스로 길을 내어 효과적으로 주체를 준비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교통하심의 필연성이 인정된다면, 이 논의 전체가 지향하는 핵심 목적은 똑같이 달성됩니다. 설령 이 교통하심을 오직 그런 관점에서만 고찰했다 하더라도, 이 논의의 틀과 방식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과 의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이제 그 대상 안에서 누릴 즐거움 자체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부 학자들처럼 즐거움(delight)과 기쁨(joy)을 굳이 세세하게 구별하지는 않겠습니다. 흔히 제시되는 구별, 즉 전자는 동물적 정동만을 의미하고 후자는 이성적 본성에 고유한 것이라는 구별법은 여기서 통용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이 단어들 자체에 그런 고유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며, 성경에서는 실제로 지적 만족이든 감각적 만족이든, 이성적 존재든 비이성적 존재든 가리지 않고 혼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용어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여기며, 여기서 즐거움은 기쁨과 전적으로 하나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복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을 때(이 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높은 수준의 기쁨이라도 '즐거움'이라는 이름 아래 충분히 포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루기 위해, 먼저 즐거움의 일반적인 본성에 관해, 특히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인간 안에서 발견되는 즐거움을 중심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즐거움은 사랑의 가장 깊은 본질에 속합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의 선함이나 적합성을 깨닫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이 즐거움이라는 만족감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즉, 사랑의 본성에 속하는 다른 모든 요소는 이 세상의 현 상태가 지닌 혼합과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만일 현 상태가 보편적으로 완전하게 선하고, 가장 이성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라면, 사랑은 오직 즐거움으로만 표현될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는 갈망이 마땅히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논의 목적상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랑의 다른 행위들과 더불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이거나 위격(persons)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물은 무엇이든 위격, 즉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그 위격들을 최상으로 사랑하거나 부차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최상으로 사랑하는 대상은 분명 하나님 아니면 우리 자신이며, 우리는 다른 모든 위격이나 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어디에 두든, 우리는 사랑의 대상과 관련된 것들이 아직 우리가 바라는 상태에 있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될 상태도 아님을 발견합니다. 현 상태는 그저 준비 단계이며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 결핍되어 있고, 모든 피조물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임에도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여러 면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종류 안에서 가능한 모든 부수적 속성들을 갖추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 위에 있는 영화롭게 된 영들의 상태조차 아직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에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속한 몸이자 공동체인 “총회”는 아직 온전하거나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동의 통치자이신 주님은 장차 받으셔야 할 만큼 인정받고 존귀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그들의 완성된 복됨은—이러한 일들에 크게 좌우되므로—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열릴 장엄한 희년과 함께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더라도, 만물의 작가이시며 기원이신 복되신 하나님 자신은 그분의 존재와 복됨의 실질적 완전성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타락하고 배도한 피조물들 때문에 자신의 많은 권리를 유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든, 이성적이고 (나아가 거룩한) 갈망을 품을 이유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올바르게 적절하게 둔다 해도, 그 사랑이 갈망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할 지극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 상태를 볼 때, 우리 앞에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망이란 불완전한 사물의 상태에 어울리는 사랑이며, 그 상태 안에서는 사랑 자체도 아직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갈망은 불완전한 사랑이거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순수하고 단순한 즐거움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아무런 결핍이 없는 상태에 어울리는 사랑입니다. 이런 까닭에 즐거움은 사랑의 완성이자, 갈망이 충족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세적 상태는 혼합되어 있고, 단순히 악하거나 현재적 선이 전무한 상태가 아니므로, 이 상태에 어울리는 사랑 또한 필연적으로 두 가지, 즉 갈망과 즐거움이 혼합된 형태여야 합니다. (우리의 논의는 본문에서 이 두 정동(affectio)만이 언급되었기에 이 둘로 확장되면서 동시에 한정됩니다.) 사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와 다르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한,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갈망으로 표현됩니다. 반면, 사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즐거움으로 표현됩니다. 그때 우리의 갈망은 그만큼 충족되고, 충족된 갈망은 멈춥니다. 그러나 사랑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해, 갈망이 멈추는 것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충족됨으로써, 즉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즐거움 안에서 완성됨으로써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 중 하나(갈망)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며 도달하려 애쓰는 선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즐거움)는 현존하는 선 안에서 스스로 안식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망은 추격을 위한 사랑의 날개와 같고, 즐거움은 포옹을 위한 사랑의 팔과 같습니다. 혹은 갈망은 움직이는 사랑이요, 즐거움은 쉬는 사랑입니다. 육체의 움직임과 쉼의 관계에서처럼, 움직임은 쉼을 지향하며 쉼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물은 움직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앞으로만 나아가는 운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신이나 영의 움직임과 쉼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정신은 어떤 대상에 이르러 그 안에서 안식하려는 의도와 기대를 품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과 질서에 따라, 정신은 결국 안식하게 될 선을 향해 나아가며, 결코 안식에 이르지 못할 선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갈망과 즐거움은 끊임없이 교차하며 순환적으로 서로를 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 안에서 누리시는 즐거움, 곧 기쁨을 사랑의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스바냐 3:17).

따라서 즐거움은 갈망하는 기능이 원하는 대상 안에서 누리는 ‘평온’ 또는 ‘안식’이라고 적절하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에는 늘 어느 정도의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을 처음 볼 때 (그것을 사랑하는 한) 얼마간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실로, 대상을 향한 갈망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대상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갈망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사랑이 작용하는 한, 우리가 사랑하는 주체(우리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를 위해 그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갈망하는 사랑 안에 어느 정도의 기쁨과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갈망하는 동안에도 영혼은 갈망의 불확정성으로부터는 벗어나 쉬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이 어떤 대상(자신이나 타인)에게 사랑을 두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대상 위에 머물며 안식합니다. 영혼은 먼저 그 대상이 잘되기를 일반적으로 갈망합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이에게 유익하리라 여겨지는 어떤 것을 발견하면, 비록 그것을 향한 갈망이 멈추지는 않더라도 이전에 정처 없이 헤매던 갈망은 그칩니다. 이제는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이에게 선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한 가지에 정착하기 때문입니다. 욕구는 이 한 가지에 머물며 고집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한 가지 일을 바랐으니”(시 27:4)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가정적(假定的) 안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것입니다. 또는 희망 안에서 얻는 예기된, 미리 파악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희망 안의 안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갈망에는 반드시 희망이 동반됩니다. 절망은 갈망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무(無)로 간주되며, 선행은 존재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신을 위하든 타인을 위하든) 적합하고 가능해 보이는 선이 있다면, 사랑이 그와

관련하여 움직일 때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즉, 그것은 처음 보거나 인식하는 순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욕구는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중심을 두며 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망으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희망이 커질수록 우리의 기쁨도 커지며, 그것이 처음의 모습에 부응하는 것을 발견하고 점차 실제로 성취됨에 따라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마침내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어 그 대상에 관한 우리의 갈망이 끝날 때, 갈망은 그 대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만족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선을 실제로 누릴 때 갈망에 뒤따르는 즐거움과 안식은, 갈망에 앞서거나 동반되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순수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향유(fruition) 또는 누림 그 자체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향유’라는 용어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최종 목적에서 얻는 기쁨을 지칭하는 데 더 자주 사용되었을 뿐, 본래 다른 여러 단어와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즐거움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즐거움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갈망에 대해서도 곁들여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야기는 앞으로의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본문이 다루는 특별한 즐거움, 곧 하나님께 두어야 할 즐거움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고찰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부름을 받았다고 여겨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논의에서는 인간의 즐거움, 곧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즐거움만을 다루었으므로, 이제는 이를 순전히 자연적인 즐거움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할 때 ‘자연적’이라는 말은 현재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연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에게 자연스러웠던 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래 거룩함을 포함했기에, 거룩함이 더해지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순전히 자연적인 즐거움을 완성하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구별이 필수적입니다.

이 둘 중 후자인 거룩한 즐거움만이 앞으로 이어질 논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즐거움만이 그것이 귀결되어야 할 복되신 대상에게 합당하며, 그분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두고자 할 때, 그 즐거움이 먼저 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유래하고 불순하고 비천한 것들과의 교제를 통해 더욱 깊어진 오염과 불결한 흔적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은 오직 그렇게 정화된 즐거움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오히려 의도한다면, 그에 필요한 것 역시 의도된 셈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개별 행위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행위조차 오히려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거룩한 원리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않은 사랑이 거룩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이 되면서 동시에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그 일반적인 본성상 다른 것이 될 수는 없지만(또한 그럴 필요도 없지만), 거룩함이 더해짐으로써 반드시 크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영혼 전체, 곧 영혼의 모든 기능과 능력에 미치며, 그 안에서 즐거움에까지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거룩하지 않은 마음의 일이 아닙니다. 앞서 논의한 바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오히려 기질, 즉 그분에게서 받아 그분을 닮고 그분을 향해 움직이며 나아가는 신적인 본성이며, 그 자체로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룩함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룩한 즐거움은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대상에 관한 논의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즐거움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그 소통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어느 정도 알게 하는 빛의 소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영혼을 그분의 뜻에 따라 빛의 작용하는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즐거움은 부분적으로 정신적이거나 개념적이며,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인상을 낳는 실재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적, 개념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관념에만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에 그에 상응하는 인상을 남길 힘이 있으며, 하나님에 관한 공허한 사변에만 빠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즐거움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역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더 개방적이고 명시적인 즐거움으로, 이 경우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가 무엇을 향하는지를 성찰하고 인지합니다. 다른 하나는 더 잠재적이고 암묵적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즐거움으로, 이때 즐거움은 다른 주된 목적을 가진 행위나 기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방식으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더 직접적으로 즐거워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 목적에 맞추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영혼은 오히려 부수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때 현재의 행위(그리고 그 행위로 이끄는 기질)는

다른 더 직접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며, 즐거움은 그 행위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곁들여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회개, 신뢰, 자기 부인 같은 행위는 즐거움과는 다른 목적을 갖지만, 즐거움이 그 안에 스며듭니다.

전자는 ‘관조적 즐거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묵상 속에서 스스로 위안을 얻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촉발되고 고양됩니다. 후자는 ‘감각적 즐거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여기서 감각은 새 피조물에 속한 것으로서 빌립보서 1:9 과 히브리서 5:14 에서 사용된 영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혼은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맛보게 됩니다. 물론 관조적 즐거움에도 감각적 요소가 있지만, 이 구분은 즐거움이라는 결과물 자체보다는 즐거움이 생겨나고 시작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나눈 것이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자의 경우, 영혼은 자신이 직접 의도하는 현재의 활동을 더 명확하게 성찰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영혼은 자신이 누리는 실제적 즐거움을 명확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의 좋은 맛을 즐기면서도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거나 그 안에서 얻는 즐거움을 뚜렷이 성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먹는 행위에는 힘을 보충한다는 다른 주된 목적이 있고, 즐거움은 단지 부수적으로 따라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덜 지속적이어서 현재의 행위가 멈추면 눈의 즐거움처럼 더 빨리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자는 맛의 즐거움처럼 더 영속적이고 습관적입니다. 이는 마치 건강이 확고한 상태나 재산, 명예, 쾌적한 거처처럼 어떤 사람의 정착된 조건에 속한 것들을 계속 소유함에서 오는 즐거움과 같습니다. 그는 비록 날마다 혹은 시간마다 그것들에 대해 뚜렷하게 정형화된 생각을 하지는 않고,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세운 이 큰 바빌론이 아니냐?” 하는 식의 관조적 환희에 자주 빠지지는 않더라도, 그 즐거움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정신을 형성하고 그의 조건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거룩한 즐거움, 곧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즐거움의 일반적 본성에 더하여, 마음을 궁극적인 대상이자 목적으로서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강력하고 꾸준히 이끄는 원리로서의 거룩한 본성이 더해져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영혼은 그분께 더 직접적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후자의 방식에서는 (즐거움이 갖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치며 더 간접적으로 최종 목적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본문의 의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둘을 각각 나누어 매우 간략하게나마 고찰하되, 후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어떤 면에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탁월하지만, 다른 피조물에서 자연의 진보가 더 불완전한 것에서 더 완전하고 탁월한 것으로 상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듯, 새 피조물 안에 전달된 신적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적 본성은 처음에 더 불완전한 작용들, 말하자면 생명나무의 싹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그 후에야 더 화려한 꽃을 피우며 마침내 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더 본론에 가깝게 말하자면, 우리가 앞서 언급한 순서에 따라 후자 유형의 즐거움은 영적 감각의 활동을 더 많이 포함하고, 전자는 영적 이성의 활동을 더 많이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본성을 지닌 인간이 먼저 감각을 사용하고 더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나중에야 추론 행위에 이르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적 생명이 자리 잡은 영혼은 먼저 영적 감각 활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즐거움의 문제에 있어 참되고 영적으로 즐거운 것들이 주는 감미로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높은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목적을 위해 설정된, 더 정형화되고 의도된 거룩한 즐거움의 행위들은 제때가 되어야 뒤따릅니다. 다시 말해, 먼저 나타나는 감각적 즐거움은 나중의 관조적 즐거움을 위한 준비이자 시도입니다. 그것은 새 피조물이 점진적으로, 아직은 불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며, 다른 즐거움의 ‘배아’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 불완전한 종류의 즐거움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영혼을 처음 빚으실 때 주시는 거룩하고 생명을 주는 소통 속에서 영혼이 느끼고 맛보는 달콤함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아기나 유년기에 있을 때, 그 소통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행하게 되는 여러 활동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의 어리고 미성숙한 시절에만 속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즐거움을 그 시기에만 국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 이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도 감각 사용을 멈추지 않고,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 감각을 계속 사용합니다. 다만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삶이 거의 전적으로 감각에 의존하지만, 이성의 싹이 일찍부터 돋아나 감각과 뒤섞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시기를 특징짓는 이름은, 당시를 지배하며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원리에 따라 붙여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합니다. 물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그 감각이 더 예민하고 확고하며 강렬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 체험이 언제나 영적 이성과 판단의 활동을 온전히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우, 나중에 성숙해졌을 때나 다른 이들에 비해 영적 이성과 판단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더 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부르심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요구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감화와 소통에 열어 두고, 그것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그 감화를 발전시키고 그에 협력하며, 그것이 이끄는 대로 우리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신앙의 실천들로 자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그 소통과 활동이 주는 감미로움과 즐거움을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것을 맛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 영을 은혜로이 다루시는 것을 발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부수며 녹이시고, 당신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며, 구속주이신 당신의 아들과 연합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당신의 언약과 은혜의 율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주고 복종하게 하십니다. 나아가 그 후에는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어 거룩한 행실과 교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곧,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을 부인하고, 이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경건, 절제, 의, 자선, 긍휼 등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때 “여호와를 기뻐하라”와 같은 하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언급했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명령이 지닌 의미의 전부는 아니지만(이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점을 의미하고 말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의 유일하고 참된 즐거움은 신앙의 길에서만 발견된다. 이 세상이나 과거의 죄된 길에서는 기대할 것이 아니다. 오직 경건을 연단하고, 복음이 권하는 거룩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에 순응하며, 그럼으로써 의에 주리고 목마른 모든 영혼에게 기꺼이 흘러드는 생명과 은혜의 감화를 받아들이는 데서만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이로써 너는 모든 일에서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어질 것이다. 이 안에서 너는 네 영혼을 채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여, 악인들이 죄의 길에서 누리는 육감적인 즐거움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네가 발견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네 감각을 훈련하며, 다음과 같은 일들에 죄가 주는 덧없는 쾌락이 과거에 주었거나 장차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럽고 순수한 기쁨의 맛이 있는지 스스로 따져보라. 곧, 육체와 그 정동(affections)과 욕망을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다른 세상의 일을 마음에 두는 것,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는 등 거룩한 삶의 여러 실천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것, 네 자리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 네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의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이다.”

이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감화의 도움으로(그럴 때 하나님은 감화를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즐거움의 실체가 있는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 자체를 성찰하고, 그 즐거움을 분별하여 실제로 맛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다면, 그 말씀은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며, 그 본래의 의미로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 실존에 비추어볼 때 전혀 부적절한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신앙 전체와 그로부터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모든 행위를 ‘즐거움’이라는 하나의 항목 아래 포섭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한 모든 것, 즉 회개, 믿음, 자기 부인, 겸손, 온유, 인내 등을 전부 삼켜 버려 그것들과 동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는 하나의 특정한 거룩한 행위나 정동의 이름 아래 포함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아우르는 듯합니다. 특히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행위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이라 부르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덕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과 동일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행위에 즐거움이 수반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호화로운 연회에 아주 다양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차려져 있을 때, 그것들이 모두 맛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음식과 술이 결국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연회 주인이 손님들에게 친구인 자신과 함께 즐기라고 청하면서(본문의 ‘여호와를 기뻐하라’[delight thyself in the Lord]는 ‘그와 함께 기뻐하라’[delight thyself with him]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련한 이런저런 음식을 맛보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합시다. 그때 주인의 말에 ‘그렇다면 주인께서는 이 모든 음식의 종류나 맛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라고 쏘아붙인다면, 이는 무례할 뿐 아니라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응수일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저마다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실재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돌아본 사람이 있다면 그 경험에 물어보십시오. 또한 자기 영혼을 어리석게 만들거나 지성을 흐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의 개념 자체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겨 본 뒤에 그것들이 과연 즐거움을 주지 않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 능력을 실천하는 가운데 실제로 기쁨과 감미로움을 느낄 때,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내가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곤경에 처한 이를 돕고, 부당한 일을 당한 이의 권리를 바로잡는 등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이 자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본 원리로부터 이 일들을 행하고, 그 행위와 마음의 기질에 감지할 수 있는 즐거움이 뒤따른다면, 비록 하나님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형식적인 의미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이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즐거움의 실질적 대상이자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감화가 있기에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즐거움을 주는 다른 일들을 행할 능력을 얻습니다. 이는 마치 정체를 숨긴 아주 가까운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변장하여 자신을 감추거나 우리가 잠시 잊거나 부주의하여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의 유쾌한 말을 듣고 그 말과 그 사람에게 깊이 매료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알지 못했으나 실은 내내 그 친구 안에서 즐거워한 셈입니다.

셋째, 이처럼 신적인 즐거움이 신앙의 모든 영역과 그 영향이 미치는 모든 일에 두루 퍼져나가는 것에서 무슨 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더 나쁜 일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즐거움을 누리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생각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우리 자신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이라는 이름 아래 신앙의 여러 다른 행위와 실천이 포함되는 것이 과연 부조리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신앙의 다른 부분들(결코 더 중요하지 않은)이 전체를 대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부름”,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은 표현들이 신앙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사랑’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실천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공인된 요약이며, 우리의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더 나아가, 비록 욕에게는 부당하게 적용되었지만, “욕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으니”(욥 34:9)라는 신랄한 구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신앙을 갖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즐거움을 내포하거나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물든다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신앙을 적절히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처럼 포괄적인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신앙의 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될 때, 그 명칭의 기원이 된 바로 그 부분을 제외하거나 그것을 핵심 의미로 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보다 명시적인 즐거움’에 관해 논하고, 그 본질과 양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본질: 일반적인 즐거움에 관한 앞선 논의에 거룩함을 더하여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영께서 행하시는 일로서, 어떤 행위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확고히 방향 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명시적인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좋고 가장 탁월한 선으로 여기는 의지의 만족을 통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온히 머무는 것, 곧 안식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이라는 점은 이 즐거움의 일반적 본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지가 만족함으로 얻는 안식이라는 점은 이 즐거움을 더욱 특징적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지성이라는 다른 기능에 관해서는) 만족하며 안식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하는 이 즐거움은 그에 필요한 만큼의 지식 또한 전제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선을 영혼이 추구할 때, 그 선을 실제로 즐거워하는 만큼 그것을 성취한 것이 됩니다. 이때 지성의 활동은 의지의 활동에 종속되며 그것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의지의 만족을 통한 안식은 영혼 전체의 안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지식을 통한 안식은 단지 부분적인 안식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선을 ‘가장 좋고 가장 탁월한 선’이라고 덧붙일 때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는 영혼이 안식하는 그 선이 궁극적이며 최종 목적으로서 모든 추구의 종착점임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지금 추구하는 선의 종류와 본질에 관한 한 더 이상 나아갈 필요도 없고 나아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갈망에 여지가 없어지고 완전한 만족 속에서 그 갈망이 온전히 그치고 끝날 때까지, 영혼은 동일한 종류의 선을 더욱더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안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다음을 전제합니다. (1)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혼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충분히 갖추어,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상이 자신의 공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이나 하나님 대신 세운 허상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바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버리거나 부지런히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왜곡됩니다. 어떤 이들은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불순한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로 오해하여, 순수하고 영적인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만듭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죄책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어둡고 끔찍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그 어떤 즐거움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2)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같이 만족할 것이라”(시 63:5-6). (3) 하나님을 처음 보거나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것: 이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의 핵심이며, 이로부터 다음 단계의 갈망이 일어납니다. (4)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결여되었거나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5) 만족 또는 안식 자체: 영혼은 앞서 말한 두 가지 결여 중 어느 한쪽으로도 자신의 갈망이 채워지는 만큼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즐거움은 이 만족과 안식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비례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비례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 자신을 위해 사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사랑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그분 안에서 마침표를 찍고 그 자체로 선하신 분께 머문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한 선이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돌려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충만하시어 그분께 어떤 실질적인 완전함도 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외적인 영예와 인정 외에는 드릴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영예와 인정이 최대한 보편적으로 그분께 돌려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영광과 찬탄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을 보는 만큼, 우리는 그분 안에서(또는 그분과 관련하여)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는 그 갈망이 채워짐으로써 얻는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는 모든 피조물이 주는 선과 구별되며, 우리에게 허용될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더 가까운 임재와 교제, 그분의 빛과 은혜와 위로가 더 충만히 전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만큼 즐거움을 누립니다. (6) 본문에 사용된 표현 형식은 우리 스스로 분발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복돋우고 고양하고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본문에 쓰인 단어의 활용형(conjugation)은 성경 언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앞서 말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러한 즐거움이 따르는 행위와 실천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이 의무의 실천에 관한 논의는 제 2 부에서 더 상세히 다룰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2.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올바른 양상, 즉 합당한 방식과 정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즐거움은 그 대상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올바를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그 대상에 필적하거나 그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분명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그 대상에 적합해야 하며, 비례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즐거워할 대상인 선의 두 가지 탁월한 속성, 곧 그 탁월성과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즐거움이 어떻게 그 대상에 부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선의 탁월성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높은 선, 즉 최고선인 만큼, 우리의 가장 높은 즐거움을 요구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본성이 지닌 최고의 즐거움은, 우리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연법 자체에 따라서도 복되신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복음 아래에서는 비교적 가장 높은 즐거움, 즉 다른 어떤 것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더 높은 즐거움을 누리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 방식을 저버리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교 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라고 책망한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을 비교한다면 문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거룩한 영혼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시 73:25).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복을 보여 줄 자 누구뇨”라고 할 때, 그들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시 4:6).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 10:37; 눅 14:26 참조). 이 세상에서의 현세적 생명조차 저울에 달면, 그리스도께서 더 무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과 그분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비록 그 둘은 결코 대립할 수 없지만(현세적 생명과 그분 사이에는 종종 대립이 있어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해야 할 때가 있지만), 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며, 덜 가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누리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둘 사이에 기묘하고도 놀라운 얽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가장 좋고 가장 만족스러운 선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실천적으로 그분께 최고의 인정을 드리며, 그분이 가장 탁월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망의 최종 목적지가 되시어, 그 너머로 어떤 합리적 갈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분이신 사실이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모든 것 이상으로 최우선적으로, 진실하고 진정으로 구하고 갈망할 때, 그분이 지극히 영화롭게 되시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가장 높은 갈망은 그만큼 충족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게서 더 온전히 그리고 진실하게 벗어날수록, 우리는 더 확실하게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만족과 안식과 온전한 복을 발견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영혼이 그분께서 온전한 영광을 얻으시기까지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하듯, 같은 이유로 그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그 영혼이 행복하지 않는 것 또한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2) 우리의 즐거움은 그 대상, 즉 우리가 즐거워할 선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대상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선은 가장 영속적이고 영원한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대상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살전 5:16). 신뢰의 문제에 있어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사 26:4)라고 요구받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힘이 영원한 신뢰의 충분한 근거가 되듯이, 즐거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속적이고 영원한 탁월성에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즐거움으로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는 말씀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주 안에서 끊임없이 기뻐해 왔더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아니,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그 대상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장구한 시간 동안 계속될지라도 그것을 보증하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고갈되지 않는 총만,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계속해서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이 대상은 더 내어줄 것이 없어 완전히 메말랐으니, 텅 비고 맛있는 것이 되었다’는 핑계로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이유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의 본성에 걸맞은 우리의 즐거움이란, 우리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즐거워할 때뿐입니다(고전 7:30). 그것들은 마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고전 7:31)고 뒤이어 덧붙인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불안정하기에, 그 안에서 얻는 즐거움 또한 변덕스럽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이 그 대상을 넘어서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쳐 날아가 우리를 진흙탕 속에 버려두는 것, 실체도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일입니까? 이 즐거움의 대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본성은, 우리가 어제 그분 안에서 즐거워했다면 오늘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즐거워했다면 내일과 그 이후 영원토록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다는 이유만으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이

권고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높은 즐거움인 동시에 지속적인 즐거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부르심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그 부르심의 본질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특권에 참여하라는 은혜로운 초대인 방식입니다. 이는 더 이상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불안한 추구와 헛된 기대로 우리 자신을 소진하지 말고, 확실한 안식을 찾을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공허와 자비가 우리를 불러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심이나 의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권위 있는 명령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길 만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도 간주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은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칩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중 누구라도 자신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크나큰 호의이자 은총으로 다가옵니다(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소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자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에, 그들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겸손과 겸양을 가장한 태도는 많은 경우 마음속 비천한 욕욕을 가리는 그늘과 피난처가 되며, 동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그 핑계를 오히려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결코 즐거워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부적합한 자가 적합해지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부적합해질 것이고, 지금처럼 언제나 변명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런 변명으로 행복에서 스스로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자초한 불행의 책임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녕 의무가 아니란 말입니까? 모든 의무의 총합이자 핵심인 그것이 더는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까? 그분 안에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 없이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의무가 이처럼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그와 동일한 정도로 즉시 복을 받게 되니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복을 누릴 의무까지 지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무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걸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으로서 우리 자신의 행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도적질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그분께 드리는 위대한 경배이며, 그분의 주권적 탁월하심과 완전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하심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에서 돌아서서 그분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나오시며,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그분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등지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거부하면서, 그 대신 다른 무언가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우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낫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나아가 그런 것은 선하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그분의 진리를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이듯,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신성 자체까지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이처럼 분명한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이런 명령 앞에서 누가 감히 이를 행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성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즐거움에 이르기 위해 먼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습니다(이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죄 말고는 자신의 죄를 변명할 것이 없는 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배가시킬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명령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숙한 제재가 따르는 명령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덧붙여진 약속(이 또한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위협도 포함됩니다.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얻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불만족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위협입니다. 이는 다른 여러 곳에서도 충분히 명백하게 표현됩니다. 복음의 법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형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대상의 본질에 합당한 것 이상을 요구할 만큼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디. 오히려 그 대상에 비례하는 정도에는 훨씬 못 미치더라도, 이성적인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너그럽게 받아들여도록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의 본성 자체가 이 문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또 다른 규칙은 상당한 경감과 여지를 허용합니다. 즉, 대상이 자신의 고유한 탁월함으로 마땅히 요구하고 주장하는 바와, 주체인 영혼이 그 본성상 감당할 수 있는 바를 함께 고려할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의무임은 물론, 영혼이 그분 안에서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곧 자신이 본성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자연법 자체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법도는 이 요구에 관용과 경감을 베푸는데, 이는 요구되는 내용이 아니라 요구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요구되는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고 지고하게 즐거워하는 것은 여전히 의무이며,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복음은 사물의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연법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을 면제하지도 않고, 본성상 과오에 해당하는 결점을 무죄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즐거움이 여전히 하나님께 마땅히 드러져야 할 바로 요구됩니다. 다만 그 완전함이 이전과 같은 방식과 조건, 즉 구제책 없는 형벌을 내세워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자연법은 구제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나 어떠한 길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복음은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마땅히 받아야 했던 형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빚진 순종의 의무를 그 어떤 부분이나 등급에서도 폐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나 등급의 불순종에 대해서든 본래 마땅한 형벌을 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복음은 (스스로 밝히는 매우 귀중한 대가에 근거하여) 우리의 빛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게 하며, 복음의 조건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그 빛이 사해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고 빛 자체가 본래 없던 것이 되지는 않으니, 만약 그렇다면 사해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우리 의무의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결점들에 대한 용서를 마련할 때, 의무의 실제 자체를 면제하거나, 우리가 빚진 순종의 다른 부분들과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진실하지 않은 자의 결점을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은혜로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처럼 거리를 두며 하나님을 향한 혐오와 적의, 반감을 품는 자들을 복음은 더욱 준엄하게 (그리고 가장 정의롭게) 위협하고 벌합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창조주를 미워했고 이제는 아무 변명 없이 그분께 이방인이요 원수로 남아 있기에, 화해의 제물이 흘린 피가 도리어 그들을 고발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즐거움과 사랑의 온전한 대상이시므로, 그분 안에 즐거움을 두지 않는 자들에게 정해진 형벌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마라나타)”(고전 16:22)라는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엡 6:24)라는 말씀은, “진실하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형벌이 임한다는 점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갖는 진실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을 최상으로, 다른 모든 것 위에 두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즉, 의지의 가장 깊고 높은 차원의 만족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정이, 감각적 대상에 반응할 때처럼 신체적 감각의 격동을 늘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신체적 반응은 즐거움의 본질이 아니라 몸과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부수적 속성이며, 사람의 체질에 따라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분을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선으로 여기는 실천적 평가와 그분을 향한 성향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과 경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분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그분을 즐거워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향한 우리 영혼의 항구적이고 습관적인 기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장 탁월할 뿐 아니라 가장 영속적인 즐거움의 대상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시 48:14)라는 결심을 우리 안에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마땅한 수준만큼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기질에 부합하는 마음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진실성을 이처럼 설명하는 이유는, 그 진실성의 가장 낮은 수준에 안주하라고 권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오해하여 진실성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만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즐거움의 최고 경지를 향해 나아갈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본성이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앎으로써, 우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점진적인 결함과 중단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깊이 겸허해져야 하며, 마치 무관한 듯 무죄한 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물들 때문에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며, 그러한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속주의 피에 빛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즐거워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용서를 얻어 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피는 우리가 진실하게 즐거워하되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만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 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 주권자이신 선과 분깃, 통치자와 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더욱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유를 주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엄중한 결정으로 뒷받침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본문의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 제 2 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실천에 관하여

우리는 제 1 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첫눈에 드러나는 문자적 함의를 넘어 확장하여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단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단일한 즐거움의 행위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모든 거룩하고 신앙적인 교제의 총체로 파악했습니다. 즉, 그 교제가 즐거움을 본질로 삼거나, 즐거움으로 양념이 되고(뒤섞이고 뿌려지듯) 풍미가 더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종교의 영향을 받는 한 우리의 다른 모든 교제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본 독자라면, 이 말씀을 것처럼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문자 자체도 그러한 폭넓은 해석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절이 나오는 다른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읽는 전치사는 ‘~안에서’라는 뜻만 지닌 것이 아닙니다. ‘함께’, ‘~로 말미암아’, ‘~결에서’, ‘~앞에서’, ‘~의 면전에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서 하나님과 함께 앉으라. 그분께로 물러나 그분의 임재와 교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는 삶 가운데서 발견되는 즐거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라.” 이는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 지붕 아래로 들어가, 친구와의 인격적인 교제는 물론이고 친구가 기꺼이 나누어주는 모든 환대와 편의와 대접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 잘 정돈된 집의 규칙과 질서를 보며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지니므로, 그 의무의 실천 또한 여러 측면에서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즐거움을 실천하고 연단하는 문제를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른 종교적 의무들에 수반되는 것으로서의 즐거움이고, 둘째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무로서의 즐거움입니다.

첫째, 전자의 경우, 우리의 과업은 종교의 실천을 ‘즐거운 것’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종교는 본래 자연스럽게 그 자체로 즐거운 것입니다. 만일 그 종교가 참되다면, 즉 신적인 생명의 원리에서 비롯된 살아 있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그 자체로 종교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들까지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즐거운 것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의무의 실천을 다루면서, 우리의 논의는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전자는 후자를 이끌고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에 안주하거나 우리의 실천을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하며, 즐거움을 주는 종교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첫째, 본질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될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러한 종교는 들인 수고를 보상하지 못하고 그 자체의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성가신 짐만 있을 뿐 아무런 유용성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아닌 죽은 형식뿐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살아 있는 몸을 지니고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쾌하게 여기지만, 죽은 송장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일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지겹고 혐오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 자체로 전혀 즐거움이 없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 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관해 몇 가지 고찰할 점을 제시하여 그러한 종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1.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 주제는 종교가 ‘즐거움을 주는가’라는 단 하나의 척도에 국한되므로, 우리가 헛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떠나야 할 종교의 특성, 즉 ‘즐거움이 없는’ 종교라는 특징에만 논의를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목적을 위해서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길게 설명했듯이) 참되고 살아 있는 종교의 즐거움은 그 본성에 내재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죽은 것이며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주의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참되고 살아 있는 종교, 따라서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종교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연한 계기로 인해 즐겁지 않게 보이거나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로 인해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되거나, 영혼을 쓰라리게 하는 병적인 상태가 그 안에 참으로 존재하는 즐거움을 당장 맛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미각이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맛있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미각 기관이 일시적으로 병든 상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각이 정상일 때 누군가 그 음식 맛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이 더 분명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므로, 그는 맛있고 풍미가 좋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2) 죽은 종교가 즐겁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즉, 주체의 비뚤어진 성향 때문에 그 종교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되지 않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의 외적인 부분만 따로 떼어내 다른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변용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종교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한 목적에 종교를 종속시킴으로써, 부당하게(마치 강탈하듯이) 거기서 즐거움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위선적인 백성에 관해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사 58:2).

그러므로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실천을 행하는 중에 당장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종교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조건에서든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그 종교를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정당한 근거 위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즐거움도 줄 수 없는 종교입니다.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해 탐구하고 살펴본다 해도, 이성적으로(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데 영적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도저히 영적으로 즐겁다고 생각할 수 없는 종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즐거움을 줄 수 없는 종교, 곧 건전하고 건강한 영혼에 기쁨을 줄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한 종교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만일 그러한 종교 안에서 어떤 즐거움이 느껴진다면, 그 즐거움이야말로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그 대상 자체에 어떤 선함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주체의 병든 상태를 보여주는 논거가 될 뿐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즐거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두 가지 일반 규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1. 어떤 것의 본래 용도와 목적은 소홀히 한 채 다른 데서 얻는 즐거움은 마땅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2. 즐거움이 주는 유익보다 실제 해악이 더 크거나, 즐거움과 함께 유익을 얻는커녕 도저히 상쇄할 수 없는 손해가 따르는 즐거움 역시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두 규칙은 지금의 논의에 더없이 적합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종교적 행위와 실천에 따르거나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즐거움은 비록 본성상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그 행위의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행위에는 더 중요한 다른 목적이 있으며, 즐거움은 단지 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에 부수될 뿐입니다. 따라서 종교 본연의 더 중요한 의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그 의도에 어긋나고 파괴적인 것에서 얻는 즐거움은 가장 터무니없고 비뚤어진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칙들을 통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음식 자체는 역겨워 맛보기를 거부하면서 그저 접시의 화려한 장식만 보고 즐거워한다면, 이는 음식에서 얻는 부적절한 즐거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쌓아둔 재물을 자주 보며 흐뭇해하지만 정작 쓰는 것은 건디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구두쇠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규칙에 따르면, 열병에 걸린 사람이 병든 식욕을 채우며

얻는 즐거움은 가장 비합리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런 행위는 몸을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병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종교는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즉 마땅히 주어야 할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종교적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데만 그치고, 그 개념에 따라 마음과 삶을 만들어 가려는 체험이나 계획, 기대가 전혀 없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원리들이 참되다고 인정하고, 개념적으로 동의하며 각 원리의 연결과 조화를 바라보는 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경건에 관한 교훈”(딤후 6:3)이라는 점, 즉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그분의 거룩하고 기쁘신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려는 본래 의도에 따른 것임을 결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24)는 의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앎을 위한 앎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진리의 모습으로 눈앞에 제시되어도, 그것을 유토피아나 달나라 이야기처럼 여기며 더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런 지식에서 얻는 즐거움은 분명 가장 왜곡된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아는 것, 한 진리가 다른 진리와 연결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사변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자신에게 당장 죽음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죄에 관한 흥미로운 일반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굴리며 즐거워할 뿐, 그것을 자신의 경우에 적용하거나 그것이 바로 자기 문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두고 누구든 “그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거나, “이 즐거움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이어갈 음식을 그저 바라보며 눈요기만 할 뿐, 정작 식욕은 잃고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병적으로 혐오하며 쇠약해져 가는 사람이 있다면,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의 즐거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 개념적으로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 지식의 본래 의도와 목적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할 심판의 증거만 더 많이 쌓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는 것들이 탁월하다고 여기면서 그 지식 자체에만 만족한다면, 이는 마치 자신의 유죄 판결문이 아름답고 명료한 글씨체로 쓰인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자기 심장을 겨누어 당장 죽음의 도구가 될 칼의 번쩍임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단지 지적 호기심으로 대하는 사람의 상태는 그 자체로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그가 즐거움을 얻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를 위해 전율하고, 그가 즐거움의 재료를 끌어내는 그 상태에서부터 마땅한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2) 둘째, 어떤 특수한 견해에 신앙의 모든 것을 거는 종교는 더욱 무미건조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 견해가 거짓이어서 종교에 반하거나, 의심스러워서 종교에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너무 사소하고 하찮아서 종교와 무관할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종교는 마음과 실천에 생명력 있는 영향을 미치는 종교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진리들을 개념적으로만 다루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종교가 즐거움을 줄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이와 상반되거나 무관한 문제들만 온통 다루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종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어떤 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되다고 여겨지면 내면의 어떤 애착을 불러일으키고 실천을 규제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더 심각한 죄악들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교도들의 신에 관한 그릇된 개념들은 그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권능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만일 그들이 아무런 종교적 감정이 없었더라면 더 방탕하고 사악했을 수도 있었을 사람들 중 일부를 다소 절제되고 덜 악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비롯된 선은 거짓된 우상숭배의 개별 원리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된 종교의 더 보편적인 원리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거짓된 원리를 따로 떼어놓고 그 자체로만 보면 어떤 선한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우연일 뿐이며, 그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원리들이 다른 보편적 개념이나 명백히 참된 원리들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숙고한다면, 그리고 그 원리들을 종교의 유일한 원리로 여긴다면, 그들은 오히려 더 큰 해를 입고 더욱 절망적이고 치유 불가능한 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명백한 예는 우상숭배로 이끄는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은 참된 것으로 여겨질 때 착각을 통해 어떤 형태의 종교로 인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이기에 결국 무신론으로 귀결되며, 그 자체로 모든 종교를 전복하고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진리의 틀과 조화되지 않는 교리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본질상 참된 종교의 목적에 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런 교리들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훗날 헛될 뿐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맛 좋은 물약을 기쁘게 삼키지만, 그 약이 본래의 효능을 발휘하면 결국 심한 메스꺼움과 함께 다시 토해내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덜 중요한 어떤 진리들이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실천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논의의 목적은 명백히 신적인 계시나 제도에서 비롯된 그러한 진리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해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므로, 종교의 위대한 설계에 부수적인 역할이 아무리 미미해 보일지라도 결코 사소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부수적 역할 때문에 그 진리들은 그 역할에 비례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례를 넘어 과도하게 중시되고 본래의 목적 자체보다 부당하게 앞세워져, 그것들과 비교하면 종교의 위대한 진리들이 저급하고 냉랭하며 무미건조한 것으로 치부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의 더 위대한 진리들과의 관련성이나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 진리들에만 마음을 둘 때, 거기서 얻는 즐거움은 그것을 취하는 정신의 질병과 심각한 명령의 증거일 뿐입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어찌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그토록 위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그런 사소한 문제들로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경탄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이들이 개념과 의견을 인위적으로 치장한 겉모습에서 얻는 즐거움은 훨씬 덜 합리적입니다. 수사적 미사여구, 화려한 어휘, 아름다운 운율과 문장, 환상적인 묘사, 소소한 재치와 기교, 심지어는 유치한 말장난과 운 맞추기, 문장 도치, 현학적인 각운, 꾸며낸 어조나 큰 소리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가장 중요하고 무게 있는 문제들조차 까다로운 취향을 가진 이들에게는 맛없고 불쾌하게, 또 지루하고 단조롭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즐거워하면서 스스로 종교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음이 명백합니다(비록 이처럼 하찮은 정신이 그토록 알팍한 궤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종교의 본질이 아니며, 단지 우연히 종교 주변에서 발견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불행한 우연으로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치장들은 어리석은 자의 웃이 신중하고 근엄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듯 종교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나은 것들조차, 그런 기교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주제에나 공통으로 속할 뿐, 종교에 고유하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허하고 하찮은 기호에 맞게 꾸며진 종교적 주제의 강론을 즐겁게 듣고, 어떤 문장의 기교에 감탄하거나 목소리의 크기에 감동받거나 환상적인 비유에 상상력이 자극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종교적 황홀경에 빠졌다고 성급히 결론 내리는 자들은 실로 비참하게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즐겁게 한 것들은 종교와 아무런 친연성이나 언약 관계가 없으며, 우연히 종교에 덧붙여졌을 뿐 그 자체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4) 온통 말로만 이루어진 종교도 이와 비슷한 부류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관해 담론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지거나 자기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하려는 의도나 목표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위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 위대한 것을 산다”라는 초대 교회의 영광스러운 원리를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대개 무의미하고 알맹이 없는 자기 말의 소음에만 만족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교훈이 그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겠습니까! 실천적이고 살아 있는 종교의 즐거움이 이처럼 사라져 한낱 입술의 수고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위는 그 목적과 거기에 수반되는 영적 태도를 통해 평가해야 하며, 진지하고 신중한 관찰자에게는 그 차이가 대개 명확히 드러납니다. 종교의 위대한 과업에 전념하는 이들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습은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말 3:16)라는 말씀은 이런 이들을 기념하는 영원한 표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자기 과시에 불과하고 그들의 영이 공허함이 명백할 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많이 말하는 행위 자체에서만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분명할 때,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혐오스러운 뿐입니다. 그때만큼 역겨운 숨결은 없으며, 말하는 내용이 고상할수록, 정작 말하는 이에게서 그 고상함의 향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끔찍합니다.

(5)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오직 듣는 데만 의존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5) 종교가 온통 혀에만 있을 때처럼, 온전히 귀에만 머물 때에도 마음과는 그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자”(약 1:22)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설교자는 “노래를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노래”(겔 33:32)와 같아서, 말씀을 듣기만 할 뿐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테네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몰두했던 것처럼, 듣는 일이든 말하는 일이든 가리지 않고 즐겨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흔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듣기 좋아하는 내용은 늘 새롭거나 적어도 새롭게 포장되어야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은 언제나 똑같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뒤틀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종교의 영광은 그 핵심 원리들이 결코 낡거나 무미건조해질 수 없다는 데 있는데도, 이들의 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가려워합니다. 이는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를 표현하는 가변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종교를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유익을 얻기 위한 적절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듣기만을 탐하는 병적인 현상이 분명히 자주 나타납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향기로운 복음의 진리를

즐겁게 되새기고 그에 합당한 실천으로 옮기는 기쁨이,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탓에 사라지거나 질식하고 맙니다. 그 결과, 경건하고 거룩한 성품과 정동(affections), 선한 행실이라는 희망찬 열매들이 채 자라기도 전에 또 다른 가르침이 선불리 덧씌워지면서 억눌리거나 약화되는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6), 이런저런 분파가 종교에 덧붙인 외적인 요소나 예배 형식으로만 이루어진 종교는 가장 즐거움이 없는 종교입니다. 설령 그 형식들이 아무리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정하셨다 해도, 우리 종교의 본질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식들은 종교의 생명으로 활기를 띠면 아름답고 즐거워지지만, 종교와 분리되거나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생명의 영의 흐름이 막히고 억눌리면 죽은 팔이나 손가락처럼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종교의 본질과 분리되면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너희의 월삭과 안식일을 …… 내 영혼이 미워하노라”(사 1:14). 그러니 그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면, 이는 마치 훌륭한 인물과 교제할 기회를 얻고도 그의 모든 지혜로운 말과 즐겁고 유익한 담론은 무시한 채, 오직 그의 멋진 옷차림을 구경하며 만족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하찮은 즐거움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이, 마땅히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그분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지닌 본래의 목적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그 엄숙함에만 신경 쓰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종교의 외적인 형식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온갖 악한 행실을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더욱 가관입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도 감히 주님의 집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렘 7:4)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바리새인의 종교입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죽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헛되이 즐기는 것들이 설령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 해도 그들을 정당화해주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신들이 만든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의 교파적 명칭이나 신앙고백이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든 함께이든) 기껏해야 죽은 종교, 즉 생명이 없기에 즐거움도 없는 종교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2. 이제 이러한 종교를 선택하거나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을 종교적이고 경건하게 되도록 설득하는 일은 곧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상태와 과정으로, 순수하고 천국과 같은 즐거움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즐거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종교는 헛된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데도, 그 헛된 겉모습과 허울에 속아 우리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결코 조롱받으실 수 없는 그분마저 헛되이 조롱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첫째, 그 자체로 즐거움이 없는 종교는 바로 그 이유, 즉 죽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도 죽어 있기 때문이며,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모든 참된 종교와 경건의 유일한 원리인 신적 본성, 곧 하나님의 씨는 하늘을 향하는 본성이 있어 위를 지향하고 열망하며, 하늘에 닿을 때까지 결코 솟아오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은 주로 겨자씨 한 알이 삼나무처럼 커 가듯, 완전한 상태를 향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끊임없이 푸르고 싱싱한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 주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 1:3)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잔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시 92:13-14)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살아 있는 뿌리와 교통하지 못하는 죽고 메마른 형식이나 종교의 겉치레들, 또는 오직 그것들로만 이루어진 종교는 그러한 성장의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든 처음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한낱 겉모습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떤 탁월함도 주장할 자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종교’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반론이 됩니다.

참된 종교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본질과 종류의 탁월함보다는 미래의 가능성과 개선의 여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참된 종교의 가치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가늠해야 합니다. 반면, 여기서 논하는 맥 빠지고 생기 없는 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전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종교는 성장하고 번성하는 종류가 아니므로 더 나아지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언급한 개념적 지식, 독단적 의견, 외적인 의식들은 모래더미가 커지듯 양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는 생명체가 내재적 생명력으로 자라나듯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2)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종교는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복처럼 닳아 해지거나, 당장의 필요를 위해 걸치는 외투처럼 용도가 다하면 쓸모보다 거추장스러워져 쉽게 벗어 던져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자아와 생명력 있게 연합한 것은 제쳐두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견디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종교의 외양은 갖추었으나 살아 있는 뿌리와 원리가 없는 위선자의 특징은 그의 종교가 변덕스럽다는 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항상 부르겠느냐?”(욥 27:10). 이 수사적 질문은 단순한 부정을 넘어,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상식에 호소하는 말로서, “그런 자의 종교가 오래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생각을 경멸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럴 리가!’ 문제는 명백합니다. 그의 종교는 세속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되며, 오직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만 경건할 따름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라는 앞선 구절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교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른하고 희미하며 생기 없는, 죽은 형식일 뿐입니다. 만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그 즐거움을 낳는 바로 그 생명의 원리가 종교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3) 그러한 종교는 존속하는 동안에도, 종교를 통해 의도하고 추구해야 할 열매와 유익을 맺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고 헛된 까닭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종교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목적 없는 수고와 노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본래 목적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복된 상태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수용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섬김을 섬김으로 여기지도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당신을 즐거워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의와 생명의 규칙에 따라 더욱 바로잡히고 순응하게 될수록 우리 스스로는 그런 종교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게 되는데, 하물며 그런 것으로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아무 맛도 없고 생기도 없이 죽어 우리 자신에게조차 참된 즐거움을 조금도 주지 못하는 종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앞서 언급한 목표들에 대한 우리 종교의 성패는, 우리의 영이 그 종교를 통해 얻게 되는 합당한 기질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묘사된 가볍고 쪽정이 같으며 공허한 종교가 우리 영에 선한 감화를 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영을 연단하고 더 낮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즐거움이 없는 만큼 영적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스스로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거나 간직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종교는 얼마나 헛되니까!

(4) 아무런 의도도 목적도 없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성적 피조물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그 영과 능력에서 멀리 떨어진 외적인 것들에 두는 사람들조차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그런 일에 허비합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써버리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어울리는 일이겠습니까! 주마다, 날마다 때가 되면 늘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왜 하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시간이 왔다!” 일이라 부를 수도 없고 여가라 할 수도 없으며 어떤 종류의 유익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일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셈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세속적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직한 사람은 혐오하고 고결한 사람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워할 만큼 간접적이고 비열하며 뒤틀린 방식으로만 이익에 기여할 뿐입니다. 하물며 영적이고 영원한 이익에는 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스스로 어리석거나 하찮은 자임을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실체와 분리하여 고찰한 앞선 사례들 중 어떤 것은 사도가 말한 “지혜의 모양”(골 2:23)조차 갖추지 못했고, 또 어떤 것들은 그 모양이 너무 희미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기뻐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더 나은 부분인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며,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τιμή 라는 단어가 때로 그런 의미를 갖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바로 이 시간이 그들의 영원한 문제를 위해 할당된 시간의 전부라는 점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들(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그중 일부 또는 전부)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참된 종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종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립니다. 이것이 영원을 위한 지혜로운 준비이겠습니까? 오, 인간이여! 고작 공허하고 미숙한 개념 몇 개! 결가지 의견 한두 개! 유치한 공상을 간질이는 현학적 기교! 실 새 없이 놀려대는 혀의 움직임! 헛된 귀의 갈증과 만족! 위선적인 무릎 꿇음! 이것이 그대의 영혼을 위해 계획하고 마음 쓸 전부입니까? 이것들이 과연 살아 있는 종교의 자리를 제대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내적 사귀를 대신하며, 참되고 습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며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기에 겨와 공기만으로 살아가며 바람으로 연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대에게는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감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감추인 만나와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까? 그대가 의지하는 그 공허하고 헛된 것들이 참된 종교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을 대체 어디에 쓰고 있던 말입니까? 그런 종교가 제구실을 할 것이라 생각하느니, 차라리 종교가 아예 없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이성적이지 않겠습니까!

(5) 이 세상에서 그대의 짧은 여정이 끝난 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토록 오랫동안 종교의 언저리를 맴돌며 바로 문 앞에 있었으면서도 끝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토록 자주 생각하고 말하고 들었으면서도 정작 스스로 그 즐거운 맛을 결코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연 기쁘게 회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토록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그 나라를 이루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희락’에는 이방인으로 남았다는 사실, 그 안에 담긴 귀한 보석은 하찮게 여겨 내던지고 그저 (그대 생각에는 화려하지만 실은 그대 자신의 붓으로 칠한) 그림으로 장식한 보석함에만 만족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그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6)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와 헌신을 내세우며 그분과 그분의 거룩한 것들을 이처럼 희롱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종교의 진실함과 참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과 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위선적인 구실과 남용으로 그분을 격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지도 모를 준엄한 형벌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도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비이성적이고 즐거움 없는 종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만일 후자라면, 이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멸하고 그분께 반항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지도,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하지도 않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종교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위장될 때, 그것은 실로 신성을 모독하는 가장 오만한 조롱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한 입으로는 “예수여, 만세!”를 외치면서 동시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고, 자색 옷을 입혀드리는 동시에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자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하찮은 행위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런 헛된 망상과 형식들이 우리 삶의 여정 내내 그분을 등한히 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리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비천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대체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요 4:22)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저 영원히 복되신 존재에 대한 관념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쁘게 하려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 보잘것없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의 외적 형식과 부속물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의 이사가 선지자를 통한 그분의 항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의 본질과 결합하여 그에 종속될 때라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분리되고 참된 경건과 의를 저버린 채 행해진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도다”(사 66:3).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를 기뻐하시는 모습은, 마치 살인이나 신성모독, 우상숭배를 기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적인 사악함에는 노하지 않으시면서, 가장 알팍하고 피상적인 경건의 모양새에는 기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려 보이니, 그분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결국 그들은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커녕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날 선 도구를 서투르게 다루는 자처럼) 자기 영혼에 상처를 입히며 하나님을 가장 공공연한 원수로 만들고 맙니다.

이처럼 즐거움이 없는 종교는 너무나 많은 어리석음과 폐해, 해악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제시한 기준들로 판단해 볼 때, 그러한 종교를 선택하거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제안했던 두 번째 주제, 곧 ‘과연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하며, 어떤 종교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안주할 수 있는가?’라는 긍정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허락하는 선에서만 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란 그 자체로 이성적이고 정당하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종교가 오직, 혹은 주로 그 즐거움 때문에 선택되어서는 안 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즐거움을 주는 종교만이 참된 종교이므로, 즐거움을 주는 종교만이 선택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즐거움은 종교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아닐지라도, 선택할 만한 종교의 확실한 표지가 됩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하나의 의무로 우리에게 명백히 주어졌습니다. 만일 이 명령이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의 길과 과정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면, 이 명령이 가리키는 종교는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즉 그 자체가 참으로 즐거운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 부에서 이미 길게 논한 바, 곧 참되고 살아 있는 종교의 다양한 실천들과 그에 영향을 받아 인도되는 모든 행위들이 품고 있는 풍성한 기쁨의 재료에 대해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 즐겁고 유쾌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분적으로는 길을 안내하고 부분적으로는 격려하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지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종교인으로서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들을 정신에 잘 새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실천적 진리, 곧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철저히 통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덕분에, 종교에서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들은 명백하며 그 수도 적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행 20:21)이라는 간결한 요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인간의 타락 상태를 명백히 전제하며 그 치유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치유의 길로 들어설 때, 우리 구주께서 얼마나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의 의무를 요약해 주시는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건강한 영혼에게 이 말씀들은 얼마나 포괄적이고 충만하며, 또 얼마나 감미롭고 기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몇 마디가 지닌 실체적 충만함을 동서양의 모든 보물과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롬 12:2)이라 불릴 만하며, 수천의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그 탁월함은 압축될수록 더 커지며, 그 자체로 귀하기에 지니고 다니기에도 편리합니다. 이 지침들은 우리 평생에 걸쳐 얼마나 쉽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지요! 또한 의무에 대해 질문하기보다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더 큰 사람들에게, 인생의 여정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 얼마나 보편적으로 유용한지 모릅니다.

이 규칙에 반하는 두 가지 태도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제시한 지침이 신앙의 즐거움에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는 (앞서 지적했듯이) 종교의 진리를 실천과 연결하려는 의도 없이 사변적으로 탐구하는 과도한 호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 문제에 대한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심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 부주의하거나 우리가 택하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자포자기한 심령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도 분명 지나침이 있을 수 있으며, 너무나 자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근거도 없고 끝도 없는 과도한 세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되는대로 헤매는 것과, 내가 과연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자꾸만 뒤돌아가 묻는 것 사이에는 분명 중도가 있습니다. 후자의 태도는 여행의 즐거움과 여정의 진척을 모두 망쳐버릴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숙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이 자신과 타인을 불안하게 만들며 논란을 일으키는 수많은 문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의 법으로 귀결시킬 때 가장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즐겁고 기쁘게 걸어가려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 한번 굳게 세워진 마음이 가장 유용한 실천적 교훈들로도 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교훈들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대개 그리 복잡하지 않으므로, 지배적인 사리사욕이나 부패한 성향 때문에 자기 의무를 깨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교훈들을 통해 즐겁고 순전하게 자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걷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의 길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로 인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그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내면에서 겪는 힘겨운 싸움은, 어떻게든 교묘한 해석을 꾸며내어 규칙을 자기편향적인 기분과 목적에 맞게 구부리고 굴복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이상을 보지만, 그들의 행실을 지배하고 명령할 만큼의 권위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헤매다 길을 잃고 그 길에서 즐거움을 거의 찾지 못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 무엇보다 그대의 영혼이 본래의 안정된 기질과 성품으로 의와 생명의 길을 향하고 그에 적합해져서, 습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되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시 23:3)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표할 때, 그가 느꼈을 달콤한 기쁨과 감미로움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의 길은 회복되어 온전하고 건강해진 영혼, 곧 선한 습관과 안정된 영적 힘을 갖추게 된 영혼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따라서 이 교훈의 의미와 핵심을 (더욱 권위 있는) 사도의 말씀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이 말인즉슨, 그대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까지는 영혼의 미각 자체가 비뚤어져 있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맛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대는 그분의 입의 말씀을 정해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대의 양식이요 음료가 될 것입니다.

나쁜 질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든 시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권할 때, 마음이 내키지 않고 무기력하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완강히 거부하고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마치 불길이나 칼날 위로 떠미는 것처럼,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하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 그러나

일단 “주의 법이 그의 마음에 있”게 되면(시 40:8), 그대는 그분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긴 사람에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요일 5:3-4).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그대는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진실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대의 본이 되시는 복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도 “이런 일을 기뻐하므로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렘 9:24).

그대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앞서 논한 마음을 바로잡는 소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엡 2:10)가 되어야 합니다. 성향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 안에 심어진 생명의 원리가 없으면서 선을 억지로 모방하는 것은, 그대가 아무리 정교하고 그럴듯하게 위장해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듯 그대 자신에게도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마음의 울곧음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쉬지 말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 내 길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도록 인도된다면!” 하는 탄식과, “내 마음이 주의 법도에 온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시 119:80)라는 갈망을 자주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절망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자녀가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으시듯,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3) 일단 그대의 영이 어느 정도 선한 성향을 갖추고 참으로 선한 것을 음미하기 시작했음을 발견한다면, 선한 원리들을 북돋우고 악한 원리들을 억제하기 위해 그대의 지속적인 점검과 돌봄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갓난아기에 대한 돌봄이 출생과 동시에 멈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내면의 사람을 돌보는 것을 끊임없는 과업으로 삼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나 자기 방임이 아니라 그의 수고에 기쁨을 결부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 곧 그 무엇보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생명의 원리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오직 선하고 거룩한 원리들에서 나오는 참된 결실만이 그대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경건의 실천은 그것이 자연스러워 그 자체의 샘에서 쉽게 흘러나올 때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샘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샘물에 쓴 물을 섞으려 드는 다른 샘들도 있고, 그 열매가 치명적인 쓴 뿌리, 곧 주를 버리는 악하고 쓴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 신앙의 기쁨을 거의 맛보지 못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땅과 같이 인간 본성 위에도 저주가 드리워져 있어(“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 곧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갈 3:14)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본성적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며 그의 빵에 슬픔을 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약속된 복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복이 더해지거나 의의 즐거운 열매가 맺히는 일은, 오직 “모든 힘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자들에게서만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벧후 1:5-9).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언제 영혼을 들여다보든 비참한 황무지와 폐허라는 암담한 광경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가련한 자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갈면서 영혼은 같지 않고, 정원이 단정하고 무성한 것은 좋아하면서도 그대의 영은 마치 자기 것이 아니라는 듯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사에 대한 염려를 덜기 위해 백합이 수고도 길쌈도 없이 자라며 아름답게 차려입는 것을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어떤 예시도 우리 내면의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곧 생각과 욕망의 첫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성향이 모습을 드러내는 즉시, 그리고 계획이 형성되는 바로 그 단계에서부터 주시하며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선한 원리인가, 악한 원리인가? 어디로 향하는가? 선을 향하는가, 해를 향하는가? 이 계획을 밀고 나가면 정당화할 수 없는 자기 방종이 되지 않을까? 육체를 불법적으로 만족시키고 그 욕망 중 일부를 채우려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당장 잘라 버리고 도끼를 그 뿌리에 대어야 합니다. 주저 말고 내리치고 아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남겨 두면 내게 슬픔을 낳을 것이다. 여기에 내어 주는 만큼 내 삶의 위로를 빼앗기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의 창고를 축내는 셈이다. 내 영혼을 고문하는 죄를 이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살려 두고 먹여 살릴 것인가?’ 만약 어떤 선한 성향이 나타나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굳건히 하며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운을 더욱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생명과 은혜의 하늘 영이 숨 쉬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복되시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즐겁고 생명력 넘치는 숨결을 더하여 주소서!” 지금을 씨 뿌리는 때로 여기십시오. 이제 그대의 영혼에 빛과 기쁨이 부려지고 있으니(이는 의롭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기쁨의 추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영혼이 잘되리라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4) 은혜의 원리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일, 즉 그 원리들이 지시하는 바를 행하는 일에 자주 힘쓰고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그대의 실제적인 기쁨은 거룩한 행동 자체에서 솟아나며 그 행동과 동반되니, 행동 안에서 인식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강하지 못한 단순한 성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들이 더 자주 실천될수록 더 생생하고 왕성해져서, 더 힘 있고 즐겁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비롯된 원리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부지런할 뿐 아니라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전 영역을 아울러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후 4:7)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경건의 여러 행위와 부분 가운데서도, 육체의 연단(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고행이든, 혹은 이 조악한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수행이든)과 대조되는 정신과 영의 연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후자가 전자보다 더 고귀한 연단임은 마땅합니다. 그대 영혼의 능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향하는 성령의 여러 은혜를 때에 맞게 발휘하십시오. 어느 것 하나라도 사용하지 않아 녹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회개, 때로는 믿음, 때로는 사랑이나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주 은밀히 교제하며 그분과의 내밀한 사귀를 배우고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본성과 속성, 사역을 묵상하여 거룩한 예배와 경외, 찬양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또한 공적이고 엄숙한 예배에 힘써 참여하여, 비록 몸이 유일한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내면의 사람이 주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하늘과 땅의 위대한 주님께 공적으로 경배를 드리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종교적이고 경건한 행위가 절제와 의로움의 부족을 면제해 주거나 그 부재를 변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스로를 향한 정당한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상력과 걱정, 감각적 욕구를 적절히 제어하여 욕망과 향유를 절제하고, 결핍과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자신의 역량이 닿는 한 주위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더 나아지도록 힘쓰십시오. 해를 끼치는 자를 참고 용서하며, 궁핍한 자를 돕고, 선한 사람을 기뻐하며,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친구에게는 감사하고 원수에게는 온화하며 보복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라도 부정직한 행위는 물론, 비열하고 부당한 행위조차 혐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의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삶의 평범한 행위들이 그 자체로 수많은 종교적 행위가 되거나, 그 행위들의 인도를 받아 경건의 향기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은혜의 전 영역을 꾸준히 실천하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한 종류의 실천에만 치우쳐 나머지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편중이야말로 종교를 굶주리게 하고 그 즐거움을 질식시키는 주범입니다. 절제 있고 공정하며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려 애쓰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신적인 생명의 더 고귀한 실천들에는 지극히 생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과 사귄 안에서 살지 않으며, 하늘의 맛을 모르고, 다가올 세상의 위대한 생명력조차 맛보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다고 자처하며 그분의 사랑과 교제에 대해 말하기를 즐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와 자비를 하찮고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탐욕, 억압, 사기, 분노, 악의, 신경질, 투덜거림, 불만, 교만, 비난, 무자비함을 스스로에게 허용합니다. 그리하여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더욱 그러한 종교를 자랑하는데, 이는 사도가 묘사하고 권고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약 1:27)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분명 그들의 종교는 다른 이들 눈에 아름답거나 꾸밈이 없는 만큼, 그들 자신에게도 즐거움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불구의 종교가 즐거움을 동반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일 사람이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것이 쓸모없게 된다면 삶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크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떤 감각이나 타고난 능력을 상실하여 삶의 더 주요한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겠습니까? 만약 새 피조물이 이와 같이 불구이고 결함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즐거움 역시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것처럼 불완전한 작품을 짓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향이 온전히 부재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의 참된 즐거움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온전히 형성되어 함께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피조물이 이처럼 완전하게 구성되었을 때, 각 부분의 합당한 사용을 살피고 이를 통해 개선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만일 어느 한 부분이 소홀히 여겨진다면, 이는 전체의 전반적인 쇠약을 초래합니다.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4)라고 말했는데, 이는 단지 한 가지 은혜의 부재뿐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실천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심히 결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 신적인 피조물의 여러 지체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몸 전체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언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종교의 즐거움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 실천에 있어 온전하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5) 종교는 그 자체로, 곧 그 본성 전체에 있어 즐거운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즐거움을 실제로 맛보고 느끼는 데 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실천적 오해와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종교는 그 본성상 즐거움과는 이질적이어서 즐거움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신랄한 엄격함, 침울함, 슬픈 생각만이 종교에 속하거나 그것과 양립할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는, [2] 만일 종교에 어떤 즐거움이 속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하고 비범한 확신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따라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종교가 본질적으로 즐겁다는 인식이 온전히 수용되면, 이 두 가지 오해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숙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곧, 행위가 그 자체로 지닌 합당함과 적절함에서, 그리고 그 행위가 본연의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의 용이함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참되고 생명력 있는 종교 행위치고 즐겁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관하여, 제 1 부에서 언급된 거룩한 올바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은혜로운 작용들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회개, 자기 낮춤, 자기 부인, 자기 헌신의 행위조차 그 자체로 지극히 합당하고 어울리는 일로 나타나며, 바로잡히고 잘 다듬어진 마음에서 강제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즐거움을 체험하려면, 그 즐거움을 어디에서 구하고 찾아야 할지 스스로 분명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참되고 살아 있는 종교의 모든 행위와 작용이 그 자체로 즐거울지라도, 자신의 즐거움보다 더 높은 이유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그 행위들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자신이 이룬 것을 무너뜨리고, 자기 행위가 지닌 실질적인 도덕적 선함을 허물어뜨려, 결국 그 즐거움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적어도 그분께 습관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지향성을 거두어들이고 분리한다면, 이는 그 행위들에서 생명과 영혼을 강탈하는 것이며, 본질상 종교적 행위여야 할 것들마저 완전히 무효화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분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종교적 행위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신성한 생명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살아 있는 행위일 때에만 즐거움을 주며, 하나님을 향한 습관적 헌신이야말로 바로 그 포괄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만일 그 안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는 스스로를 방해하고 자신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이상숭배가 되며, 하나님 대신에 질투의 대상인 자기 자신을 세워 그 행위의 경배를 받게 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독차지하려 했던 불법적인 쾌락은 쓸개즙과 쓴 썩이 되어 결국 고통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속한 감미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고자 한다면, 마음의 단순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며 곧장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에는 즐거움이 본래 따르기 마련이므로, 즐거움은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행하는 일에서 자신을 위한 의도가 적을수록 즐거움은 더욱 커집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쾌락주의자가 되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정의와 자선을 행하는 목적이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려는 것, 즉 자기 행위에서 일종의 위안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라면, 이는 자신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그토록 갈망하던 즐거움을 날려버리는 일입니다. 즐거움은 구하지 않을 때에는 따라오고, 그토록 지나치게 구할 때에는 달아납니다.

(7) 그러나 선을 행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려는 것을 스스로 금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부차적인 순서로, 그리고 합당한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힘쓰는 것 또한 스스로에게 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자리를 벗어나 추구하거나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그 자체로 탐할 만하고 합법적인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약속된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선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만족을 얻으리라”(잠 14:14)라고 말합니다. 또한 의인에게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사 3:10)는 말씀으로 특별히 선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바이므로, 감사와 의무감으로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의무와 즐거움을 이렇듯 결합시키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크게 감탄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큼이니이다”(시 19:11)라고 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비천한 종살이를 명하시고, 그 일의 조건과 성격상 어떤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시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의 헌법 그 자체에 깃든 그분의 관대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히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의무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 의무는 다른 의무들이 주는 감미로움과 선함을 먼저 맛보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영원한 희락을 띠고……그들의 길을 가리니”(사 51:11), “여호와와 도에서 노래할 것은”(시 138:5)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주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잠 3:17)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거룩한 삶의 선함과 즐거움을 맛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통이 베푸는 복된 온기와 활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마음을 넓히고 길과 일을 수월하게 하며, 그분이 요구하고 명하시는 바를 힘들이지 않고 행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깨달을 때, 곧 그분의 계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경건과 의와 자비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견고하고 살아 있는 원리의 힘에 이끌려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때(“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 일인지 되새기고 주목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숙고하고, 숨을 고를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마음과 대화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길과 섬김,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의 법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걷는 규칙적인 삶의 여정, 내 모든 행위가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위해 드리는 끊임없는 희생 제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지금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기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그분의 손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께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현재의 상태와 기질을 과거의 그것과 비교하며 숙고해야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세상에서 그분 없이 살던 때와 비교할 때, 지금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내게 얼마나 더 나은가! 이제는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지만, 전에는 그럴 수 없었다. 이제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분을 섬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지만, 한때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였다.”

참으로 이 복된 변화에 대해 온전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는 교만하고 바리새적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남을 멸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겸허히 여기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도 자신은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깊고 꾸준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의무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힘을 어느 정도 주셨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과 일에 맞추어 조화시키시고 그것을 즐겁게 해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위선적으로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형식적이고 거짓된 감사의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형식을 빌려 자신을 헛되이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도 달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겸손히 깨닫는 마음을 내면 깊이 품는 것입니다. (8)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뜨겁거나 늘 한결같이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이 중단되거나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에는 그 즐거움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병들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를 내버려 두거나 절망하지 말고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납덩이처럼 진창과 오물 속으로, 땅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빠르고 즐거웠던 비행은 무겁고 둔탁한 추락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엄습하는 나태하고 무기력한 영적 기질에 굴복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신앙에 남는 것이라고는 감각할 수 있는 텅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황폐하고 쓸쓸한 일이겠습니까! 이는 마치 한때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던 버려진 집에 들어섰는데, 이제는 차갑고 텅 빈 벽만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의무, 똑같은 외적 형식과 예배 행위는 남아 있지만, 그 안에서 숨 쉬던 생명과 능력의 영이 떠나가 버렸을 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기만적이고 교감할 수 없는 그 그림자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뽀뽀하게 굳어 숨이 멎은 시신을 끌어안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영이 육육에 빠져들고 세속적인 기질이 서서히 당신을 장악하며,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 욕망과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하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만큼 생명은 퇴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 무기력해지고, 예전처럼 신앙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의 습관대로 기도하고 다른 의무들을 형식적으로는 지키지만, 그 안에서 생기를 잃어갑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죽기를 자처하며 만족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살 수 있는 수고의 고통보다 죽음의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나태한 침상에 누워, 심지어 구덩이 바로 그 가장자리에서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라고 말할 때이겠습니까? 이 상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죽음과 언약을 맺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당신의 나태한 기질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 온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명백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당신 자신과 현재 상황을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면, 바로 그만큼 지금 당신의 상태를 불쾌하게 여기고 영혼의 나태한 기질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이 활기찰 때 즐겁다면, 그 신앙이 희미해지고 병들어 쇠약해졌을 때는 즐거울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방임이 지금 가장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도록 힘쓰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죽음의 공포를 제시하고, 그 충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끔찍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십시오. 당신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시면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지 자문해 보십시오.

설령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주는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병든 상태를 깨달음으로써 마땅하고 시의적절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원리를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참으로 그분은 결코 그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에서 그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그만큼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두려워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정당하고 진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되, 희망을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절망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희망은 당신 자신에게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참으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께 두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희망을 버린다면, 당신은 스스로 멸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이는 당신의 숨을 멎게 하여, 생명을 위한 모든 몸부림과 희미해져 가는 심장의 마지막 험뎁임마저 즉시 멈추고 완전한 죽음으로 끝나게 할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으며, 그 위급함이 절망을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한번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곧이어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렘 2:25)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두려움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롬 8:24).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 구원에 대한 희망이야말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싸움과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당신 안에 심각한 병폐가 나타나고 자주 재발하며, 심지어 위협적인 양상과 경향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치료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방된 수단과 방법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거기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한

자는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마 9:12]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그분의 돌봄에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처럼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분께 돌아온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도움의 길을 모르는 자들이나 절망하게 하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비록 내가 넘어져 비천해졌으나, 오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 다시 일어서리이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던”(시 138:3) 때가 없었습니까? 속으로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11). 여기서 ‘나타나 도우심’(the health of my countenance)이란 생기 있고 활기차며 즐거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건강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희망은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즐거움과 기쁨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희망이 주는 기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상 성도들의 상태가 회복의 상태임을 생각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비록 완전한 건강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자주 잘못을 저지르며 넘어지는 모습은 오히려 위대한 의사의 기술과 인내를 더욱 빛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 때문에 안심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병든 상태가 때때로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때, 당신의 마음이 비참한 절망과 시무룩한 불만 속으로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애뜻하게 누우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더 신중하고 깨어 있지 못했음을 두고 마음으로 자주 자신을 꾸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거나, 더는 애쓰는 것이 소용없다거나, 그토록 금세 사라져 버리곤 하던 선한 상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헛되다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올바른 치유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당신 자신의 수고와 근면,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 큰 몫을 차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계 3:2)거나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벧후 1:5)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것들이 의무로 부과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과 관련된 일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 피조물로 대하십니다. 당신은 장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돌처럼 깎이고 망치질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알려진 계획에 맞게 다듬어져 영적인 건물에 쓰이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다름은 그 손길은 당신이 그 계획에 순응하고 협력하기를 마땅히 기대합니다. 당신은 그 계획에 이바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함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며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진정 알고자 한다면, 당신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기쁨을 가로막는 온갖 영적 질병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며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은혜로운 허락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 5:25),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는 권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자신의 감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부적절하게 명하시겠습니까? 혹은 그 방법을 잘못 알려주어 우리를 속이려 하시겠습니까? 요컨대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 능력에 복종하며, 이 두 가지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1.] 의존과 신뢰입니다. “나는 주 여호와와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1] (시 71:16)와 같은 구절이 이를 암시합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슥 10:12)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리니”)과 그 능력이 전달되는 방식(“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곧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의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당신께서 발휘하시는 능력 사이에 이러한 연관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비범한 사역은 하나님의 신적인 규정이 요구하는 비범한 믿음이 행사될 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상태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종의 속박 상태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정이 그 연관 관계를 깨뜨릴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막 6:5-6)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마 17:19-20)라고 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역시, 그보다 더 보편적인 믿음이 행사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엡 6:16).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방패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전신 갑주보다 먼저 취해야 합니다. 이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벧전 1:5)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논의에 더 직접적으로 들어맞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곧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됩니다(갈 3:14).

이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영의 능력을 이끌어내어 우리 영과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게 합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팔과 능력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어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매이십니다. 이때의 신뢰는 무모하고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권하시고 격려하신 신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선물이 약속된 말씀, 곧 그 은사의 명시적 수여가 담긴 약속들을 되새길 때, 우리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대”(시 119:49; 참조, 잠 1:2-3; 겔 36:27)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2] 그러면 그분은 친히 심어주신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망시키려고 작정한 이들에게 당신을 신뢰하라고 권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바람처럼 임의로 부는 그 자유로운 영은, 이제 스스로 얽매이기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는 결박 아래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확고히 매달리려는 결심을 지키고 부적절한 성향과 정동(affections)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감화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내가 이르노니”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깊이 숙고했기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단호합니까!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이성적인 기쁨의 풍성한 원천이 됩니다. 비록 감각적인 황홀경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감각적 황홀경은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에, 성령께서 그 영역에서는 자유를 유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은밀한 곳에 머물며 그 기쁨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또한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감미로움과 즐거움을 주는 신앙을 알고 그 실제적 증거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곧바로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뢰가 그분의 기쁨이 됩니다.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도다”(시 147:11). 신뢰를 통해 우리는 그분께 신적 영예, 곧 신성에 합당한 경의와 인정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력하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붙드시는 손에 의지하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후 3:5)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분은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듯 당신께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  
[1] 편집자 주: KJV 는 “I will go in the strength of the Lord GOD”로, 저자가 인용한 시편 71:16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strength) 안에서 행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2] 편집자 주: 저자는 시편 119 편의 한 구절(“Remember thy word to thy servant, wherein thou hast caused me to hope”)을 인용한 뒤, 성령의 약속과 관련된 다른 구절들(잠 1:2-3; 겔 36:27; 시 119 전체)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성경(개역개정)은 시편 119:49 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영들의 아버지”(히 12:9)라 불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영들—특히 당신을 배반했다가 그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고 이제 초대에 응하여 “보소서 이제 우리가 주께 나아가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영들—이 당신 주위로 모여들어, 새롭게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당신에게서 생명의 감화와 숨결을 이끌어내며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그 무한한 총만함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 자신의 기쁨도 오래지 않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2.] 의존에 더한 복종을 더해야 합니다. 이는 복되신 성령의 인도와 지시에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충실히 순복하여, 그 명령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지배하고 구속하는 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롬 8:2)이라는 권능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엡 4:30) 소멸시키거나(살전 5:19), 거역하여 근심하게 하거나(사 63:10), 거스르거나(행 7:5), 대적하는 일(창 6 장 참조)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옛 세상의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더 이상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전에는 다투셨음을 암시합니다. 성령께서 다투셨다는 사실은, 이제 그분이 징벌로 물러나심으로써 인간의 저항이 승리하도록 허용되었음을 뜻하며, 이는 결국 인간 자신의 갑작스러운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히 10:29) 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죄악은 그 호칭 자체, 곧 “은혜의 성령”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악함이 더욱 커집니다. 뒤따르는 내용이 암시하듯, 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복수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 우리의 영과 길이 그분의 원칙에 따라 빛어지고 인도되게 할 때, 그분은 생기를 불어넣는 감화와 그에 따르는 기쁨과 감미로움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듯 보이더라도—가령 성령을 주시도록 자주 기도하고 그 은혜로운 교제를 간절히 바라지만 얻는 것이 거의 없다고 불평한다면—그들은 자신의 불신이나 불순종, 혹은 둘 모두가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속고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영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지도, 순종적으로 따르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태와 태만에 빠지거나, 반대되는 성향에 탐닉하여 그분의 명령에 저항합니다. 다루기 힘든 고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기에, 결국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도록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마땅히 이러한 우리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능력의 모든 움직임에는 심대한 즐거움이 따르는데도 말입니다.

###

## 2. 권면

우리가 지금껏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지향하도록 인도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속고하기만 한다면, 더 할 말이 거의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충분한 초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초대를 더 받아야 하겠습니까? 쓸개나 쓴 썩, 심지어 독약 대신에 즐겁고 유익한 음식을 택하라는 논증으로 우리를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논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더 엄밀한 의미에서 설득할 내용이 많고, 그 내용이 이 목적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말을 아끼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속고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신앙의 길을 계속 갈 작정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신앙의 합리성과 필연성을 증명하는 담론들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접하는 그 어떤 담론도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 없으며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소멸할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얼마나 잘 증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를 갖지 않으려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리석게 추정하거나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생각이 끔찍하여 어떤 형태로든 신앙을 인정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당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속고해 보십시오. 모든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참으로 그토록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아무 목적 없이 신앙을 가장하는 것은 그보다 얼마나 더 낫습니까? 즐거움이 없는 신앙은 허울과 그림자, 공허한 헛됨과 조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설령 즐겁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신앙을 선택하지는 않더라도(그리고 그것을 주된 이유로 삼으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더 중요한 측면들, 즉 당신을 지으신 분께 가장 영예롭고 기쁨이 되며 당신 자신에게만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점에서 선택할 만하기에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목적들에 부합하지 못하는 신앙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신앙생활에 바치는 인생의 그 막대한 시간을, 앞서 말했듯, 아무런 의미도 설명할 수 없는 일에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그것이 실제적이든 당신의 생각 속에서든—과 당신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당신의 헛된 유희거리로 삼는 것은 두려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과 당신 영혼의 영원한 관심사 외에는 하찮게 가지고 놀 만한 것이 정녕 없단 말입니까? 이런 문제들에 쓰는 시간이 온전히 손실로 돌아가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하는 당신의 헛된 시간으로 특별히 구분되어야 하겠습니까? 즐거움이 없는 신앙은 이보다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신앙을 갖기로 하고 그 결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이 즐거운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뤄 줄 다른 신앙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길에서 당신을 돌이키려 했던 말들은 마땅히 이 길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참되고 실질적인 신앙 안에는 심오한 기쁨이 있으니, 이 사실이 당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즐거움 하나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익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신앙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본질적으로 그토록 즐겁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해 보고 그렇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증언 외에는 달리 알 길이 없다 해도, 적어도 그 증언만으로도 당신 역시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최상의 것을 알고자 갈망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나태한 기질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직접 시험해 보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가장 깊은 중심부로 들어가, 생명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파고들고 밀고 나아가, 마침내 그 비밀과 종교의 심장부를 깨닫고 당신의 마음과 하나로 합쳐지도록 해 보십시오. 즐거움을 얻으려고 실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실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서 떠나 구속주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시험해 보십시오. 자신의 지적 취향을 만족시키려 진리를 바라보거나, 관습을 지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맞추며 경건한 체하는 데 신령한 의식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과 사귀고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현재와 영원의 교체를 누리려는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겪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의무감에 찬 존경심으로 삶을 다스리는 것이, 제멋대로 날뛰는 거친 욕망을 따르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시험해 보십시오. 또한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비천하고 추잡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집이 마련한 풍성한 양식을 맛보러 들어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토록 비천하고 초라한 영성을 자처하며 종교의 문간과 바깥뜰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왜 스스로 그런 저급한 표지를 달아 구별되려 하십니까? 이 영역에서만큼은 최고가 되려는 야심이야말로 정당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스스로를 그토록 비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경건한 삶의 숨겨진 기쁨과 친밀해진 모든 이들보다 당신이 더 낮은 계급에 속하는 양, 불필요하고 부당한 겸손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분을 힘입어 용납되기에, 당신 또한 그분을 힘입어 다른 누구 못지않게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내 이웃만큼 종교의 문제에서 더 멀리 나아가려 애쓰지 않는가?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 누가 나를 제지하고 금지하는가?” 그러나 당신이 속고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즐거움을 확신시켜 줄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따져 보면, 당신의 이성과 양심이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지음받고 그분께 의존하는 이성적 피조물임을 안다면, 당신의 영이 그분과, 당신과 같은 부류의 동료 피조물들과,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향해 바르게 정립되고 감화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함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묘사되었듯, 영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 삶은 필시 매우 즐거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바로잡힌 성향에 따라 영위되는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것이 참으로 기쁨 넘치는 삶이 아니겠느냐고 당신 자신의 판단에 엄숙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판단이 그토록 즐겁다고 말하는 것에서 정작 아무런 즐거움도 맛볼 수 없다면, 당신은 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성찰해야 마땅합니다. “즐겁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아무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다니, 나는 얼마나 기괴한 피조물인가! 이 얼마나 뒤틀린 본성인가! 분명 내게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마땅히 지금의 모습이 불편해야 하고, 당신의 기질이 바로잡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될 때까지 당신의 영은 안식을 얻지 못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평생을 꿈과 잠으로 허비하시겠습니까? 경건한 삶의 과정 속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미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의 삶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대체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 여기는 그 삶에도 시작은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을 미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당신만을 특별 대우하여, 저세상을 당신의 마음이 처음으로 변화되는 장소로 삼아 주시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 여전히 죽어 있어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신적인 생명의 시작과 거기서 오는 현재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어떤 미래를 보증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그 위대한 소망의 근거를 일찌감치 확보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더는 길게 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에 관한 다른 더 엄밀한 의미의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즐거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즐거움을 종교의 다른 모든 의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어떤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엄숙하고 직접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독립된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이 계명이 종교의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대표한다는 점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실제로 이 계명은 그 이름과 더불어 종교 전체에 기분 좋은 향기와 색채를 부여하는 영향력을 지닙니다). 그렇다 해도, 종교라는 구조 전체에 그 이름을 부여한 바로 그 부분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앞서 제 1부에서 이 의무의 본질을 이미 밝혔으므로, 지금부터 할 말은 그 실천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논의로 나뉠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한 실천을 소홀히 하고 폐기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며, 다른 하나는 그 실천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두 논의는 모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즉, 그 즐거움에 대해 마음이 완전히 등지고 적대적인 자들과, 전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매우 부족하고 너무나 소홀히 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두 부류 모두 책망받아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에 속한 인류 전체를 향해 둘 중 하나의 이유로 정당한 불만을 품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 사람들에게 간청해야 합니다.

1.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이 떠난 자들, 소외되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원수가 된” 자들이며, (여기서 다루지 않을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 제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과는 가장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한 우리의 책망은 두 가지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상태가 사실 그러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큰 불의이며 악인가 하는 점입니다. (1.) 우리는 그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죄가 가장 깊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최악이 스스로에게도 혐오스러워질 때까지 자기기만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 즉 자기 정신이 이 끔찍한 질병의 지배 아래 있으며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향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진리와 권위에 경의를 표하며, 기꺼이 그 말씀으로 심판받으리라 가정하겠습니다.

1. 첫째,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보편적 상태에 대한 기록을 진실로 믿는 분이라고 전제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배교의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들이 모두 “치우쳤다”(시 14:2-3) 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평행 시편에서는 “각기 물러갔다”(시 53:3)고 표현되는데, 이는 반역했음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2).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롬 3:19)고 결론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듯이, 우리 구주께서도 유대인들을 명백히 책망하셨습니다. 분명 유대인들도 당신처럼 자신들은 이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엡 2:3)은 편지를 받는 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이 말씀이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중 어떤 이가 본질상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진노 아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토록 명백한 증거 앞에서, 당신이 스스로 인간임을 인정하는 한, 한때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상태는 바뀌었습니까?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인류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서 그런 변화를 발견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멈추고 그분의 친구가 된 바로 그 순간을 집어내거나, 그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생각의 모든 움직임을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일어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를 발견하십니까? 한때 하나님을 미워했던 당신이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는데도, 자신 안에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 할 전환이나 변화 없이 늘 그랬던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상태가 지극히 절망적이라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2. 둘째, 당신의 현재 기질을 그 자체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분을 향한 우호적이고 충실한 애착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분명 당신에게 사랑과 미움은 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단호하게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미움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꺼리고, 그에 대한 기억을 미워하며, 생각에서 그를 몰아낼 것입니다. 당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하나님의 원수)은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시 10:4)는 말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지옥에 던져질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시 9:17)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혹은 마음의 습관적인 성향에 따라 그분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상태가 아닙니까? 당신이 마음만 먹었다면 무엇이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당신은 친구들을, 혹은 적어도 악의를 품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잊습니다. 항상 생각 속에 머물러 주기를 기대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떠올리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현재 친구를 떠올릴 만한 계기가 없을 때 멀리 있는 친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중 누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오히려 당신은 매일 눈앞에서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충분한 증거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작품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고, 당신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으며, “당신의 호흡은 그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친구에게 이토록 의존하며, 그토록 큰 빛을 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대화할 기회가 없는 친구들은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까? 어떤 친구도 자신을 많이 생각해 달라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성향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애써 한다고 해서 친구의 임재를 얻을 수는 없지만, 가장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악의를 품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악의를 품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한 번도 알지 못했고 아무런 관련도 없던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오직 악의에서만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당신에게 교제를 청하시고, 당신과 사귀기를 구하고 초대하시며, 당신이 내면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지식 속에서 그분을 간직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과의 교제를 구하는 분을 당신이 피하는 것은 오직 악의와 비뚤어진 기질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자주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을 당신은 알아차리려 하지 않습니다. 길모퉁이마다 당신을 만나 당신의 눈길을 끌고자 애쓰지만, 단 한 번의 눈길도 얻지 못하는 분을 당신은 외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곁을 지나가셔도 당신은 그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지만”, 당신은 그분과 그분의 길을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명백한 적대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주 실제로 기뻐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기질이 배은망덕하고 그의 성향과 방식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에게 반감을 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태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지닌 순결함과 거룩함, 그분의 모든 사악함에 대한 혐오, 불결한 것은 무엇이든 가증히 여기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에 내재한 바로 그 속성에 반감을 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본성이기에, 그 속성을 싫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감, 곧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반감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과정 전체가 바로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명백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를 바라는데, 이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예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곧, 그런 일이 실현된다면 마음 깊이 기뻐하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적의를 품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거짓이 있다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분이 속일 리 없다는 가장 강력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보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결코 그분을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 당신은 반감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이름의 소리 외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그분께 말한다고 말하는 어떤 일에 관해 당신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까?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악한 성향을 제어해야 할 때, 그 신뢰가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성향을 억제합니까? 당신이 보지 못한 미래에 관한 그분의 증언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데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익이나 위험을 경고하는 평범한 사람의 말이 당신에게 더 가치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나 구실 없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은 뿌리 깊은 적의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까닭 없이 늘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이며, 아버지나 주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태도입니까? 이 점에서 당신은 복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스스로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꺾는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괴롭히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 분 안에서 즐거움을 느낍니까? 그분께서 당신보다 위대하고 지혜로우며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분께서 분명히 밝히신 뜻이 당신 자신의 성향과 어긋날 때면, 마치 당신의 자녀나 노예나 어리석은 자의 말처럼 여기며 전혀 존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구속주이자 주님이신 그분을 향한 충성스러운 애정의 척도이자 본질을 보여주는 다음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당신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알려진 뜻을 거리낌 없이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절제하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인내하라는 것이 그분의 뜻임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이러한 일들에서 그분께 순종하고자 힘쓰니까? “주님, 주님을 위하여 제 마음이 끌리는 것들을 삼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금지 명령이 당신 마음에 어떤 제동력을 발휘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줄 알면서도 스스로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허영에 차고, 교만하며,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며, 그분 안에서의 즐거움입니까?

그분의 수치와 불명예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분을 욕되게 하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 분에게 당신은 호의를 품고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분의 친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며, 그분의 원수는 당신의 친구입니까? 당신은 그분의 호의를 구하지도, 그분께서 언짢아하시는 것을 개의치도 않습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짐스러워 기도하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분과의 사귀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 마음의 기질을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말해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습관적인 혐오와 적의를 드러내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아마 당신은 이 말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당신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 여겨지는 많은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 여기면서 당신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처지가 나아질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임을 증명한다면, 그 증명은 당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뿐이며, 당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의 법을 어느 정도 어길 때(그들은 때가 되면 이 사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기꺼이 책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죄된 연약함을 방패 삼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옹호하지 않는데, 그들의 약점이 당신에게 가치 있는 방패가 되어 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언제 그들처럼 이러한 문제들로 자신의 마음을 꾸짖고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압도적인 반대 성향들,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즐거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훗날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과 완전히 부재하는 것의 차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불완전하게나마 살아 있는 것과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나아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 안에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 마음의 시야에서도 벗어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분 안에서 전혀 즐거움을 누릴 수 없으며, 따라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금껏 제가 당신을 책망해 온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존재의 지극히 탁월하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감각적인 것들에서 얻는 즐거움과는 다른, 더 깊은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은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육체와 감각에 빠져 자신에게 이성적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이기보다 차라리 짐승의 부류에 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감히 내놓지 못할 변명입니다.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 중에는 이미 본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 전혀 없다는 듯, 또는 우리에게 육신의 눈 말고는 볼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아예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악하고 죄된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제 인정된 셈이니, 당신은 첫 번째 방어선에서 물러선 셈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 또한 죄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두 번째 방어선이라 할 그 지점에서 버티면서 그 죄의 악함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논박은 그곳까지 당신을 따라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증명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논증에 귀를 기울이고 다음의 사실들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본성 안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즉, 당신에게는 본성적으로 무언가에 즐거움을 느낄 힘이 내재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요구되는 행위는 당신의 본성에 맞지 않거나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당신의 즐거움이나 사랑은 당신이 아는 어떤 선을 향해야 하며, 당신이 선하다고 아는 것들 중에서는 그 선함의 정도에 비례하여,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선을 향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십니까? 더 나아가, 당신은 복되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선이심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첫째가는 선이요 모든 선의 원천이시며, 가장 충만하고 포괄적인 선, 가장 순수하여 전혀 섞임이 없는 선, 가장 불변하며 영원한 선이십니다.

이 얼마나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입니까! 만약 그러한 최상의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이 선하거나 애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는 당신의 감각이 알려주는 그 어떤 사실만큼이나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창조 세계의

영광스러운 탁월함,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즐거움은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 아니 그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이 본래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숙고한다면 당신은 이 사실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양심은 당신이 이 문제에서 의롭게 행하지 않는다고 고발하며 심판하지 않습니까? 또한 당신이 최상의 주권적 선 안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당신의 영혼이 공포로 가득 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당신이 반감을 품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누릴 수도 없음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이 타고난 능력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성향의 결여 때문임을 발견할 때, 당신은 놀라움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분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나의 가장 높은 즐거움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최상의 선임을 나는 확신하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은 그분을 기뻐하지 못하는가!" 당신은 "내 마음에 그런 성향이 없으니 나는 면책된다. 나는 극복할 수 없는 반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토록 그릇된 성향을 지녔으니,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강하고 선을 혐오할수록 더 사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반감이 극복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합당한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얻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 길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꾸짖음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영을 부어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불러도 거절하며 손을 내밀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의 모든 책망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때에...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잠 1:23-29 참조).

이러한 사악함은 그 결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그로 인해 은혜의 영, 곧 모든 사랑과 감미로움과 선함의 근원이신 그 자유롭고 인자하며 자비로운 영께서 버림받은 영혼에게는 단호한 이방인이 되어 버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먼저 자신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분을 생각에서 내쫓고, 당신의 생명과 존재의 샘이시며 당신의 모든 소망이 그분 안에 있는데도 그분을 대적하여 마음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이

마음의 악성이 최종적으로 극복될지 아닐지는 별개로 하고(이 문제에 생명이 달려 있음을 깨닫고 마땅히 그래야 하듯 기다리고, 힘쓰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극복될 수 있으니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극복하기 어려울수록 더욱 사악하고 고질적이라는 점에서, 이 악의가 얼마나 두려운 수준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반감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당신은 그것의 직접적인 경향, 그것의 본성적 속성, 즉 그것이 자체적으로 무엇을 낳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고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사랑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문제를 그 보편적 본질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물의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것은 이성적 욕구와 최상의 선 사이의 결속을 산산이 부수고 깨뜨리는 것이며, 하나님 피조물 중 가장 선하고 고귀한 부분을 그 자리와 안식처, 본래의 기반과 중심에서 떼어 내고 탈선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운 파열입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탈선입니까! 설령 당신이 온 우주의 질서정연한 구조를 산산조각 내고, 자연의 틀을 극도의 혼돈으로 되돌리며, 모든 피조물의 등급과 질서를 교란하고, 하늘을 찢고 단단한 땅을 해체하며, 하늘과 땅을 뒤섞어 세상을 그저 거대한 폐허 더미로 되돌린다 해도, 피조물과 그의 창조주 사이의, 아니 만물의 창조주와 그분의 가장 고귀하고 탁월한 피조물 사이의 근원적이고 최상위의 유대를 끊는 것만큼 큰 파괴를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피조물들 사이의 모든 관계와 적성과 성향은 그들의 공통된 창조주이자 주님과와의 관계에 비하면 부차적이고 종속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것의 타락이야말로 최악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사악함입니까! 자신의 근원을 미워하다니! 자신의 생명과 존재의 가장 관대하신 근원을 향해 반감을 품다니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보는 것조차 싫어하고 당신과 함께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혐오한다면, 특히 당신이 단 한 번도 그럴 만한 빌미를 준 적이 없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늘 친절하고 너그러웠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했다면, 그 아들을 땅이 아까운 패륜아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에 기여하신 바에 비하면, 당신이 아들의 존재에

기여한 바는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습니까! 당신의 창조주께는 당신이 감히 내세울 수도 없는 무한한 탁월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당신이 그 아들보다 본성적으로 탁월한 점이 얼마나 적습니까! (이 불행한 성품을 제외하면, 어쩌면 그 아들이 여러 면에서 당신보다 훨씬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에 대해 무슨 구실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위해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중 어떤 일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언제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끄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셨습니까? 그런데도 ‘영들의 아버지’라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당신의 영이 그토록 완고하게 등 돌리는 것은 지극히 사악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꼭 들어맞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신 32:6).

당신이 만약 당신 자신을 미워한다면—물론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기 미움이나, 당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정당하고도 두려운 자기 혐오와는 다른 의미에서 말입니다—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미워하며 날마다 스스로를 파괴할 계락을 꾸민다 해도, 이처럼 사악하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보다 더 당신에게 가까우십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품는 자연스러운 사랑과 그 사랑이 샘솟는 본성 자체는 그분에게서 온 것이며, 그분께 종속되어야 합니다. 더 상위의 자연법에 따라, 그분이 실제로 요구하신다면 당신의 생명조차도 그분을 위해 희생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향한 당신의 증오는, 설령 그 증오가 가장 직접적이고 무자비하게 당신 자신을 향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비할 수 없이 부자연스러운 죄악입니다. 또한 당신은 그분을 미워함으로써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미워하는 셈입니다. 그분을 향한 그 사악한 마음의 본능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은 당신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하신 그분에게서 스스로를 끊어 내고, 당신의 영원한 소망을 날려 버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잠 8:36).

나아가, [3.] 이것은 가장 포괄적인 죄악이며, 다른 모든 죄악을 그 안에 온전히 포함합니다. 사랑의 율법이 모든 의무를 아우르는 보편적이고 요약적인 율법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하고 그분을 위해 행해져야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 역시 모든 죄를 포괄하며,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이 반감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동안, 모든 율법의 의무를 파기하고 무효로 만들며, 모든 율법이 만나 하나로 묶이는 그 결속점 자체에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반역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반감을 품고 있다면, 설령 자랑할 만한 절제, 정의, 자선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보이는 존중 때문에 당신을 높이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신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존중도 보이지 않음을 아시는 그분께서도 당신을 높이 평가하시겠습니까?

[4.] 이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그분을 거스르는, 지극히 모독적이고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모욕과 불경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의 가장 합당한 대상으로 만들어 주는 그분의 모든 탁월함을 실천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분은 선하지도, 거룩하지도, 지혜롭지도, 정의롭지도, 진실하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은 깊이 생각한 결과가 아닐 수 있고 다음 순간 바로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정해지고 일관된 삶의 방식은 그 바탕에 깔린 인식이 확고하며, 그것이 영혼에 자리 잡은 습관적인 판단임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당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즐거워하므로”, 당신 마음의 한결같은 판단이 실은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임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의 즐거움과 사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자신과 깊이 대화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실상임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떨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는 피조물을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는 없다. 친구에게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내 마음의 본성이 그리스도보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마 10:37; 눅 14:26 참조)고 진실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자신의 명백한 말씀에 따라, 당신은 그분께 합당하지 않으며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당신은 이 저급하고 더러운 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죄악의 동료들과 어울리는 데서 더 큰 기쁨을 얻고, 선술집의 주정뱅이나 음란하고 방탕한 자, 경건을 조롱하는 불경한 자와 함께하며 더 큰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치하는 자들과 어울려 흥청망청하고 술 취한 자들과 먹고 마시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죄짓기를 즐기면서도,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속 생각을 이마에 써 붙이고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친구, 친척, 이 비천하고 사라질 세상, 나의 사악한 동료들, 나 자신의 더러운 정욕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이 내가 확신하는 실천적 판단이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당신 마음의 끄찍한 사악함을 아직도 보지 못하십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해롭지 않고 순진한 피조물이며,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출골 양심을 거스르고 있음을, 당신이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그분을 미워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당신 영의 본성이 당신의 신앙고백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 배신적인 거짓과 허영을 통해 거짓된 입술로 증오를 감출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숨기려 하는 그것, 즉 죄짓기는 꺼리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알려지기는 몹시 두려워하는 그것이야말로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알려지기를 그토록 꺼리면서, 어찌 불꽃같은 눈으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며, 당신의 완고한 영이 얼마나 집요한 반감으로 그분과의 사귄 대화와 대화를 거부하는지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영광스러운 주권자, 당신의 반감 품은 마음을 아시는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은 죄가 작은 허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저 위대한 심판의 날에 이 죄가 사소한 잘못으로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든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당신이 평생 거짓되고 불충한 마음, 곧 온갖 방식으로 기쁘게 섬기고 사랑으로 매달려야 했던 주권자 주님께 악의와 적의를 품었음이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유죄로 확정될 때, 당신의 마음이 과연 견뎌내고 두 손에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생기고, 당신이 평생 마음으로 그분을 떠난 자들 중 하나로 지목되어, 당신이 유일하게 즐거워했던 저 끄찍하고 저주받은 무리에게 버려질 때, 정녕 당신은 자신의 죄가 작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2.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하늘의 체험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자주 외면하며 이 일이 요구하는 영혼의 꾸준함과 진지함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들로 하여금 이 태만에 포함되거나 그와 연관된 악들을 숙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들은 태만이라는 본래의 악에 더해져 그 죄를 가중시키며, 태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1)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삼는 이들은, 거룩한 실천의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태만에 어떤 악이 담겨 있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악이 얼마나 나쁜지는, 우리의 실천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익숙한 기준들, 즉 이성과 정의에 따라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고 책망하는 잣대들과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율법, 양심, 체험, 은혜로 말미암은 의무, 언약, 관계, 신앙고백, 새로운 본성의 성향, 하나님의 영의 지시, 그분 계획의 과정과 목표 같은 것들입니다. 이 태만은 이 모든 것과 심각하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이 태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정면으로 배치되는지요! 이는 단지 기록된 명시적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본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불변하고 영원한 율법에도 어긋납니다. 이 율법의 구속력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본래 우리 본성에 부여된 성향과 일치한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친히 이 성향을 정해주셨으므로, 우리의 성향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속력의 근본 이유는 — 복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 뜻의 모든 결정을 이끄신다고 보아야 하기에 — 그 일 자체가 지닌 자연스럽고 불변하는 적합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변치 않는 적합성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의무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우리 본성에 그에 걸맞은 성향들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나 상황에만 적합하여 한시적으로만 의무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임시적 용도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으로 충분했고, 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율법(여기에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은 분명히 전자에 속합니다. 이성적 피조물이 존재한다면, 그가 즉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것이 그러한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율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에 새겨진 본래의 각인이 희미해져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들을 새롭고 더 명백하게 실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머리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 자리한 것입니다. 만일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이는 이름뿐인 신을 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께서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이 율법이 명하는 바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다른 모든 의무의 생명이요 영혼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도록 명령받은 다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거기서 나오지 않은 행위의 도덕적 선함은 태양에서 끊어진 빛줄기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이 계명과 (그와 같고 또한 이 계명에 의존하는) 다른 계명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알며,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진 당신이 이토록 크고 본질적인 의무를 감히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옷단에 술을 달라는 명령이나 세마포와 양털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명령과는 다릅니다.[1] 물론 그 명령들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면 매우 불충한 일이었겠지만, 이것은 율법의 위대한 조항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것이요, 모든 의무가 그 생명과 호흡을 의지하는 의무입니다. 다른 모든 실천을 관통하며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이 의무가 당신의 실천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습관적인 원리 안에 죽은 듯 묶여서, (아주 드물게라도) 행동과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마땅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행하려는 성향을 품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올바른 성향이라면 마땅히 그에 걸맞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실천이 없다면 그 성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동일한 용어로, 또는 명백히 같은 뜻을 지닌 용어로 이 율법이 그토록 자주 명령되고, 그 실천이 승인과 함께 언급되며, 그 태만이 혐오감과 더불어 질책받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이토록 명백한 율법을 소홀히 했습니까? 어떻게 성경 책장을 넘기면서도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와 같은 말씀을 자주 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2] 것처럼 거듭되는 권면에 당신의 실천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응답해야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신앙에서 이토록 중차대한 부분이며 마땅히 평생의 과업이 되어야 할 일을, 이따금 우연히 생각날 때 한 번씩 행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까? 이 점에 있어 당신이 불순종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깨달을 때, 당신 마음이 어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1] 레위기 19:19; 신명기 22:11

[2] 시편 33:1; 118:24; 149:5; 하박국 3:18; 빌립보서 4:4; 데살로니가전서 5:16; 요한계시록 19:7-8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해진 경배를 요구하실 때, 곧 그분을 당신 영혼의 최상 즐거움이자 위대한 위안과 안식처로 인정하고 소유하기를 바라실 때, 당신은 이 문제에 관한 그분의 권위와 권리를 거의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당신의 유익과 만족, 기쁨이 온전히 달려 있는 바로 그것을 자신의 명령과 요구의 내용으로 삼으셨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의 행실이 이 점에서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그것이 죄임을 보여주며, 이토록 위대한 율법을 어겼다는 점은 그 죄를 심히 가중시킵니다. 이 율법은 지극히 중요하여 많은 것이 여기에 달려 있고, 너무나 명백하여 사물의 본성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설령 이 경우에 다른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의 탁월함만으로도 당신에게 율법이 되어 의무를 일깨우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율법을 소홀히 한 것은 크나큰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당신은 자신의 양심이 따라야 할 규칙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그 양심이 앞서 말한 최상의 율법, 곧 왕의 법과 명백히 일치할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당신은 이 점에서 양심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어쩌면 잠자던 양심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지금, 그 양심을 거스른 죄를 깨닫지 못합니까? 이는 의심스럽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런 사안들에 너무 마음을 쏟느라 정작 이 일을 소홀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천지의 주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는지, 그분을 당신의 분깃으로 택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구하며 그분께 즐거움과 사랑을 두어야 하는지를 두고 주저하며 양심의 문제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토록 명백한 사안에 대해 당신의 양심이 가책을 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양심을 그토록 안일하게 잠재우고 그 본연의 직분과 역할을 일깨우지 않음으로써 양심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한 양심의 빛을 거스르는 죄는, 단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어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바와 그 지식에서 마땅히 나왔어야 할 생각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미 아는 의무를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양심을 거스르는 가장 흔한 죄의 방식입니다. 그분입니까? 당신은 이 점에서 양심의 거듭된 견책을 수없이 거스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보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분 안에서 얼마나 적은 즐거움을 누렸는지 수시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저 관례적인 형식이나 입에 발린 말뿐이었습니까? 분명 그럴 때마다 당신의 양심은 (비록 충분히 절박하지는 않았을지언정) 당신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길을 계속 걷는 것을 두려운 일로 여겨야 합니다.

셋째, 다른 문제에서 그러하듯, 당신의 체험 또한 교훈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교훈을 거스르지 않았습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달콤함을, 그리고 앞서 언급한 양심을 통해서 그 행위의 공정함과 합당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이 그분 안에서 위안을 얻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간 중 한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보낸 천 시간보다 낫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시 73:28) 자신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하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시 65:4)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맛보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또한 당신은 그분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쓰라린 일인지도 맛보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위 규칙인 율법이 당신을 속이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줄 때, 자신의 감각을 거스르는 것은 죄를 크게 더하는 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이들을 장성한 자, 곧

온전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신의 감각이 이끄는 바를 따를 의무를 명백히 부과하지 않습니까?(히 5:14)

넷째,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당신에게 지운 막중한 의무에 대해서는 무어라 답하겠습니까? 그로 인해 그분께 사랑과 즐거움을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의 사랑을 업신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그 의무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했습니까? 어리석은 벌레 한 마리에 불과한 당신의 사랑 말입니다! 사랑의 문제에 있어 그토록 앞서 행하신 분, 곧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다시 사랑해야 할 의무가 당신에게 있지 않았습니까?(요일 4:19) 첫사랑은 전적으로 자유롭지만, 그에 뒤따르는 사랑은 명백히 의무가 되며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됩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다채롭고 강력한 증거로 자신을 드러내고 입증했습니까? 그 사랑은 당신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당신 위에 머물며 기쁨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그토록 아끼셨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고자 특별한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사 62:4). 그분은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습 3:17).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시 149:4), "옛적부터 그의 즐거움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느니라"(잠 8:31). 그분께서 당신과 같은 자를 기뻐하실 수 있는데, 당신은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 사실에 경탄하십시오! 그분께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습니까! 반면 당신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은 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매혹적인 분입니까! 그분 안에는 탁월함과 사랑이 결합되어 있지만, 당신 안에는 추함과 악의가 뒤섞여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사 많은 것을 용서하셨고, 당신을 위하고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으니,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기쁨의 아들이신 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되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선을 구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당신의 번영을 기뻐하시고, 즐거이 당신을 향해 사랑의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행복을 계획하셨고, 피, 곧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려 당신의 평화를 이루셨으며, 당신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평생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며, 당신의 짐을 대신 지시고, 당신의 슬픔을 덜어 주시며, 당신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 모든 일 후에도 너는 내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 말씀이 당신을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간절히 애쓰셨고 마침내 성공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에 가치를 두시는 듯했으며, 어느 정도 그 사랑을 얻기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권적인 위엄이 죄 많은 티끌을 낮추시고 높이심에 따라 그분과 당신 사이에 사귄다와 우정, 어떤 친밀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인 냉담함과 거리감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울리지 않으며 부적절한 일입니까

마음속에 그런 손님을 모시지 않은 것보다, 모셨다가 내쫓는 것이 더 무례한 일입니다.

[5.] 이러한 태만은 당신이 엄숙한 서원과 약조로 스스로 맹세한 바와 얼마나 정면으로 배치됩니까!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자신의 율법을 언약의 형태로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묶으시고, 그들(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로부터는 약조를 받으십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조항을 정하고 손수 지으신 작품과 약정을 맺으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앞서 언급했듯, 그분의 첫째이자 가장 큰 율법(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을 포괄합니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 말씀을 언약의 요체이자 총괄로서 자주 선포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당신은 여기에 동의했고, 그럼으로써 (우리 구주께서 첫째이자 가장 큰 계명으로 풀이하신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당신의 태만이 이 서원과 과연 부합합니까? 온 영혼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서약해 놓고, 정작 그분 안에서 기쁨을 거의 찾지 못하는데 이 둘이 어찌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마음은 잘못을 깨닫고, 당신이 (불친절했을 뿐 아니라) 진실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다니요! 속이는 자를 속이는 것은 혹 용납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나, 진리의 하나님을 그처럼 대하는 데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분께 서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려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약과 자비를 영원히 지키시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토록 경솔히 여기는 것은 얼마나 부적절한 일입니까! 변덕스럽고 믿지 못할 사람을 대하듯 그분을 희롱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언약에 합당한 엄숙함과 진중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전 5:4).

[6.] 이러한 태만은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비롯되는 관계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언약으로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은 그분의 것이 됩니다. "내가 너와 언약하여 네가 내게 속하였느니라." 언약은 양편을 모두 구속하므로 관계는 상호적이며, 따라서 그분 역시 당신의

것이 되십니다. 이 관계는 인간관계 중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 빗대어 표현될 만큼 지극히 친밀합니다. 그러니 『아가』가 그에 걸맞은 상호 간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가득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는 관계란 얼마나 큰 속박이며 부조화이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분이 당신을 두고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한다고 공언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분이 후회하신다면 당신은 어떤 처지에 놓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다니! 이 얼마나 이상하고 어색한 일입니까! 당신은 그분을 이방인이나 무관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분이 당신에게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분 자신의 탁월함은 마땅히 기쁨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물며 당신은 그분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내게 속하였구나." 마음에서 넘쳐나는 사랑과 기쁨 없이 그저 입으로만 그런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7.] 당신이 일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 당신 마음의 기질과 행위는 당신의 신앙고백과 얼마나 충돌하며 어긋납니까! 설령 당신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로 명백히 고백하지는 않는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그분께 속한 자로 공언하며 그렇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당연히 요구하는 바는 오직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즐거움을 통해서만 응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고백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함축합니다. 주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한,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최고 즐거움으로 고백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에 대한 즐거운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아무런 기쁨 없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당신 영의 태도가 대개 낮설어하고 꺼리는 것이라면, 어찌 그분이 당신의 최고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향한 실제적인 즐거움이 완전히 끊어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로 기꺼이 여겨지시겠습니까? 그런 때에 당신 마음의 기질이 남에게 알려진다면 부끄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당신의 고백 밑바닥, 그 가려진 이면에는 위선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고백에 상응하는 애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고백이야말로 순전한 위선이요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적으로 악하고 타락했지만 남들이 모른다는 사실에만 위안을 삼는 마음을 숨기고 위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마음은 온종일 세상과 허영으로 가득하며, 비천한 대상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만족, 기쁨, 희망이나 혹은 근심, 두려움, 불만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 역시 그것들이 비롯된 대상들만큼이나 비천하고 저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엇보다 그분을 기뻐하는 자라는 가면 아래 교묘히

숨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이겠습니까? 혹 당신이 이제껏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이라곤 그분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평판뿐이었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소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고백이 전적으로 거짓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지라도, 마음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어떤 원리가 여전히 자기 안에 있어 그분을 향한 관심이 살아 있고 유지된다고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그것을 의미하는 한, 그것은 실재하는 무언가를 가리키므로 거짓 고백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답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신앙고백이 본디 의미하고 또 당신이 의도했던 바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까? 분명 당신의 고백은 습관적인 성향 이상의 것을 의미하도록 의도되었고 또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데 합당한 행동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으며, 당신 역시 그것이 다르게 이해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고백이 진실 이상의 것을 말하거나 암시했다면 그 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이 참이라고 여기는 그 부분조차 과연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그분을 향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합당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도 말합니다. 습관이란 그 행위의 빈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돌밭의 비유나 히브리서 6장 4절이 암시하듯, 하나님을 향한 어설픈 마음이나 일시적인 기쁨에 찬 움직임이 수포로 돌아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의 희망과 안전은, 하나님에게서 현저히 멀어져 있음에도 마음이 대체로 건전하고 올바르다는 가정보다는, 회개하고 돌이켜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달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대상과 이 논의의 목적을 고려하여, 당신이 이처럼 심히 태만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을 지닌 새로운 원리, 곧 거룩한 본성이 당신 안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자 합니다. [8.] 당신이 이 복된 실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그 새로운 본성의 경향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동안(하나님을 향한 이 즐거운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도 마음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당신의 신앙고백이 상당 부분 거짓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변명 자체가 당신의 죄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정말로 그런 원리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목표로 삼고 그분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다는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닮아 그분의 살아 있는 형상이라는 점 때문에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정녕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궁극적 목적이요 안식처로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속성은 갈망을 통해 그분을 향해 나아가, 즐거움 가운데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이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믿음은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을 원리로 삼아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 행하는 위대한 능력이며, 사랑은 영혼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영혼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사랑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 그분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 동일한 거룩하고 은혜로운 본성은 (그 위대한 근원이시자 원인자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이 움직임과 안식 모두를 지향하며, 후자를 위해 전자를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복과 그분을 향한 헌신을 위해 특별히 형성된, 영혼 안의 새 피조물의 활동을 통해 그 열망과 움직임, 그 맥박 자체가 이 방향을 향해 숨 쉬고 나아가며 고동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데 당신의 영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거슬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선한 성향을 죽이고, 헐떡이는 당신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내쉬려는 숨을 억누르고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의 몸 대신 새 피조물을 부지런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려는 무언가가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왔으며 그 혈통과 유래로 인해 거룩함으로 가득한 그 신적인 것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바라듯 진정 그러한 것이 당신 안에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고동치고 나아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 잡은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비록 자주 드러나지는 않지만, 때때로 그 성향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미천한 피조물들도 잠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들의 가장 뿌리 깊은 기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그들은 행동과 움직임과 추구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새로워진 영혼에게도 잠든 듯한 시기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 거의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영혼은 때로 그분을 꿈꾸거나, 적어도 잠과 깬의 경계에서 그분을 느낍니다. “나는 자나 내 마음은

깨어 있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로구나”[아 5:2].) 그러나 당신이 더 깨어 있는 시간에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찾고 갈망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감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주의 기념하는 이름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이니이다”(사 26:8).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단어가 의미하듯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라”(시 27:4). 이 드러난 성향을 관찰할 때, 당신은 너무나 익숙해진 삶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억누르고 저항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신적인 탄생은 합당한 양식을 요구하며, 주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이 재와 바람과 헛된 것을 먹게 하려 하십니까? 혹은 (가장 좋은 부모를 두었으되 몹시 나쁜 유모를 만난 탓에)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전갈에 쏘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 상처는 단지 그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이 신적인 창조물의 바로 그 근원자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행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다음을 덧붙입니다. [9.] 그것은 은혜의 영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분의 지시가 여기서 무시되고 저항받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 새 피조물의 성향과 뜻을 같이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피조물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유지되며, 그 존재와 속성과 모든 활동에서 계속해서 그분께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 영혼의 성향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성령 자신을 더욱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즐거움으로 이끄는 기질은 가장 명백하게 그분께 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기질 자체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 기쁨”(롬 14:17)이며,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갈 5:22)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짐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것처럼 위대한 행위자에게 어울릴 법한, 감지할 수 있는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갖추고 지시하시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연의 방식을 많이 모방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적 존재가 보존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 1 원인이 하위 원인들과 협력함을 확신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적인 영향력은 감각으로 느낄 만한 영광과 함께 전달되지도 않고, 무엇이 상위 원인에서 비롯된 영향이고 무엇이 하위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간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이성과 믿음이 확실히 보증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의 작용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을 맞추시며, 우리의 본성에 적합하게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매우 뚜렷한 표지를 통해 어느 움직임이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항상 구별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영적인 선을 그분께 돌리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선한 생각 하나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마음의 움직임을 판단한다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성령의 역사로 여기고 무엇을 그렇지 않게 여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그 방향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우리는 즉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만지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신이 내버려 둔 육욕과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억누르고 맞서 싸운, 그런 경향을 띤 생각이나 마음의 움직임이 당신 안에서 전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까? 바로 그럴 때 당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킨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당신을 압도하여 마땅히 당신의 의무로 알아야 할 바를 행하도록 이끌지 못하시고, 당신의 완고함 때문에 물러나 떠나셨다 해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중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그만두셨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에게는 더 두려운 숙고의 대상이며 더 신랄한 책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자유로운 행위자, 곧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철회될 수 있으며, 그것이 철회될 때 당신은 이를 그분을 향한 당신의 불충하고 무심한 태도에 대한 노여움의 표시로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즉 당신은 넓적다리를 치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신의 인도와 통치를 그분께 맡겼음에도, 그분이 직무를 수행하실 때 저항했습니다. 당신은 자비로운 인도자와 다투고 불화했으며, 그분의 권위와 사랑을 동시에 멸시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같은 이들을 위해 이 영역을 맡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분의 영을 일하게 하셨을 때, 이는 가장 지혜로운 경륜의 결정에 따른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일을 행함으로써 그 계획의 진행과 진척을 직접 가로막았으니, 이 죄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10.] 그 계획이란 다름 아니라 당신을 복된 상태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은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바이며, 그분은 이 계획을 매우 명백하게 드러내시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즐거움을 그분께 두라는 제안 자체가 그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분께서 가장 높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이 복을 받게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알려진 계획이 당신에게 규범을 제시하고 법을 주는 것으로 여겼어야 마땅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간절히 의도하는 계획이 나나 다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음을 알 때 그 계획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실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상적인 해석에 따를 때 무례함을 넘어, 악한 본성과 해로운 기질을 드러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물며 상급자에 대한 의무와 정당한 순종은 그를 거스르지 말 것을 요구하며, 잘 훈련된 영이라면 경외심을 품고 복종하며 순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알려진 계획에 완강히 저항하는 것은—그 계획이 이토록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참으로 고약한 기질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는 까다로운 고집, 그분에 대한 불충과 배은망덕, 우리 자신에 대한 태만과 무관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히 형언할 이름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마음이 다른 데 사로잡혀 헛되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맞물려) 어떤 악을 품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잠시 멈추어 숙고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을 척도 삼아 공정하고 냉철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가장 중대한 사안에 대한 명백한 불복종입니다. 당신 자신의 양심의 심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아주 명백한 경우에 빛을 대적하는 심히 담대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체험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훈을 받지 못하는 우둔함, 혹은 심히 부주의하고 잘 잊는 영을 드러냅니다. (다른 많은 길은 차치하고라도) 바로 이 권고와 제안의 친절함이 부과한 의무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한 지독한 배은망덕과 무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의 없음입니다. 당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심한 부조화와 부당함입니다. 당신의 신앙고백에 비추어 보면, 거짓과 위선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새 본성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본성을 거스르는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비추어 보면, 극심한 완고함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그분의 알려지고 선포된 계획에 비추어 보면, 그분에 대한 가장 불충한 무례이며, 동시에 당신 자신의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가장 비참한 무관심입니다.

더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심히 큰 죄악됨을 밝히기 위해 이토록 명백히 떠오르는 생각을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십시오. 이 죄는 그 자체로 심히 악할 뿐만 아니라, (2.) 그 매우 결함 있는 원인들로부터 많은 악을 파생시킵니다. 이 죄는 자신에게로 흘러 들어와 자신을 낚는 거대한 악들을 전제하며 또 증명합니다.

[1.]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맹목과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기쁨과 사랑이 그 사람 안에 확고한 자리를 잡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과연 변명될 수 있거나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의 말씀이 여기에 너무도 잘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전 15:34).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을 알지 못합니까? 그토록 자주 예배하면서도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분을 알 기회가 그토록 많았음에도 여전히 무지하던 말입니까?

적어도 그분께서 자신의 성막과 거처를 두셨던 ‘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이 크시도다’(시 76:1-2)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분의 제단이 아테네의 제단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명문을 품고 있지는 않으리라 기대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얼마나 명백히,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드러내셨습니까! 그 드러내심 가운데 즐겁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면에서 그분이 온전히 사랑스럽게, 말하자면 즐거움으로 구성된 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는 구원과 찬양의 옷을 입으신 그분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매혹적인 모습으로 계신 그분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는 그분의 모든 속성이 화해의 계획에 가시적으로 부응했고, 그분의 무한한 생명과 사랑의 총만함은 그 어떤 속성에도 방해받지 않고 풍성하고 아낌없는 사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마땅히 보아야 할 그 영광스럽고 감미로운 빛을 차단하지만 않았더라면,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영원한 즐거움과 사랑으로 그분께 묶어 둘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더 잘, 그리고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알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엡 4:18)은 마음의 완고함, 곧 스스로 선택하고 꾸며낸 자발적인 맹목에서 비롯됩니다.

혹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지 않다 해도, [2.]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을 거의 마음에 두지 않았음을, 적어도 아는 만큼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문제에 있는 당신의 큰 결점이 여러 면에서 그분을 향한 즐거움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피상적이고 덧없지 않았습니까? 깊이가 없고 우연히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물처럼 흘러가고 정처 없이 떠돌아 그분께도 당신의 마음에도 고정되지 않는 생각은 아니었습니까? 이는 악인을 묘사한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시 10:4)는 말씀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생각의 한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고, 그분은 생각의 중심에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혹 지금 당신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쩌다 한 번 서둘러 그분을 힐끗 쳐다보거나, 방황하는 눈으로 무심코 시선을 던졌을 뿐입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변치 않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주를 기억하나이다”(사 26:8)라는 고백처럼, 당신은 마음의 갈망과 기우는 뜻에 따라 그분을 향하도록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다듬어 그분을 생각하곤 했습니까? 그분께서 보석처럼 여기시고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의 특징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한 것은 그분께서 기억하실 만한 가치가 있었고, 결코 잊히지 않을 기록으로 남겨졌음을 주목해야 합니다(말 3:16-17). 당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죄는 그분을 소홀히 생각한 데서 크게 가중됩니다.

둘째,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낮고 천박한 생각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출 15:1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와 같은 경탄 어린 생각과 당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이와 얼마나 달랐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죄에 더하여, 그분을 가치 없게 생각함으로써 그분의 신적 탁월함을 형언할 수 없이 깎아내렸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큼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단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은 것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가치가 없는 분인 양 스스로에게 만들어 버린 죄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뒤흔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당신의 생각은 가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본성과 계획, 길과 사역을 오판하고 견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현세에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 방식에 대해, 당신이 호의를 베풀기 원하는 자에게는 너무 인색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 후하시다는 듯 불만을 품고 비뚤어진 논리를 펴지는 않았습니까? 거짓된 잣대로 그분의 사랑과 미움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맞서는 주된 악이 바로 이것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 명령에 맞서고 그것을 압도하여 배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하나님을 거의 즐거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께서 듣기 괴로워하시는 생각, 즉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말 2:17)고 여기면서 마음속으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인간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시는 그분의 규칙과 결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더 최악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까? 죄인이 돌이켜 그분을 다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인도와

통치에 복종할 때 그들을 향해 기우는 그분의 은혜로운 성향에 대한 계시를 불신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끌고 사로잡아, 그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며 감탄하는 가운데 당신 자신을 영원히 그분의 것으로 내어드리게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질투하는 마음의 속삭임과 의심, 또는 당신에게 잘못된 자를 향한 당신 자신의 적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잣대로 그분을 헤아리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당신이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그분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뜻이 말입니다. “그는 사랑이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는 그분의 명백한 자기 증언에 맞서, 당신 자신의 상상으로 그분을 대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분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화해할 수 없는 분이요 당신을 위한 어떤 속죄도 받기 꺼리시는 분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분께 한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기에는 너무 크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이런 생각 때문에 당신이 그분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분을 향한 진실한 애착이 모두 질식해 버렸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추악한 죄이지만, 그 원인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 악화됩니다. 그 원인이란 다름 아닌 그분 본성의 무한한 선하심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짓으로 치부하는, 더없이 죄 되고 해로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 적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묵상하는 일이 당신에게는 생소한 일은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평생, 숨 쉬는 동안 내내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리라 결심하며, 그분에 대한 묵상이 달콤하리라고 스스로 예언하는 듯했습니다(시 104:33).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자주 품으면 분명 즐겁고 기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거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분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음을 너무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당신의 죄책이 얼마나 큼니까! 생각 한 번 하는 데 무슨 비용이 들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안식을 얻기 위해 그토록 작은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3.] 이는 당신이 육신에 속하여 이 땅과 세상의 것들에 기울고 중독되었음을 전제하며, 그 결과 당신의 영이 지극히 비천하고 천박함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기쁨만 얻는다면, 당신이 기쁨을 얻는 다른 대상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경쟁자는 세상뿐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약 4:4). 당신 안에 “성부의 사랑”이 설 자리가 거의 없는 동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 무언가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요일 2:16).

당신은 어디까지 추락했습니까? 복되신 하나님보다 천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고, 고귀하고 순결한 기쁨을 진흙과 먼지를 위해 내버리다니, 얼마나 낮고 비천한 영의 기질에 빠진 것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이토록 육신적이게 만들어 육신의 것만을 즐기고 신적인 것들은 맛도 멋도 없게 만들었습니까? 설령 당신이 세상에서도 실제적인 만족을 거의 얻지 못한다 해도, 당신의 처지를 더 좋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당신이 즐길 만한 세상의 것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즐거움보다는 근심에 더 익숙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소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즐거워합니까? 당신의 기질에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적 기질이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한, 어떤 세상의 애착이 당신을 지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즐거움과 저울질할 만한 세상의 즐거움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당신의 그 비천한 염려와 갈망과 소망은, 당신 뜻대로만 된다면 똑같이 비천한 즐거움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더욱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며, 세상의 근심과 고난조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므로 당신의 죄는 더욱 커집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시 73:25)라는 기질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습니까?

[4.] 또한, 이는 적어도 상당 부분 당신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와 적대감을 보여주는 얼마나 슬픈 증거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이 혐오감 말고 어디서 비롯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기운다면 무엇이 당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가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다시 말해 순전한 적대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당신의 현주소임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교자들을 향한 혐오를 표현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히 10:38). 여고냐를 향한 경멸도 비슷한 화법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 당신이 그분을 깨어져 버려진 우상처럼,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릇처럼 여긴다는 사실에 떨리지 않습니까?(렘 22:28)

그러므로 스스로 이렇게 따져 보십시오. 당신의 현 상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당신이 하나님을 거의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적대감 외에 다른 어떤 부드럽고 온화한 원인으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적대감이 원인이 아니라 즐거워하지 않는 태만과 그저 일치하는 현상으로 보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적대감이 태만에 선행하는 정도가 미미할수록, 즉 태만과 적대감이

동일한 것으로 보일수록, 그 태만 자체의 사악함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보다 더 사악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실제적인 태만의 원인이 되는 습관적 기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할 만한 대상임을 발견했고, 더 나은 대상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으며,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받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간절히 권고받고 재촉받았습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마음이 그분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이 태만에서 비롯되어 뒤따르는 악들을 더 자세히 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들이란 우연히,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태만과 매우 내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다시 말해, 이 태만이 어떤 식으로든 원인이 되거나 직접적으로 낳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앞서 다른 원인들과 전혀 다른 종류인 양 굳이 세세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그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을 즐거워하지 못할 수 있고, 역으로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기에 그분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태만의 원인으로 언급된 다른 요인들도 마찬가지로, 태만과 서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실제로 자주 즐거워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자라난다는 점에서 그 사악함이 가중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죄라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기회가 많았음에도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매우 나쁜 원인 때문에 하나님을 거의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는 당신의 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분과 더 깊이 사귀려는 마음조차 점점 더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것이 당신의 상태를 훨씬 더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은 부분적인 앎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대상은 무한하며, 이 지식은 너무나 탁월하여 당신이 온전히 이를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여전히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깊이 즐거워했다면, 그분을 힘써 따르지 않았겠습니까?(시 63:8) 힘써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호 6:3) 그랬다면 그분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당신 앞에 예비되었을 것이고, 그분은 새롭고 더 큰 빛으로 계속 당신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의 기쁨은 매번 새로운 광경으로 새로워지고 커져서, 당신의 여정은 한 깨달음에서 다음 깨달음으로, 한 기쁨에서 다음 기쁨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뀌는 멈춰 있거나, 당신은 어둠과 황폐 속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당신은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그릇되고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들은 당신이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는 데 적잖이 기여하지만, 역으로 당신이 그분을 더 즐거워한다면 그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더 깊이 진지해지고 더 고양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분에 대해 해롭고 혹독한 생각을 품는 일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생각이 일단 당신에게 보배로워지면(시 139:17), 그 생각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아니 셀 수 없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실제로 즐거운 교제를 더 자주 나누는 훈련을 한다면, 당신의 세속적인 기질과 그분을 향한 낯섬과 혐오감은 사라지고 마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악들이 당신 안에 영구히 자리 잡고 더욱 자라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더 자주 실제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힘쓰지 않은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태만은 내면의 사람을 쇠약하고 퇴보하게 만듭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자기 일을 맡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역경과 불운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짜증 내거나 낙담하며, 유혹에 무력하게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분에게서 더 쉽게 멀어지거나 그분을 거스르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리에서 쓸모가 줄고, 하나님을 위한 용기와 결단, 열정도 약해집니다. 이런 덕목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달콤한 만족감으로 가장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은 고된 노동처럼 느껴져 쉽 없는 피로만 쌓입니다. 그 결과 신앙 \*안에서\* 그리고 신앙을 \*통해\* 쉬기보다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쉬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계속 속박됩니다. 죽음을 단지 내가 즐거워하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여긴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상술할 수도 있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피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죄의 사악함과 죄책에 무게를 더하고, 그 죄의 잔을 가득 채워 누르고도 넘치게 할 뿐입니다. 이 죄가 자연스레 낳는 결과를 그 죄의 탓으로 돌리고, 그 더럽고 독사 같은 소생을 제 문 앞에 놓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겠습니까?

이 논의가 의도보다 길어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이 죄의 가증스러움을 더 깊이 깨닫고 '이 문제는 무관심해도 괜찮다'거나 '다소 부주의했을 뿐 해롭지 않은 실수'라는 식의 자기관대적인 생각을 멀리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한 결실을 거둔다면, 그런 독자들은 더 읽을 필요 없이 곧바로 이 위대한 의무를 실천하는 더 가까운 길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또한 이 태만의 악함을 일단 깨달으면 진지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분발하여 명령된 의무에 착수할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다룰 두 번째 주제, 곧 ‘권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면에 우리의 노력을 일부 할애하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무한히 덜 중요하고 사소한 일들은 합리적이고 유익하다는 말만 들으면 누구나 선뜻 실천에 옮기지만, 이와 같은 중대한 일에는 온갖 어려움을 상상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성향이 있고 적어도 의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질문은 언제나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한낮에도 어둠 속을 더듬듯, 즐거움과 의무가 가득한 이 실천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무로의 권면은, 가능하다면, 손을 잡아 이끄는 안내(manuduction)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부름받고 촉구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으로 직접 인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즐거운 과업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는 쉽고 직접적인 길을 안내할 몇 가지 명료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동일한 기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더 꺼리고, 어떤 이는 덜하지만, 모두가 지나치게 주저합니다. 그러므로 기질이 덜 형성된 이들의 형편에 맞춰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나아가면서 어느 정도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에게 더 적합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1. 그러므로 먼저, 이 일 자체를 신중하고 결연히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의 과업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온 영혼을 쏟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결코 실행에 옮기지 않을 여러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그저 가볍고 산만한 생각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평생 수많은 계획을 시도했고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쏟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리라.” 주저하는 마음의 나태함과 혐오감은 결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속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숙고하고,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왜 이 점에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나 미뤄야 할 문제입니까? 행복에 이르는 다른 길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이성적인 영혼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습니까? 스스로 영원한 비참에 내맡기는 길 외에 단 하나의 길만 남았는데, 여기에 무슨 논쟁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참을 피할 길이 아직 하나 남아 있는데, 굳이 비참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길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천 개가 있는 것보다 확실히 더 낫습니다. 이제 선택에 오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숙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마음속으로 온전히 파악하여, 그 결단이 더욱 확고해지고 변할 위험에서 안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누가 필연성 앞에 어려움을 내세우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두고 어렵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시도는 하되 결단은 내리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이 첫 번째 권고를 소화하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어떤 내용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실천을 돕는 것이 목적인다고 책머리에 명시한 글을,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경이나 하려는 심산으로 읽는 것은 어리석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뿐입니다. 그 결단이란, 너무나 오랫동안 소홀히 해온 영혼의 행복, 즉 만족을 주고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행복은 오직 복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것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읽을 내용이 이 목적에 부합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어서,

2.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현재 상태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지점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향한 당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분과 당신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이며 그분의 적이었음을 잘 압니다. 또한 그분의 정의와 거룩한 본성상 당신을 적으로 여기실 수밖에 없었음도 압니다. 물론 그분께서 결코 화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적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현 상황에서 그분은 당신에게 복수할 준비를 마치고 “그의 번쩍이는 칼을 가시며 그의 화살을 시위에 메겨” 당신의 심장을 겨누고 계신 분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상태였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당신은 불결하고 가증스러운 죄인, 추하고 역겨운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떤 즐거움도 드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반감으로 가득했고, 그분께서는 당신 안에서 지극히 정당한 미움의 근거를 찾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반역한 피조물로서 그분의 지극히 마땅한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 혹은 즐거움을 허락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당신의 상태입니까? 성급하게 상황이 변했다고 여기거나,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곧바로 착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그러나 이 상태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결코 회복될 수 없으리라고, 당신이 그분께 합당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으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사악한 마음이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악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화해 불가능한 적으로 간주하지도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며,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을 이토록 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당신은 오랫동안 그분의 자비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당신을 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당신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분께서 당신을 파멸시키려 하시며 어떤 속죄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그분의 복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방식과 조건들을 익혀야 합니다. 즉, 당신이 악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그분은 결코 당신과 화해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아무리 선행한다 해도 당신 자신의 공로 때문에 화해하지는 않으십니다. 당신의 죄책을 속하고 평화를 이루려면, 당신이 마련하거나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값비싼 희생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일이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했다면,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자께서 친히 그 희생 제물이 되도록 계획되거나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평범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분께서 그 사역을 맡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순종하시고 그 사역을 맡으셨으니, 것처럼 자비로운 낮아지심과 위대한 성취의 온전한 영광이 전적으로 그분께 돌려져야 함이 얼마나 지극히 옳은 일인지 스스로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죄에 대한 친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죄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의 피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도 필요합니다. 피가 하나님의 징벌적 정의와 당신을 화해시킨다면, 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당신을 받아들여지게 하고 화해시킵니다. 그분께서 부르시는 교통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맛보기를 기대한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뿐 아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씀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구속주의 자비와 통치권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복종하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당신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연합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그 연합이 모든 즐거운 교통의 기초가 됩니다.

5. 성자와의 연합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 장 44 절이 말하듯,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아들에게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 꿈꾸거나 졸지 말고, 당신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긴박한 상황을 숙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 및 그리스도와 이러한 관계를 맺는 일에 무관심합니까? 마음이 주저하며 뒤로 물러섭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대로, 제 모습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분발시켜 “그의 능력을 붙잡으라”(사 27:5)고 하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이 길을 통해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어둠과 죽음에서 이 비천한 자를 건져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신에게서 영원히 멀어져 영원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저를 당신께로 인도하실 그분과 연합시켜 주시고, 저를 영원히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6.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분 안에서 복되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겸손한 경외심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찬탄과 함께 그리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것으로 내어드리며 굴복하십시오. 이 일을 거짓 없이, 지극한 엄숙함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당신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자기 자신과 모든 유한하고 편협하며 제한된 선을 떠나, 영원하고 무한하며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과 연합하여 그 선을 당신의 것으로 삼은 그 날을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하십시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분을 즐거워하겠다는 말입니까? 당신과 무관한 이방인처럼 그분을 애뜻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임을 깨닫고(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 당신에게 자신을 가장 값없이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선을 값을 치르고 사려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총만함을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오직 영접과 헌신뿐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서두르되, 성급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극한 진지함과 신중함, 그리고 온전한 동의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려 하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일에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일에 당신의 영혼이 참으로 생명력 있게 참여하여 그분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진정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 위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일에서 다스림받고 처분되도록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남김없이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한 영적 과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과 마음의 성향을

갖춘 이들, 곧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제하에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이들 중 다수는 이미 오래전에 이 경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앞서 가정한 대로) 이 거룩한 실천에 어느 정도 단련되고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여러 차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분과 나누는 대화의 기쁨을 자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멈추었고, 한때 자신의 즐거움이었던 그분에게 낯선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분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에 이끌렸거나, 더 심각하고 격렬한 파열로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금 연합의 지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지점까지 이른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 것이 마땅하고 또 중요할 것입니다.

1.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으로 모신 그분을 향한 당신의 행실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길을 옳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분과 엄숙한 언약을 맺던 날 스스로 짊어진 의무가 고작 이것이었습니까? 그저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이름만 취하고, 이따금 마음 없는 외적인 경의로 겉치레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분을 떠나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동안 이 세상이나 (세상으로부터 만족과 섬김을 받으려는) 당신의 육적인 자아가 실질적인 신이 되고, 그분은 이름만 지닌 신이 되는 것이 당신의 의도였습니까? 그것이 정녕 당신의 의도였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언약에 진실하게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더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감히 그분의 언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이 언약의 취지 전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언약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하찮게 여기고, 당신의 신앙을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 아닌, 생명도 없고 감각도 없는 우상에게나 어울리는 섬김으로 전락시키는 셈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분을 당신의 지극한 선,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만물을 포괄하는 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고, 당신이 이 점에 있어 전적으로 잘못했음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2.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가능한 한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어찌 된 일입니까! 피조물, 바로 당신의 우상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은 필요하다 여기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것들이야말로 네가 마음을 쏟고 사랑하며 섬기고 따르고 찾고 경배한 것들이

아니냐?”(렘 8:2, 이상승배적 애정의 방종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신 표현의 더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흉측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당신의 죄악 된 태만이 가져온 여러 가중 처벌 요인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그 무게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며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혔는지, 본래 얼마나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었는지, 복된 영원을 준비하는 일에서 얼마나 뒤처졌는지, 당신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과 영혼을 바치기로 맹세했던 그분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 울며 간구하며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그분 앞에서 당신 자신을 숨김없이 열어 보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한탄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듣게 하십시오. 침묵하고 있으면 당신의 뼈를 삭게 하고 당신을 소진시킬 죄책을, 남김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께 당신의 영혼을 쏟아 놓으십시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하기까지 그분께서는 당신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점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주님이요 구속주께서 당신에 대한 허물을, 마치 따로 두어 기록하고 장부에 올려 저장해 두신 것처럼, 또한 친히 “내 공간에 봉하여 둔 것”(신 32:34)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걸려 하고 기억하며 당신을 향한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심정이 이러하리라 짐작될 때, 이것이 당신에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네 젊은 시절의 인자함과 네 약혼 시절의 사랑을 기억하노라.”(렘 2:2) 그런데 그 옛날 이후로 “내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따르다가 허망하여졌느냐?”고 물으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만일 그분께서 과거에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여기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나를 거슬러 증언하라!”(미 6:3)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책망이 마땅한 상황에서, (까닭 없는 책망이 아니라) 책망의 ‘내용’ 자체가 마땅히 아픔과 상처가 되어야 할진대,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던져 드리고, 그분의 자비의 보좌 발판 아래 먼지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걸맞은 일이겠습니까!

4.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고 흉악할지라도,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자비의 보좌 앞임을 깨달으십시오.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이 상황에 필요한 겸손을 얼마나 크게 복돋워 주겠습니까! 자비의 소망을 차단하는 시무룩한 절망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죄악 되고 위로 없는 거리를 지속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 구속주의 피 안에서 그분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에게 그 용서가 필요하며, 오직 그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음을 아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당신 죄의 악함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되살아나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정해진 용서의 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쳐 사람들 사이에서 악평을 받는 범죄, 예컨대 강도나 살인 같은 죄는 매우 끔찍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과 영,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과 당신의 영 사이에 직접 놓인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분과 엄숙한 약조를 맺고서도 거짓되게 행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비밀이라 한들, 그 자체의 악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습니까? 만일 당신이 친구와 단둘이 아는 일에서 비열한 배신을 저질렀다면, 돌이켜 생각했을 때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그 친구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용서를 구하고 그가 허락하는 것 외에, 문제를 바로잡고 즐거운 우정을 회복할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전제도 없이 예전처럼 그와 교제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으며, 그러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무례하고 뻔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일이 복되신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제 당신이 그분을 심히 소홀히 했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러 나아왔을 때, 그분께서 얼마나 쉽게 용서하시는 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이 어찌 당신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녹아내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깨닫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에게 선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배교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의 노여움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을 흘려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로 간 것이요(너의 죄는 그들의 죄와 같은 우상숭배였다) …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렘 3:12-13).

이런 제안 앞에서 어찌 마음이 찢어지고 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큰 용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그 용서의 달콤함과 기쁨을 마음속 깊이 음미하려는 심령의 기질을 갖추기 전에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당신 마음의 느낌과 일치하여 황홀경 속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라고 외칠 수 있기 전에는, 결코 예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여기까지 이르렀고 당신 영의 기질이 이 점에서도 올바르게라면, 용서에 대한 갈망과 소망과 가치 부여와 더불어, 앞으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또다시

낮춤과 단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최소한 동등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질 조언이 당신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5. 더 낮고 더 확고한 영의 기질을, 곧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결단하고 마음을 쏟는 기질을 더욱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되도록,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당신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십시오(살후 3:5). 건강한 온전함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십시오. 그 온전함이 자리 잡는 곳마다, 그것은 확고한 능력과 강한 사랑의 이끌림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의 변화 없이, 단지 과거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 죄를 용서받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에만 만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리 중 우리를 위해 이루신 공로(죄의 속죄, 하나님의 정의 만족, 용서, 하나님 앞에서의 용납)에 관한 부분에 비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중생, 새 피조물, 회개, 거룩한 삶)에 관한 부분이 불균등하게 평가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앙고백에 명백한 해악이 날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후자의 교리들은 달콤하고 황홀하며 감격적인 순수한 복음으로 여기는 반면, 전자의 교리들은 차갑고 메마르며 불쾌한 개념으로 치부합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는 마치 경련을 일으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습이 뒤틀리고 변질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기독교의 목적이 단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출하는 것일 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는데 필수적인 심령의 기질을 주는 것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잘못된 설명 탓이라기보다는(물론 그들 중 다수가 전자의 교리들은 거의 억누르거나 매우 적게 강조하고 후자의 교리들만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인간 본성의 타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심령의 위대한 변화가 지닌 절대적 필연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전 세대 못지않게 강력히 촉구해왔음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 본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지극히 불균등하고 편파적으로 수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에게 더 큰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그 자체로 떼어놓고 볼 때)은 덤석 붙잡지만, 죄의 뿌리를 직접 겨냥하는 부분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것처럼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취지의 복음을 만들어 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자기 영의 기질이 어떠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실 것이니,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다른 모든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아 할 필연성,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할 필연성,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할 필연성 등은 마치 우연히 끼여든 무의미한 말처럼 여깁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야만 순수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복음과 무관한 덧붙임이나 위조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유연장이나 증서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것이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문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려 원래 작성자의 행위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순수한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 실은 다른 복음이며, 아니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으므로) 아예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한 새로운 본성, 곧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쏠리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에 일치하도록 빚어진 마음이 없이는, 사람들을 복된 상태(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운 안식)로 이끄는 복음의 목적이 그 본질상 도달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용서의 제안과 소망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이끌고 빛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기뻐하지도 않는 분 안에서 행복할 수 있으며, 자기 영의 기질이 습관적으로 부적합하고 적대적인 분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 아니라면, 이 사실이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전에 하나님과 소원하게 지낸 것을 깨닫고 마음에 약간의 후회를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용서받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에 만족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없이 이전과 같은 길을 계속 달려가다가, 새로운 죄를 쌓아 죄책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주님을 향한 얼마나 오만하고 경박한 태도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신 당신의 의무를 면제해 주시기를, 곧 최고이며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자연법 자체의 의무를 무효로 하여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을 두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어가는 죄수에게 사면장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군주 못지않게 유능한 의사가 필요하듯,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우는 조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군주와 의사의 역할을 모두 예수님 한 분이 감당하시며 그 두 가지 일이 모두 한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영의 올바름을 되찾고 마음의 온전함과 건강함을 회복하여, 그에 따라 앞으로의 여정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것보다(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궁극적이고 완전하며 기쁨이 넘치는 안식 및 복된 상태와 더 가깝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로 그런 가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을 그분의 임재에서 내쫓지 않으신다 해도(지금도 그러하시듯이), 당신 스스로가 지금처럼 영원히 자신을 내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기로 한 약속을 엄숙히 되새기고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그분의 언약을 붙잡되, 그 언약이 당신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십시오.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이제 막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십시오. 다만 이제 당신의 눈에는 자신의 죄가 더욱 혐오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영광스럽고 놀랍게 보여야 합니다. 불성실에 배신까지 더했으니 죄는 더욱 흉악하게 보일 것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을 열어 두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당신과 다시 관계 맺기를 원하시니 은혜는 더욱 찬란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겸손과 부끄러움, 두려움과 떨림, 자기에 대한 불신, 앞으로 자신의 영을 더욱 부지런히 살피고 지키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분의 영에 대한 신뢰와 의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무의 길로 돌아왔다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길에 들어선 모든 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훈련을 어떻게 지속하고 심화할지 인도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그 정당함과 탁월함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기를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쉽지 않고 쉽게 흐트러지며 꾸준히 이어가기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 흔한) 바로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실제로, 일상적으로, 그리고 더욱 온전히 영적인 마음의 기질을 갖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힘쓰십시오. 우리는 당신 안에 이미 거룩하고 영적인 원리가 심겨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육신적인 마음은 육신의 일에만 맛을 들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것을 조금이라도 제시하면 늘 물러서고 움츠러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육신에 속한 만큼 비례하여 하나님을 향한 일에서 물러서려 할 것입니다. 만일 세속적인 기운이 아직 생생한 상태에서, 곧 마지막으로 마음에 흔적을 남긴 것이 세상일이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온갖 핑계와 방해거리가 생겨나고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른 것들에 중독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감각적인 것들은 우리의 감각과 상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압도되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들을 감시하고 요새화하여, 영혼을 감각과 감각의 대상들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진지하게 힘써야 합니다. 감각과 그 대상들이 멋대로 교섭을 벌이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엄격히 감독하십시오. 그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들에게 맞고 즐거운 것들을 당신 안으로 들여오도록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감각 외에 다른 것, 곧 힘과 능력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이 모든 항구(통로)에서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성문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성문은 예로부터 가장 견고한 요새였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그곳에 가장 강력한 방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현 상황은 가장 좋은 대상 안에서조차 아무 걱정 없이 순전한 기쁨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의와 경계를 늦춘다면, 온갖 것들이 밀려 들어와 당신의 기쁨을 해로운 것들과 뒤섞어 버리고, 결국 기쁨 전체를 부패시키고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죄 많은 허영과 섞이느니 거룩한 주의와 섞이는 편이 낫습니다. 거룩한 주의는 기쁨을 지켜주지만, 죄 많은 허영은 기쁨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갈등과 전쟁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와 양립할 수 있는 영적 기쁨에 만족해야 합니다. 전쟁과 위험의 시기에 도시가 적에게 포위당하면 모든 주민은 공동의 안전에 집중해야 하므로, 안락과 쾌락에 온전히 빠져들 여유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기쁨을 누릴 틈을 얻겠다는 어리석은 희망만으로 성문을 활짝 열어 자신과 모든 즐거움을 무자비한 적의 약탈과 파괴에 내주는 것보다는, 감시하고 방어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런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합리적인 안전이 주는 위안을 누리는 것이 분명 더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상황임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 내면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엄격히 지키십시오. 적을 성벽 안에서 상대하기보다는 성벽 밖에서 막아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적은 일단 들어오면 내쫓기보다 막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계기와 대상(심지어 당신에게 불일이 있다며 재촉하는 것까지도)을 멈춰 세우고 그 목적을 면밀히 조사하십시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지혜와 판단의 영이 그곳에 머물게 하십시오(성문은 힘의 장소일 뿐 아니라 조언과 판결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신중히 숙고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영을 다스리지 않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잠 25:28)처럼 내버려 둔 채, 태평하고 안일하게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려 한다면, 그 즐거움은 이내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결국 진창에서 똥구는 돼지의 즐거움처럼 관능적이고 불결하게 변질되어, 마침내는 쓴 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경건을 내세우면서도 평소 대화에서는 스스로없이 쾌활함을 즐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즐거움과도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규칙과 척도는 그토록 가혹한 엄격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를 아주 좁은 경계 안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차원의 건전한 욕구와 성향을 만족시킬 충분한 여지와 자유를 남겨 두셨습니다. 우리 본성에 낮은 차원의 능력들을 덧붙여 주시고 태초에 죄 없는 인간을 위해 지상의 낙원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능력들을 채우는 것을 금하셨을 리 없습니다. 또한 그 능력에 걸맞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각적 욕망을 인도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제와 건전함의 규칙들 자체가 그러한 욕망이 허용되었음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은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 파괴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은 낮은 동물적 생명의 성향과 기능을 우리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고 종속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규칙을 정하신 분의 권위와 우리의 목적 자체에 동시에 맞서며 그것들에 방종하는 것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사악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자체로든, 혹은 부적절한 정도나 시기, 기타 상황으로 인해 악하다고 선언하며 금하지 않은 이 낮은 세상의 것들에서 오는 즐거움은, 우리가 지상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 본성의 거친 부분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정도의 즐거움은 결코 우리를 해하거나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규칙과 율법으로 그 즐거움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마치 담으로 둘러싸인 동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가지 않는 한 그것들을 해치거나 손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과 노력은 모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성향을 억누르고 죽여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규칙과 척도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무시하면서도 고상한 영성과 하나님 안의 즐거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명백히 속이 텅 빈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꾸미고 그럴듯하게 보이려 하며, 허풍선이처럼 공허한 말을 늘어놓지만, 정작 그 마음은 허가 내뻗는 말을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영적 즐거움과 기쁨은 헛되고 어울리지 않는 경박함은 물론, 모든 세속적 불결함과도 분리된 엄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는 영혼 안에서만 자라고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영의 평소 기질을 살펴보십시오. 언젠가 위대한 중생의 변화가 당신에게 일어났으리라 희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당신의 상태는 안전하고 이제는 안일과 자유를 누리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확고하고 성장하는 영성을 얻는 데 힘쓰고, 당신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이 영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롬 8:5)이며, 특히 복되신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기쁨”(시 43:4)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러나 당신의 정신과 마음을 떼어 내십시오.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약 4:4)이라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 “육신의 생각”(롬 8:7)에 대해 한 말과 같은데, 실로 동일한 의미, 즉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앞서 언급한 성경 구절은 부적절한 의미에서 세상의 친구가 되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애인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이 이 세상의 영에 삼켜지거나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것의 저속하고 마비시키는 영향력 아래 놓일 위험이 없는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십시오. 다른 나라의 주민처럼 처신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기질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은밀한 공간을 본질적인 요소로 삼아, 그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숨 쉬고 살며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도록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곳을 벗어나서는 스스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이탈의 기미조차 예민한 고통으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지에 결코 이를 수 없다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미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이는 시편 기자에게 그저 덧없는 감정이 아니었으며, 우리는 그가 같은 심정을 자주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 23:6). 또 비슷한 곡조의 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시 84:1-4). 이 집이 다른 집보다 그에게 더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 안에 머물기를 사모했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며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따금 방문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더 선명한 빛 아래 사는 우리가 어찌하여 이러한 영적 기질을 도달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야 하겠습니까? 나태한 낙담, 그리고 그토록 높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천박한 생각은 신앙을 굶주리게 하고, 진정으로 고귀하고 너그러운 모든 열망을 질식시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당신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영의 기질을 얻기 위해 그 계획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분의 영은 우리가 합당하게 구하고 순종하며 따르면 결코 제약받지 않으신다.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따로 세우신 자”(시 4:4)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 조심스럽게 자신을 지킨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낯선 이가 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이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고, (당신의 영이 그분을 향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분과의 교제에 부적합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과는 거룩하고 정결한 거리감을 둔다면 말이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평소에 영적인 것들과 교제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교제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이며, 그 대상은 당신에게 흔적과 각인을 남긴다. 헛된 것을 좇으면 당신도 허망해지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 당신도 세속적으로 변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 깊이 몰두하면, 당신은 그것의 형상을 지니고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는 감각의 대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귀한 대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은 이미 신적인 빛과 은혜로 정련되고 향상되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토록 저급하고 비천한 것들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 생각해보라.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더 높은 본질의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면 그 일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가장 친숙해야 할 것들이 당신에게는 도리어 기이하고 낯설며 한낱 그림자와 어둠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당신의 영을 재촉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라. 당신이 지성을 사용한다면,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뛰어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지 않은가?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 달 아래 세상, 즉 작고 미세하며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심히 비천하고 추하게 변해버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작은 일부 안에 가두려 하는가? 당신의 영을 이 죄와 비참의 영역에 속한 일들만을 살피고 바라보도록 묶어두지 말라. 이곳에서 당신의 눈에 띄는 것들 중 진지한 영혼에게 위로나 큰 교훈을 줄 만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당신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저버려 버림받은 이 세상의 사악함과 비참함을 보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이보다 훨씬 더 광대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그곳에는 영광스럽고 죄 없는 피조물들이 있어, 공동의 창조주이시요 주인이신 분께 직접적이고 충실하게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 그들은 그분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복된 임재와 서로 간의 사랑과 교통, 그리고 행복 속에서 영원한 위안을 누린다. 구속주께서는 이 비참하고 저주받은 우주의 폐허 속에서 건져내어 회복시킨 이들을 날마다 저 행복한 무리(혹은 성경이 일컫는 대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에 더하고 계신다. 당신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저 복된 공동체에 속한 자로 여기라. 그곳의 일들을 당신의 본향의 일이요, 마땅히 당신에게 속한 일로 생각하라.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침받았는데, 하늘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우리 생각에 낯선 것이어야 마땅하겠는가? 분명

믿음과 거룩한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태에 관해 충분히 질서 있고 정당한 개념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그곳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라고 명받았다고 해서, 도리어 하늘에 낯선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숙고하는 데 많이 사용하라. 당신의 생각이 마음껏 펼쳐질 넓은 장을 마련하라. (당신은 그것이 또한 열매 맺는 밭임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오가게 하고, 사방으로 뻗어 나가게 하라.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그 가운데 이 낮은 창조 세계의 탁월한 일부인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 어떠한 존재였고, 지금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하라. 구속주의 놀라운 위격과 영광스러운 탁월함, 그분의 위대한 계획과 경이로운 업적과 성취,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이루실 복된 결말을 생각하라. 새 본성의 특성과 구성 요소, 그리고 그 완성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라. 새롭게 된 영혼 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저 거룩한 울바름의 온전한 틀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잘 배우고 이해를 갖추도록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의 여러 사랑스러운 장식들, 곧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으로 마음이 어떻게 빚어지고 단장되는지를 생각하라.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위한 영적인 일과 훈련의 재료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왜 이 땅과 감각적인 것들에 그토록 마음을 쓰느냐고 묻더라도, 달리 생각할 것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분명 다른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생각을 이러한 교제에 사용하고 매일 이처럼 스스로를 즐겁게 한다면, 영적인 기질이 당신 안에서 습관처럼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숨 쉬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듯,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재촉이나 설득이 더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2.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지식, 곧 그분에 대한 개념이 더 명확하고 뚜렷해지도록 힘쓰라.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할 때, 준비되지 않은 육적인 마음이라는 장애물 다음으로 (혹은 적어도 그중 하나로) 큰 방해물이 바로 이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즉, 당신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래야만 하겠는가? 항상 배우기만 하고 이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인가? “우리가 전능자를 능히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말은 지극히 참되며, 우리는 저 영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 언제나 지극히 일부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은혜로운 마음의 기질이 바로 그 지식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의무와 복 전체가 불가능성 위에 놓여 있지는 않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할 만큼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큰 잘못 때문이다. 이는 그분이 알 수 없는 분이시거나 우리에게서 스스로를 감추고 달아버리셨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지한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속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도 많으며, 그것을 파고드는 것은 헛되고 무모한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천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지식은, 그분의 은혜로운 허락 덕분에 알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탁월한 존재로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분이 다른 모든 존재를 무한히 능가하시는 여러 개별적인 탁월함에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알기에, 피조물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탁월함은 하나님 안에 가장 뛰어나고 완전한 형태로 존재함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들뿐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계시다가 그분을 선포하러 세상에 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까?(요한복음 1:18) 옛적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시대와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히브리서 1:1-2).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신적인 영광,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신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직접 뵈고, 이 땅에서 그분의 모든 행적을 끊임없이 지켜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록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우리 손에는 그분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눈앞에 계신 그분을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 가운데서 보이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스러운 모든 태도를, 그리고 스스로 기꺼이 두르셨던 장막을 뚫고 나타난 위엄의 광채를 주목해 보십시오. 두루 다니시며 어디서나 선을 행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복을 흠부리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큰 연민과 온유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시며, 굶주리고 궁핍한 자들을 먹이셨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참아 주시고, 자신을 해하는 자들(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까지도)을 용서하셨으며, 완고한 죄인들을 보며 눈물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바람과 바다에 명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권위와 열정,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위선적이고 완고하며 불신으로 가득 찬 세대와 맞서 싸우셨습니까. 그들의 면전에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를 쏟아내시며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장막이 걷히고, 이 모든 탁월함의 광채가 가리는 구름이나 그림자 하나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복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이셨기 때문이며, 그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4:9). 이제 당신은 즐거워할 분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지혜, 선함, 정의, 거룩함, 진리, 능력,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른 모든 완전성이 한 존재 안에 모여 있다고 상상할 수 없겠습니까? 그 존재는 순전히 영적이어서 우리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자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 안에 계시며, 앞서 언급한 모든 완전함 안에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분명 이러한 개념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당신이 즐거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정신을 감각과 모든 감각적인 것들 너머로 들어 올려, 당신을 짐승과 구별해 주는 이성을 사용하십시오. 이분이 바로 당신과 만물이 비롯된 분이며, 당신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존재들에게서 생명, 지혜, 능력, 사랑을 봅니까?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어떤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그분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탁월함은 하나님 안에 가장 완전한 형태로 존재함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 사실을 마치 그 무한한 영광을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눈으로 볼 수 없기에 그것이 더욱 뛰어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피조물에게서 이러한 속성들이 외적으로 행해지고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생명, 지혜, 능력, 사랑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며, 당신은 그것들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런 것들이 존재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 안에 이러한 속성들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때, 특히 당신이 그 피조물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존재가 당신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즐겁게 보입니까? 복되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 안에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들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들 자체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그것들을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은 그분의 본질로서 그분 안에 완전하고 불변하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근원적이며, 실체적인 생명이자 지혜요, 능력이자 사랑이신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원히 복되신 존재가 당신에게 얼마나 무한히 사랑스럽고 즐거운 분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이 자신을 묘사하신 부분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그분의 본성과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와 표현들을 눈으로 훑거나 입으로 되뇌는 데 만족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숙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분의 거룩한 책에서 그분의 이름이 "주는 주 하나님이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거나, "그는 빛이시요 사랑이시며",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신 만유"라고 하는 구절을 읽을 때 그러해야 합니다. 또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거나, 그분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러우시다"는 찬미, 또는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구절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와 이해를 당신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힘쓰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온전하고 잘 형성된 표상을 마음속에 갖추어, 어떤 경우에도 그분과 교제하려 할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단순한 단어들만으로는 그분에 대한 더 완전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 개념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거나 마음에 강력한 울림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분에 대한 설명과, 당신의 눈으로 날마다 목격하며 그분께서 행하셨음을 확인하는 그분의 일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선하심 등에 관해 읽거나 들은 뒤, 그 말씀이 증언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며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입증하는 가시적인 결과들을 끊임없이 목격한다면, 이 얼마나 강력한 확증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분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역사는 그분을 드러낼 뿐 아니라, 당신에게 그분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빛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엡 1:17)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당신이 알게 되리라고, 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으리라"(호 6:3)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눈빛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로 그분을 바라볼 때, 당신은 그분의 빛 비추시는 교제를 이끌어내고 초청하게 됩니다. 그 교제는 바로 그 초청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것처럼 귀한 것을 얻기 전에 먼저 그 필요를 느끼고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그분의 생명력 넘치고 감미로운 빛, 그 영광스러운 광채 한가운데로 나아가거나, 영혼의 문을 열어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한다는 것을 아실 때, 당신이 구하느라 겪는 수고나 받으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을 어느 정도 얻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무지하지 않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3. 그 지식을 사용하여 자주,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지식의 다음 목표 중 하나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자주 그분을 실제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만일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목표는 물론 다른 어떤 목표에도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 지식이 없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려 할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을 생명력 없는 죽은 관념 속에 가두어 두고 생각을 부지런히 움직여 살아 있는 생명과 뜨거운 사랑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 것입니다. 당신의 묵상을 통해 이 불꽃을 지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영혼의 위안이자 기쁨이라면, 그분은 소홀히 여겨지거나 잊혀서는 안 되며, 마땅히 자주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시 63:5-6). 그는 또한 “나의 묵상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시 104:34)라고 말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달콤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초대받은 즐거움은 짐승의 쾌락이 아닙니다. 그런 피조물도 나름의 쾌락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 외에 감각의 도움과 작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훈련된 지성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결코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성 안에서 당신의 즐거움을 키우고 유지할 양식이 준비되고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다지고 성실하게 이 일에 힘써야 하며, 자꾸만 벗어나려는 생각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자신의 나태함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말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선한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어떤 생각도, 심지어 한 번의 호흡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다만, 육신의 생명과 존재를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의존하는 것 외에도, 섭리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그 본질은 하나님 안의 기쁨과 즐거움에 있습니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감화와 협력에 영적으로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하시고 명하신 일들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생각을 집중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거나 그 기쁨이 희미하고 시들해진다고 불평하는 것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도 게을러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씹으려 하지도 않고 비참하게 굶주리고 있다고 푸념하는 것과 같은 헛된 불평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을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의 손과 능력으로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짚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혹독한 감독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의롭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처럼 불평만 하는 것이다.”

당신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거나, 그분이 전혀 돕지 않으셨다고 의도적으로 아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빛도 지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자유로운 약속에 따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까마귀와 참새도 먹이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굶주리게 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은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구해야 얻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합당하고 적절한 방식입니다. 당신의 이성적 본성과 능력(특히 이미 어느 정도 바로잡히고 그분의 은혜와 영으로 생기를 얻었기에)은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며, 새 피조물에게는 자신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고 탐구하는 일에 생각을 집중하며 붙들어 매는 것보다 더 합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당신의 주된 과업으로 삼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간을 정하여 엄숙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묵상은 그 자체로 구별된 의무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훈련들과 더불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1) 이 거룩한 훈련은 우리 삶에서 마땅한 시간을 요구하며, 우리가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이야말로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전부이신 그분을 어쩌다 우연히, 부수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그를 묵상하는 것이 내게 달콤하리니.”<sup>[^1]</sup> 이 구절은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의도된 행위, 곧 정해진 일과였음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을 정하는 것은 습관이자 일상이었고, 그는 이 익숙한 훈련을 통해 만족과 영혼의 위안을 얻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서는 당신의 눈이 밤의 파수꾼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을 빠뜨렸다면, 당신은 그날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를 게을리한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태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회복하겠습니까? 이 중대한 태만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2) 다른 일들을 처리하는 중에도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소명 안에서, 그 신분이나 생활 방식이 어떠하든(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고전 7:20)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함께

거함'의 의미에서 가장 큰 부분이자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온갖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복된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 생각들이 진지하고 올바르다면 은은한 감미로움을 동반하며,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더 즐겁고 엄숙한 교제에 합당한 기질로 지켜줄 것입니다.

슬프게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한 이들의 삶에 죄악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 대부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일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일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매우 쉽고 수고로울 것도 없으며, 설령 수고가 따르다 해도 그 수고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보상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자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육욕에 빠지며, 세속에 파묻히고, 영의 비참함과 황폐함에 압도되는 까닭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들이나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에 생각을 둡니다. 바로 이 통로로, 곧 잘못된 생각을 거듭하는 수고를 통해 죄와 재앙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밀려듭니다. 만일 그 생각들을 올바른 대상에 두고 제대로 사용했다면, 바로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모셔 들여 그분의 충만으로 채우고,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빛과 은혜와 위로로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충만하고 즐거우며 늘 우리 곁에 계신 단 하나의 대상에게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여러 대상에게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더 쉬운 수련이겠습니까! 다른 대상들은 멀리 있거나 우리 능력 밖에 있어 불안과 수고 속에서 추구해야 하고 실망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혹 가까이 있다 해도, 그것이 선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 영에 큰 위험과 손상을 주며 거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만일 악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고통과 슬픔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대상에 생각을 쏟는 수고는 고통을 안겨줄 뿐이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시 25:13)은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 환희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혼은 평안히 거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선함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거하다'라는 말은, 전날의 수고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밤에 취하는 고요한 휴식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설령 생각을 신중히 다스리는 일에서 이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해도,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분에 대해 생각할 의무조차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무를 요약한 저 위대한 강령에서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고 한 뒤에, 굳이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이 사랑의 자리가 아님을 압니다. 이는 적어도, 우리의 생각이 사랑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우리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계속해서 일치하고 협력해야 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온 영혼이 그 일에 힘쓰고 매진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도전은 무엇을 뜻합니까(전 12:1)?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그 의무에서 면제됩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더 오래 살수록 그분께 진 빛이 줄어들습니까? 성경에서 악인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라는(시 9:17) 낙인이 찍히고, 그분의 백성을 구별하는 특징이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라는(말 3:16)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통치와 율법의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여깁니까? “우리 혀는 우리의 것이라 우리로 말할 자 누구리요”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덜 오만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무엇이든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시고 생각을 형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이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분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헛된 생각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며, 그 하나하나의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의 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위대한 일을 진정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을 위해 사로잡아 그분과 더 꾸준히 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생각에 기도를 더하십시오. 자주 기도하는 생각, 곧 간절한 소망을 품은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드높이오니 주의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시 86:4)와 같은 간구를 토해내게 하십시오. 그 생각들이 생명을 품고 더 큰 생명을 구하는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생각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관점은 지극히 즐거운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이런 관점으로, 때로는 저런 관점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즐거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같은 대상에 같은 방식으로 오랫동안 머물면 지치고 피로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1]: Psalm 104:34. The author quotes the verse slightly differently, focusing on the sweetness of his own meditation ("My meditation on him shall be sweet"), whereas many English translations render it as a wish for his meditation to be sweet to God ("May my meditation be sweet to him"). The author's point about the designed nature of meditation remains valid in either case. The Korean translation reflects the author's emphasis.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과 측면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중 어느 하나에만 주목하고 나머지를 간과하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 자신께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4. 하나님을 그 자체로 가장 탁월한 존재로,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만물의 최고 창조주이자 주권자로 자주 바라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불신이나 세속성, 하나님에 대한 낯설 때문에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의무에서 면제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란, 그분께서 특별한 친절을 베푸시고 남다른 호의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몇몇 친밀한 친구나 크게 총애하는 이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류 전체와 모든 이성적 본성에게 부과된 보편적 율법의 의무를 회피할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특권일 뿐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시고 지각 있는 영을 불어넣어 창조주를 알고 그분의 탁월함을 경탄과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분께 드리는 경의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죄 많고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어둠 속으로 도망쳐 그분에게서 숨거나 눈을 감은 채 태양은 빛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참되고 불변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 또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기를 바랐든, 그분을 올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탁월함을 바라보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가장 합당한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그 즐거움에 이르는 길들을 소홀히 한 것만큼 여러분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고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낯설게 여기고 즐거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영적 태도를 고수하는 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근거는, 바로 그분에 대한 의무적인 애착과 그분 안에서의 만족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만족과 즐거움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시기 이전에 그분 자신 안에 있는 탁월함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안에 먼저 싹터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명백히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관계만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근거로 삼거나 주된 이유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물을 여러분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애착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로만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하고 고귀하며 너그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하고 불가해한 존재 안에 보화처럼 간직된 그 무한한 생명과 영광과 모든 완전함의 총만함을 어찌 하찮은 벌레의 능력과 관심사로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관계가 주는 위안을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과 맺고 있는 더없이 위안이 되는 관계를 (당연하게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잠시 그 생각은 접어두고 그분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모든 면에서 완전한 존재로 여러분 눈앞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고, 성도와 천사들의 찬양과 승리의 노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또한 모든 복과 찬양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일이 여러분의 만족을 얼마나 더 크게 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렸던가요! 거룩한 영혼들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과 통치, 지혜롭고 의로운 다스림, 그분의 손이 지으신 만물에 두루 미치는 넓고 풍성한 선하심을 바라보며 얼마나 큰 황홀경에 잠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처럼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애착의 표현들을 본받으려 힘쓰십시오. 옛 성도들에게 즐거움의 원천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때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에 대해 지극한 만족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오직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롬 16:2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딤후 1:17). “홀로 하나이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유 25).

다른 곳에서는 황홀경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경탄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출 15:11).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삼상 2:2). 성경은 이 거룩하심을 성도들에게 기쁨과 찬양의 특별한 주제로 권하고 명령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시 97:12).

또 어떤 때에는 이방 신들을 압도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장엄하게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시 115:3).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등.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시 21:13).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 이 노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전해집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등.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시 31:19).

“의인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시 33:1-5).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시 145:1 이하).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성경 구절을 모두 인용하자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옮겨 적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진리, 정의와 의, 그분의 영원, 그 현존의 무한함, 그 사역의 위대함, 그 통치의 광대함, 그 왕국의 영속성, 그 다스림의 정밀함을 묵상하며 얼마나 자주 황홀경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주와 같이 강한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돌렸나이다”(시 89:8).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시 36).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시 90:2).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왕상 8).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시 111). “그의 행사는 존귀하고 엄위하며” 등.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분의 여러 탁월함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영광이 얼마나 드높이 찬양받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알려지는 것을 보며 지극한 기쁨을 누린다는 고백과 함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 내가 여호와의 길을 노래함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주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러한 구절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사든, 송영이든, 아니면 영광을 직접 돌리는 찬양이든, 그 글을 읽을 때 당신은 그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얼마나 고양된 영으로 터져 나왔는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났겠습니까! 것처럼 드넓고 무한한 마음,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마음이 그러한 노래들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민족과 피조물, 숨 쉬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이 한목소리로 찬양에 동참하도록 초대받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도 그들이 하나님을 드높였던 것과 같은 관점으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마음도 그분을 향한 동일한 열정과 기질로 고양될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헌신된 영혼들이 마치 향처럼 타오르며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기쁨과 사랑에 녹아내리며 더는 찬양할 수 없음에 애태우고 노래의 마지막 소절과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려는 모습을 볼 때, 어찌 그 대열에 함께하고픈 열망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시 104:33). “나 또한 저들과 같은 높이로, 가능하다면 더 높은 경지로 날아오르는 것을 나의 목표와 야망으로 삼으리라”고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시편들을<sup>†</sup> 읽어 보십시오. 영적이고 경건한 마음들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 당신의 마음도 동일한 것들로 감동받고 황홀경에 이르도록 힘쓰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라는 초대가 바로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위대하지 않으신가요? 그분은 그들의 창조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신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참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과거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린 근거였으니, 당신도 똑같은 진리를 눈앞에 두십시오. 이것이 그토록 보편적인 기쁨의 주제로 제시되었고, 온 창조 세계가 하늘과 땅의 피조물 수만급 현을 가진 악기처럼 지어졌으니, 깨어 서둘러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모든 것이 찬양하는데 당신만 침묵하며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종류와 본질을 지녔는지 진지하게 숙고해 보십시오. 그 기쁨의 근거와 이유가 드러나는 곳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특징은 진실로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기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세상이야 어찌 되든 ‘나만 안전하고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비천하고 편협하며 이기적인 쾌락이나 자기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노래의 핵심 주제는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위대하고 영화로우시며 탁월하시고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시다.” 성경이 기록하는 시대의 거룩한 영혼들에게는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걱정하는 의심과 두려움, 불안한 생각이 훨씬 드물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헌신했던 이들의 다른 경건한 실천들에 비해,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 불안한 생각 같은 것은 성경, 특히 신약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경건했던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에 가장 몰두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 일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거나, 장차 그리되리라는 희망과 확신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는 훨씬 덜 마음을 썼으며, 오히려 이러한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했습니다. 공동의 주인이신 분의 일에 가장 전념할 때, 그들 자신의 일은 저절로 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날 종교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이들 사이에서조차, 종교 생활의 거의 모든 관심사는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표적과 징표를 찾아 끝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탐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이는 마치 천국의 가치를 최저가로 후려치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며, 값을 깎으려는 태도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탁월한 존재가 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구원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목표로 삼으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차라리 그 목표라도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상의 신앙을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가장 마음을 쓰는 자신의 이익이란, 실상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익, 곧 감각과 육체, 세속적 유익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열심, 그리고 그분의 일에 대한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행합니다. 이는 그들 자신의 이익이 곧 하나님의 이익과 온전히 하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과 세상이자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리하여 세상 형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슬픔에 압도되고, 유리하게 돌아가면 기쁨에 들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분열 없이 한마음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로 불신 세상과 맞서 싸웠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대의에 공통된 적들 외에는 다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대의가 가시적으로 손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오직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평온한 시절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분명 그들에게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누릴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낙심하여 슬픔과 절망에 빠져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이 단 하나여서 적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억누르고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며,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억누르려던 시도가 기쁨을 더욱 키웠고, 그들의 불꽃에 부은 물은 기름 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뻐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위험을 승리의 계기로 바꾸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그토록 존귀한 이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머리아자 주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그들 곁을 떠나셨고, 그들은 광포한 세상 한가운데 멸시받는 무리로 남겨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인물의 대의에 헌신한다는, 겉보기에는 희망 없는 신앙고백을 하는 이들로 보였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뵈 적도 없고 소문과 전해들은 이야기로만 그분을 알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벧전 1:8). 그들 기쁨의 본질과 근거는 세상의 친절이나 호의, 혹은 맑게 갠 하늘처럼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우며 가볍고 실제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다른 이들이 가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되신 하나님 자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은, 그 기쁨의 대상으로 영원하신 ‘스스로 있는 자’(I AM)를 모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탁월한 영광은 세상과 감각의 눈에는 가려지고 흐려질 수 있으나, 믿음의 눈에는 여전히 한결같이 밝고 줄어들지 않는 광채로 빛납니다. 이 복된 대상을 그 자체로 바라볼 때 누리는 기쁨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며, 늘 새로운 생명력과

활기로 샘솟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왜곡된 동기나 가장 고상한 종류의 이기심조차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꾸준하고 올곧게 나아가는 영혼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엄청난 불균형과 격차에 걸맞은 종속 관계 안에서만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외적인 이해관계는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도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의 영원한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익은 훨씬 덜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다른 어떤 피조물, 나아가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운명보다 그 자체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자보다 전자를 훨씬 더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토록 가혹하고 부자연스러운 사랑과 충성의 시험을 부과할 필요도,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가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우리 마음에 던지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고통을 기뻐하시거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분의 지극히 복되신 본성과 영원하고 본질적인 지복에 어긋나는 심히 모욕적이고 사악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그분 본성의 선하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나 말을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혐오해야 합니다. 그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은 터무니없고 자기모순적입니다.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극심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으며, 온갖 사악함과 악의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공포이자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은혜와 영광의 관계가 그렇듯, 사악함과 영원한 고통 역시 대부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성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그분에 대한 영원한 증오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으며, “악마와 그의 천사들처럼 악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모세와 바울의 표현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기서 그 의미를 상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그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든 성경의 수많은 명백한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지를 굳이 거기서 찾으려 하는 것은 분명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됨을 마음에 두고 기뻐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다만 그 기쁨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비해 낮은, 종속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둘이 양립할 수 없다는 죄악 되고 터무니없는 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얻기 위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비롯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즐거움이야말로 올바른 본질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즐거움이 건전한지,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그 생명과 영혼으로 삼아 종교의 참된 본질에 참여하는 즐거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것이 단지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허공을 칠 뿐이며 그림자를 쫓고 있을 뿐입니다. 참되고 견고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그분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으로 삼는 최상의 사랑과 헌신과 분리해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쁨은 어디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영적 자세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대함, 절대적인 탁월성과 완전성을 굳건히 직관하고 바라봄으로써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만물(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으므로)이 온전히 그분께 속하여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마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5.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신의 유익을 가장 우선시하거나 기쁨의 최상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유익을 소홀히 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옛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탁월함과 영광 자체를 경탄하는데 가장 몰두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혜 입은 마음이 가장 자기다울 때 나타나는 참되고 올바른 기질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유익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 또한 명백합니다. 참으로 그 유익은 비록 주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점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 유업 등의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환희에 사로잡히는지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게 줄로 채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 16:6)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 관계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로 시작하는 시편 18편의 첫 두 절에서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견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홉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개선가가 올려 퍼지고, 그들이 얼마나 큰 환희에 차 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또다시 외칩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쁨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사랑스러운 시편 기자가 내선 마지막 거룩한 숨결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삼하 23:5). 이 고백과 함께 그는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며 숨을 거두어 무덤으로 내려갔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깨닫는 데서 오는 감격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을 아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현세대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만 한다고 여깁니다. “시온 산은 즐거워하며…” 등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시 48 편).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이 하나님!” 이 말은 곧 “보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모셨는가! 그분을 잘 살펴보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했듯이, 그 관계의 영원함 또한 자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시 67:6)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 내면에 있었을 기쁨은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전유(appropriation)입니까! 마치 복 그 자체는 덜 중요하며, 그 복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제맛을 낼 수 없으리라는 뜻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허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본질적으로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는 점과, 또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점 모두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기뻐하도록 허락받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첫째 되는 큰 율법이요, 여러분이 그분과 맺어야 할 언약의 신조입니다. 여기서 주저하고 거절하는 것은 곧 반역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분깃과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그 친절한 제안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배은망덕이겠습니까? 궁핍한 영혼들이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분에게서 생명의 숨을 공급받으며, 그분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의지하여 살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교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께서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기만 한다면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찬사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구해야만 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노래와 기도는 “내 생명의 하나님”(시 42:8)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완전한 선,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엡 1:23)으로 인정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그분과의 연합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며, 그 복된 연합 안에서 기뻐하고 위안을 얻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혹 아직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기뻐하는 일을 확신이 생길 때까지 멈추거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분이 기꺼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목적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즐겁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친히 여러분의 것, 곧 영원한 분깃과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의 진실성을 의심한다 해도(여러분이 의심할 구실이 있다면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분의 진리와 선하심을 생각할 때 그분을 의심하는 기미라도 내비치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을 염려하며 자신을 살피거나 자신의 악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에만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그분을 향해 곧고 굳건한 시선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깊이 바라보고 주목하여, 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 더욱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의 마음과 실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낯설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대해 불평할 거리를 너무 많이 발견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며 그분을 향하려는 성향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때 그들이 취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은 불평으로만 가득합니다.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 모든 날을 보내면서도 더 나아지려는 길은 결코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태가 사악하고 위험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런 모순을 더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머무는 것은 평생 죄와 비참의 굴레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행위가 그 자체로 충분히 정당화될 만큼 지극히 합리적인 일인 양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 보이는 계시 안에서 그분을 더욱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에서 그분의 사랑스러움과 사랑에 마음을 빼앗겨 그분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힘써 기쁨을 키워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나 의심이 더는 생기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더 큰 기쁨을 누릴 새로운 근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분이 본질적으로 탁월하신 분이로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을 기뻐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참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에 또한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잠 8:17)라는 말씀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는 그분의 명백한 말씀보다 더 만족스러운 확신은 없습니다.

6. 더 명백하고 심각한 죄들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죄의 위험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길은 평소 유혹이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거룩한 태도와 죄에 대한 마음의 확고한 혐오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기질이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힘쓰며, 순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마치 가슴에 불을 품을 수 없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더는 불순한 생각을 견디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일 이 점에 부주의하고 나태하여 마음이 방종에 빠지거나 죄악된 생각을 대담하게 받아들일도록 내버려 둔다면, 또는 다른 이들이 거리낌 없이 행하는 악한 길을 더 좋아하거나 덜 싫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낭떠러지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더 큰 균열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쁨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토록 즐거웠던 교제는 슬픈 단절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기뻐하는 데 필요한 빛과 은혜의 소통을 중단하고 제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을 대하실 때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십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중단되었는지는, 그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시 51:12)라고 기도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덜 좋아하게 되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향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행위는 순식간에 지나가도 그 여파는 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싫어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육신적인 마음 상태가 남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죄책감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여러분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하더라도 감히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짓도록 허용한 자유는 이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영의 속박을 낳을 것입니다. 양심이 완전히 잠들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리석고 오만한 확신을 배우지 않은 이상,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라”(욥 22:23, 26). 정화되지 않은 죄의 양심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7. 겸손이라는 위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자신을 비천하고 낮은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러한 기질은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달콤한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자신 안에서 경쟁할 만한 광채를 상상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은 그런 사람의 눈에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은 한낮에도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많이 감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거의 감탄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 중 가장 작은 것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겸손하고 낮은 영혼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사로잡힌 영혼이 ‘나같이 비천한 피조물, 더러운 벌레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인가!’라고 느낄 때, 예상치 못했던 그 신성한 자비를 얼마나 황홀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생각에서 비롯된 기대감은, 설령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이 떨어뜨립니다. 이는 예상했던 재앙이 막상 닥쳤을 때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옥에나 떨어질 죄인이라고 여기는 겸손한 영혼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실 때 놀라움과 기쁨에 압도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런 영혼에게 자신을 더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내가 돌보아 주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이다”(사 66:2).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처로 삼고자 돌보시니, 하늘과 땅도 그분에게는 그만큼 기쁜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지 속으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이자 자세입니다.

8.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진지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힘쓰십시오. 현재 상태를 넘어서서 바라보십시오. 지금 누리는 것에 시선과 기쁨을 한정하지 말고,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십시오. 복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회중에게 자신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선하심을 가장 풍성하게 부여하시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습도 이에 비하면 무미건조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금 이 우주의 구조와 피조물에 대한 섭리 및 통치의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분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맑아 구름과 어둠, 그리고 여러 겹의 장막을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기쁨에 찬 경탄을 자아낼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의 영광의 빛은 모든 피조물과 섭리, 율법, 규례를 통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에서 빛나는 그분의 영광 중 상당수는 연속된 제 2의 원인들에 가려져 있어, 제 1 원인이신 분을 바라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성향에 따라 그분의 율법을 판단할 뿐, 그 율법을 제정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은 안중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일은 신비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분의 뜻은 살아 있으나 억눌려 있습니다. 그분께 가장 헌신된 이들은 실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려 있지만, 대부분 낮고 고통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인식을 지금 나타나는 모습에만 국한한다면,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실재하지만 그 크기는 매우 줄어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그분을 바라보며, 만물의 영원한 상태를 정하신 뒤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실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배교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를 고향으로 불러 모아, 죄지은 적 없는 보좌 주위의 수많은 순결한 영들의 군단과 합치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시험과 유혹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분께 신실함과 의무를 다했던 이들의 머리와 마음에 상을 내리시고 복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바라보며 경탄하는 눈앞에 그분의 영광이 밝고 직접적인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나누어주시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수많은 영들의 광대하게 확장된 그릇을 영원히 채우도록 기쁨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때 그분의 ‘충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 어떠한지 모두가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그 복된 상태 사이에는 짧은 시간만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바로 그 시공간은 기쁨과 즐거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견과, 이처럼 합당하고 허락된 미래의 복을 미리 소유함으로써, 현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의 기쁨은 분명 크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발견하고 체험한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소망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 마땅히 더욱 풍성하게 기뻐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했으니, 이제 와서 그것을 권하기 위해 여러 논증을 제시할 필요는 거의 없으리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침들이 명백하고 쉬우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여기서 다시 권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거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말이 많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보다 더 강력한 손길이 일깨워 주시는 문제의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죄된 일인지는 앞서 설명했으므로, 그 점에서도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주 간략하게 다음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쁨을 그분께 두도록 허락하시고 또 초청하시는 것이야말로 자비로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라는 권면이 앞서 주어졌고, 이제 기뻐하라는 권면이 더해졌으니,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이 그분의 뜻임은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토록 큰 친절을 무시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하지 않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잠 8:31)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고, 경이로움 속에서 즉시 순복하십시오. 그 밖에 여러분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분을 대체할 만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더욱이 그분의 친구요, 자녀요, 한집안 식구인 여러분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분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길입니다”(느 8:10). 얼마나 즐겁게 자신의 길을 달려가며, 이 현세의 상태에서 주어진 다른 모든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감히 그분의 멍에를 벗어던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겨야 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오직 그 즐거움을 통해서만 저의 섬김이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저 자신에게도 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즐거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며,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환희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다른 대상들은 나날이 사라져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사람이든 마귀든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혐오했던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나중에 친절을 베풀어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않으셨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길이 언제나 그토록 큰 선의를 보여주었던 복되신 하나님께 왜 더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대어 보십시오.

또한 지상에서 여러분이 처한 조건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 그것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여러분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숙고하십시오.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전에 즐거운 교토를 나누며 살아왔던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견딜 만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그 모든 간청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분께 무심한 이방인이었음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고발하게 될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고찰에 더하여, 시편 구절의 뒷부분인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소원’이란 ‘소원하는 대상’을 의미함이 분명하며, 이는 통상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나 이 소원하는 대상에 우리가 아무리 터무니없이 마음을 쏟는 것, 예컨대 세상의 소유, 부, 명예 같은 것이 무엇이든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그토록 타산적이거나 것처럼 비천한 것들의 대가로 제시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며, 이는 복되신 하나님을 이것들보다 열등한 선으로 격하시키는 셈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즐거움 자체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다른 종류의 보상이나 대가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매우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을 갈망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그분은 여러 번 우리를 기쁘게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어 그가 하나님

자신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에게 해악으로 갚으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주시리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더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소원할 법한 것들은 다음 두 종류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만족과 유익을 주는 영적인 성격의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현세의 삶을 지탱하고 위로하는 외적인 선들입니다. 우리는 소원이 이 둘 중 하나라고 가정하고, 어떤 종류의 것을 소원하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소원의 만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1. 먼저, 소원하는 것이 영적인 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러한 소원의 가장 직접적인 만족입니다.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순수한 영적 선은 하나님 자신이거나, 그분께 이르는 과정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한에서 이미 그분을 누리고 있으며 원하는 바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더욱 온전하고 차분하게 안식하고 즐거워함으로써만 그분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소원하는 것이 그분께 이르는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이라 해도, 그 소원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최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며, 이 소원이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동하는 마음이 그분을 향해 품는 소원이 그분 안에서 즉시 평화롭고 즐거운 안식을 발견하고 만족스러운 결실로 전환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이끄는 큰 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2. 다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열등한 종류의 것이라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러한 소원을 만족시키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자체를, 그것이 무엇이든 또는 우리에게 얼마나 부적합하든, 얻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첫째로, 이러한 소원들을 조절하여 분별 있고 신중하며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에 만족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습관이 깊이 밴 사람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소원을 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는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소원할 수 있지만, 그들과 같은 독단적이고 성급한 소원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원은 순종으로 조절되며, 그 문제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맡기는 유보적인 경외심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면 이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소원의 보편적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비추어 자신에게 적합하고 선한 것뿐입니다. 그가 이 특정한 것을 소원할지라도, 그것 자체로서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문제를 온전히 맡긴 최고의 지혜가 이 일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주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르게 판단된다면, 이 특정한 것은 그의 보편적 소원의 범위를 벗어나며, 엄밀히 말해 그는 그것을 소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보신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발견하기 전까지만 그것을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의 이전 소원이 지녔던 분별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 대상을 기꺼이, 그리고 인내하며 그것 없이 지내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도 그의 소원은 만족됩니다. 즉, 육적인 마음에서 흔히 그렇듯이, 소원이 좌절되었을 때 분노와 광기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는 평화와 안식으로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신 바에 만족합니다. 실로, 그가 원했던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신에게 해롭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시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소원합니까?”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른 거의 모든 사람들처럼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로 대답하지 않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아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스스로 속고하거나 누군가의 질문을 받고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의 마음의 소리는 이러할 것입니다. 그의 갈망이 이 개별적인 것에 기울었을지라도, 그의 기도는 “주님, 주님의 지혜는 제 것보다 무한히 크시오니, 이 일이 합당치 않다고 여기신다면 저를 막으시고 저의 이 갈망을 거두어 주옵소서”가 될 것입니다. 개별적 갈망의 척도가 되는 이 보편적 갈망만큼은, 하나님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은 분명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곧 그분을 즐거워함은 이 약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을 누릴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본성상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잠잠히 만족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최상의 것이므로, 이런저런 개별적인 선을 향한 다른 모든 사랑을 압도합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 활성화된다면—이 본문은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즐거워하라는 부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그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마음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특정한 더 작은 선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그것이 지금 당장 자신에게 선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 합당하고 이성적인 의심이 들 수 있음에도)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의 보편적 선이신 하나님과의

논쟁이나 다툼거리가 되지 않게 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너는 나를 만물 위에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찌 이런 사소한 것을 두고 나와 다투려 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 생각이 어찌 그를 압도하지 않겠습니까?

덧붙여 말하자면, 외적인 선은 상황에 따라 특정인에게 악이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가변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볼 때, 외적인 선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어떤 믿음으로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물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특정인에게 악이나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약속의 대상이 되어 그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결론이 뒤따르겠습니까? 악이 약속의 실제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약속의 내용은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말이나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우, 약속은 (현재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변질되었으므로) 타락하여 위협으로 돌변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적인 선에 관한 약속에 조건이나 단서가 명시적으로 붙어 있지 않더라도, 사물의 본성상 그 조건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한정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떤 의미로도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실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세상의 것들에서 멀어져 있으므로, 그 현재의 심적 기질이 그러한 약속들의 본래적 성격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멈추지 않는 한, 이러한 저급한 것들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고통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

이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열등한 선을 향한 갈망을 줄이고 절제시켜, 설령 그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만족하게 하고 그 결핍을 능히 견디게 합니다. 나아가, (2) 만일 그것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누림에 만족스러운 감미로움을 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다른 차원에서 세상의 선한 것들을 맛보고 음미합니다. 그의 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감미로운 향기가 배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누림에 그것들이 본래 가진 것 이상의 달콤함을 더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들의 풍부함보다 낫도다”(시 37:16)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실을 제대로 헤아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됩니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며 다음의 결론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만일 당신이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 둔다면, 당신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주는

번뇌와 고통에서 확실히 해방될 것입니다. 당신 영혼의 움직임은 반드시 즐거운 안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갈망들은 더 큰 갈망에 삼켜지고, 마침내 모든 갈망은 하나님의 총만하심 안에 흡수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시 73:25).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 자체가 당신에게 현재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지옥 역시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충분히 숙고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합당한 대상이 영원히 차단된 그곳에서 갈망은 온전히 절망과 분노와 고문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얻을 수 없는 외적 대상을 좇던 탐욕스러운 욕망은 안으로 방향을 틀어, 굶주린 독수리처럼 비참한 영혼 자체를 영원히 쪼아 먹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거부하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이 지옥의 서막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이 쏠려 있는 메마르고 세속적인 헛된 것들이 잠시 동안 당신의 비참함을 덜어 주고 덜 느끼게 하는 약간의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는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의 광대한 갈망에 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로써 당신은 자신을 영원한 고통에 처하도록 확실히 선고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거짓되고 사라져 가는 선의 그림자들 안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복되신 하나님 안에서는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